

# 양주 어둔동사지

－ 양주 어둔동사지 석조유물군 수습조사 및 시굴조사 보고서 －

2015

경 기 문 화 재 단  
경 기 문 화 재 연 구 원  
양 주 시

# 차 례

|                               |    |
|-------------------------------|----|
| I . 머리말.....                  | 7  |
| II . 유적의 위치와 환경 .....         | 9  |
| 1. 유적의 자연·지리적 환경 .....        | 9  |
| 2. 고고·역사적 배경 .....            | 9  |
| III . 조사방법 및 어둔동사지 조사연혁 ..... | 16 |
| 1. 조사방법 .....                 | 16 |
| 2. 어둔동사지 조사연혁 .....           | 20 |
| IV . 조사내용.....                | 26 |
| 1. 시굴조사 .....                 | 26 |
| 2. 석조유물군 수습조사 .....           | 30 |
| 3. 수습유물 .....                 | 33 |
| V . 고찰 .....                  | 52 |
| VI . 맺음말.....                 | 64 |

## 부록

|                                             |    |
|---------------------------------------------|----|
| 1. 양주 어둔동사지 긴급발굴조사 출토 석조유물 보존처리 결과보고서 ..... | 77 |
| 2. 양주 어둔동사지 수습조사 석조유물 3D 스캔 도면 .....        | 87 |

## ◇ 일러두기 ◇

1. 본 보고서는 양주 어둔동사지 일원의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던 석조유물 수습과, 유적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시굴조사에 대한 보고서이다.
2. 도면의 방위는 磁北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도면의 축소비율은 1:10, 1:15, 1:20 등이다.
4. 유적 조사과정에서 유적에 대해 3D스캔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물은 보고서 말미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5. 본 조사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양주시와 학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였으며, 보고서 발간비용은 양주시에서 부담하였다.

## 지 도 차 례

|                                           |    |
|-------------------------------------------|----|
| 지도 1. 조사지역 고지도(근세오만분지일지도, 1917) .....     | 14 |
| 지도 2. 조사지역 위치도 및 주변유적 분포도(1:10,000) ..... | 15 |

## 도 면 차 례

|                                                             |    |
|-------------------------------------------------------------|----|
| 도면 1. 어둔동 사지 사역범위 .....                                     | 25 |
| 도면 2. 조사지역 현황도(1:300) .....                                 | 27 |
| 도면 3. Tr 2. 토층도(1:50) .....                                 | 29 |
| 도면 4. 석조유물군 노출 현황도(1~8 : 기확인 유물 / 9~20 신규확인 유물)(1:60) ..... | 32 |
| 도면 5. 석조여래입상 입면도, 단면도(1:15) .....                           | 34 |
| 도면 6.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복원 입면도, 단면도(1:20) .....                    | 35 |
| 도면 7.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두부, 상체부, 하체부 입면도, 단면도(1:20) .....          | 38 |
| 도면 8.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대좌 평면도, 단면도(1:20) .....                    | 39 |
| 도면 9. 석조여래좌상 입면도, 단면도(1:10) .....                           | 40 |
| 도면 10. 연화대좌 상대양련석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1:10) .....                 | 41 |
| 도면 11. 연화대좌 하대복련석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1:10) .....                 | 41 |
| 도면 12. 비신 입면도, 단면도(1:10) .....                              | 42 |
| 도면 13. 난간 기둥석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1:10) .....                     | 42 |
| 도면 14. 초석 1 평면도, 단면도(1:10) .....                            | 43 |
| 도면 15. 대좌중대석 1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1:10) .....                    | 43 |
| 도면 16. 대좌중대석 2 평면도, 단면도(1:10) .....                         | 44 |
| 도면 17. 초석 2 평면도, 단면도(1:10) .....                            | 44 |
| 도면 18. 초석 3 평면도, 단면도(1:10) .....                            | 45 |
| 도면 19. 초석 4 평면도, 단면도(1:10) .....                            | 46 |
| 도면 20. 초석 5 평면도, 단면도(1:10) .....                            | 47 |
| 도면 21. 초석 6 평면도, 단면도(1:10) .....                            | 47 |
| 도면 22. 초석 7 평면도, 단면도(1:10) .....                            | 48 |
| 도면 23. 초석 8 평면도, 단면도(1:10) .....                            | 49 |
| 도면 24. 초석 9 평면도, 단면도(1:10) .....                            | 50 |
| 도면 25. 장대석 평면도, 단면도(1:10) .....                             | 51 |
| 도면 26. 용도미상 평면도, 단면도(1:10) .....                            | 51 |

## 사 진 차 례

|                                                    |    |
|----------------------------------------------------|----|
| 사진 1. 조사지역 위치 .....                                | 13 |
| 사진 2. 조사지역 원경 .....                                | 17 |
| 사진 3. 조사지역 근경 .....                                | 17 |
| 사진 4. 조사전 상태 .....                                 | 17 |
| 사진 5. 조사지역 정리작업 후 .....                            | 18 |
| 사진 6. 유물노출작업 .....                                 | 18 |
| 사진 7. 유물노출 상태 .....                                | 18 |
| 사진 8. 시굴조사 전경 .....                                | 18 |
| 사진 9. 학술자문회의 .....                                 | 18 |
| 사진 10. 유물수습 1 .....                                | 19 |
| 사진 11. 유물수습 2(1차 세척) .....                         | 19 |
| 사진 12. 유물수습 3(1차 포장) .....                         | 19 |
| 사진 13. 유물수습 4(2차 포장) .....                         | 19 |
| 사진 14. 유물이전 운송 .....                               | 19 |
| 사진 15. 유물이전 완료 .....                               | 19 |
| 사진 16. 조사지역 복토작업 .....                             | 19 |
| 사진 17. 조사지역 복토 완료 .....                            | 19 |
| 사진 18. 대좌 하대복련석 노출상태 : 「楊州 於屯里 破佛三軀」(1986) .....   | 23 |
| 사진 19. 대좌 하대복련석 노출상태 : 2014년 긴급발굴조사 .....          | 23 |
| 사진 20. 대좌 상대양련석 노출상태 : 2014년 긴급발굴조사 .....          | 23 |
| 사진 21. 유물노출상태 : 좌상이 2-3번 유물과 떨어져 있음(1993) .....    | 24 |
| 사진 22. 유물노출상태 : 좌상이 2-3번 유물과 붙어 있음(2010) .....     | 24 |
| 사진 23. 1993년 조사당시 .....                            | 25 |
| 사진 24. 2006년 조사당시 .....                            | 25 |
| 사진 25. 2010년 조사당시 .....                            | 25 |
| 사진 26. 2014년 조사당시 .....                            | 25 |
| 사진 27. 트렌치 전경 .....                                | 26 |
| 사진 28. Tr 1. ....                                  | 28 |
| 사진 29. Tr 2. 전경 및 토층 세부 .....                      | 28 |
| 사진 30. Tr 3. ....                                  | 28 |
| 사진 31. 석조유물군 현황(1~8 : 기확인 유물 / 9~20 신규확인 유물) ..... | 31 |
| 사진 32. 대좌 상대석 아래에서 노출된 근대 묘비석 .....                | 31 |
| 사진 33. 12번 유물(초석 3) 옆 쓰레기 매립상태 .....               | 31 |

|                                                                                                             |    |
|-------------------------------------------------------------------------------------------------------------|----|
| 사진 34. 석조여래입상(①수습전 상태, ②전경, ③상반신 수인,<br>④~⑥불신에 새겨진 주름:정면, 우측, 좌측) .....                                     | 66 |
| 사진 35. 석조여래입상(①하단부, ②불두 연결 홈,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두부(③수습전 상태 ④전경,<br>⑤·⑥측면 세부, ⑦상체부 연결 홈, ⑧복원 전경) .....              | 67 |
| 사진 36.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상체부(①수습전 상태, ②전경, ③불두 연결 홈, ④ 정면 주름 세부,<br>⑤·⑥하체부 연결 홈, ⑦공수인 세부, ⑧·⑨측면 주름 세부) .....       | 68 |
| 사진 37.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하체부(①·②수습전 상태, ③전경, ④하체부 대좌 연결 홈, 불두 연결 홈,<br>⑤정면 주름 세부, ⑥상체부 연결 홈, ⑦·⑧측면 주름 세부) .....    | 69 |
| 사진 38.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대좌(①수습전 상태, ②전경, ③양발 세부, ④하체부 연결 홈,<br>⑤정면, ⑥~⑧측면) .....                                  | 70 |
| 사진 39. 석조여래좌상(①수습전 상태, ②전경, ③수인 세부, ④상부 세부, ⑤·⑥측면 세부),<br>연화대좌 상대양련석(⑦수습전 상태, ⑧평면, ⑨측면, ⑩연화문 세부) .....      | 71 |
| 사진 40. 하대복련석(①수습전 상태, ②전경, ③연화문 세부, 비신(④수습전 상태, ⑤전경),<br>난간 기둥석(⑥수습전 상태, ⑦·⑧측면), 초석 1(⑨평면, ⑩측면) .....       | 72 |
| 사진 41. 대좌 중대석 1(①수습전 상태, ②평면, ③~⑤측면), 대좌 중대석 2(⑥수습전 상태, ⑦평면, ⑧~⑪측면),<br>초석 2(⑫수습전 상태, ⑬평면, ⑭측면) .....       | 73 |
| 사진 42. 초석 3(①평면, ②측면), 초석 4(③평면, ④측면), 초석 5(⑤평면, ⑥측면), 초석 6(⑦평면, ⑧측면) ...                                   | 74 |
| 사진 43. 초석 7(①평면, ②측면), 초석 8(③평면, ④측면), 초석 9(⑤평면, ⑥측면), 장대석(⑦평면, ⑧홈세부),<br>용도미상 석조품(⑨수습전 상태, ⑩평면, ⑪입면) ..... | 75 |

## I. 머리말

양주 어둔동사지는 1977년 『文化遺蹟總覽』을 통해 알려진 유적으로서, 최초 보고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학술조사를 통해 꾸준히 학계에 보고되어 왔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적 자체는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석조유물들이 지표상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 이에 관할 관청인 양주시에는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하고자 양주 어둔동사지내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석조유물군에 대한 긴급 수습조사를 계획하고 본 연구원에 발굴조사를 의뢰해 왔다.

이에 2014년 6월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제 2014-0655호)를 받고, 본 연구원은 양주시와 학술발굴조사용역 계약을 맺고 2014년 7월 9일 발굴조사에 착수하여 8월 7일에 완료하였으며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유 적 명 : 양주 어둔동사지 긴급발굴조사
- 허가번호 : 제2014-0655호(2014. 6. 30)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어둔동 193번지 일원
- 조사유형 : 시굴조사 및 지표상에 드러난 유물 수습
- 조사목적 : 지표상에 노출된 석불 등의 석조유물의 수습·이전과 함께 주변지역의 유적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보존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조사기간 : 2014년 7월 9일 ~ 8월 7일(시굴조사 : 현장조사 3일)
- 조사면적 : 총 300㎡
- 조사경과 :
  - 2014. 6. : 문화재청 허가(제2014-0655호)
  - 2014. 7. 09 : 긴급발굴조사 용역 계약
  - 2014. 7. 09 : 긴급발굴(시굴)조사 착수
  - 2014. 7. 17 : 긴급발굴(시굴)조사 현장조사 완료
  - 2014. 7. 22 : 학술자문회의 실시
  - 2014. 8. 6 : 석조유물 이전
  - 2014. 8. 7 : 조사완료

우리 연구원에서는 긴급발굴(시굴)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단(조사당시 직함)을 구성하였다.

조 사 단 장 : 조 유 전(경기문화재연구원장)  
 책임조사원 : 고 재 용(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조 사 원 : 이 병 훈(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준 조 사 원 : 강 성 표(경기문화재연구원 준조사원)

1) 표 1 참조.

조사지역이 사유지인 관계로 향후 형질변경이나 석조유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 관리를 위하여 긴급발굴 조사를 완료한 후 유물을 현재의 위치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기로 하고 연구원 內 보존과학실에서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책임연구원 : 김 웅 신(경기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부장)

연구원 : 이 윤 정(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존과학 전공)

설 아 현(경기문화재연구원 보조원, 보존과학 전공)

현장조사는 조유전의 지휘 아래 고재용이 총괄하고, 이병훈이 담당하였다. 트렌치 토층 실측은 강성표가 담당하였으며, 유적 사진은 이병훈이 촬영하였다. 유물의 이전은 김웅신·이윤정·설아현이 담당하였으며, 현장 발굴조사단원들이 보조하여 기본적인 세척 등의 보존처리를 실시한 후에 진행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진행된 전반적인 보고서 간행과 관련된 주요 실무는 이병훈이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석조유물의 실측은 3D 스캔을 기본으로 하여 김영화·진수정·윤소영·강미숙이, 캐드 및 편집은 조은정이 담당하였다. 도면과 사진의 편집은 이병훈이, 도면의 전산화 작업은 조은정·강성표가 담당하였다.

유적의 전체 현황은 ‘한빛토목설계공사’가 맡아 측량하였고, 석조유물의 현장 3D스캔은 ‘C3D’에서 실시하였다.

보고서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인 손영문 선생님(문화재청 전문위원)께 석조유물 중 석조불상들의 설명과 고찰을 의뢰하여, 전체적으로 보고서의 본문 중 I~Ⅲ장은 이병훈, Ⅳ장은 손영문·이병훈, Ⅴ장은 손영문이 담당하였으며, 맺음말은 김성태가 작성하였다.

보고서 편집은 김영화(경기문화재연구원 유물활용부장)·이병훈이 담당하였고, 김성태가 검토한 후 김성범이 이를 최종 수정·가필하였다.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조사시 직접 방문하여 도움 말씀과 격려를 하여 주신 최태선(중앙승가대학 교수)·손영문(문화재청 전문위원)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발굴조사 및 보고서 발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양주시청의 윤윤배(前 문화관광과 문화재중무팀장), 김동규(문화관광과 문화재중무팀 학예연구사) 선생님과 수습유물의 보관을 담당해 주신 양주 회암사지 전시관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양주 어둔동사지 긴급발굴(시굴)조사 결과, 이미 노출된 석조유물과 신규로 석조유물 10여점이 확인되었을 뿐 이들 유물과 관련지을 수 있는 유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전까지 알려진 기록과 내용들을 비교 분석했을 때 이 지역이 최초로 알려진 이후에 공동묘지 및 경작지 조성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과 매립 등의 형질변경 행위가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유물이 확인되기도 하고 또 이미 확인되었던 유물이 다시 땅속에 매몰되기도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양주 어둔동사지의 긴급발굴조사를 통하여 본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표상에 노출된 유물과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유물 등, 총 20건 23점의 석조유물을 수습하여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또한 석조유물 주변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비록 유구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역에 대한 대략적인 범위를 추정해 볼 때 어둔동사지의 중심사역은 이번 조사지역에서 보다 북동쪽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수습된 석조유물 중 불상의 표현양식으로 볼 때 그 시기는 고려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sup>2)</sup>

### 1. 유적의 자연·지리적 환경

경기도의 북부에 위치한 양주시는 수리적으로 동경 126° 54′ ~127° 07′, 북위 37° 57′ ~37° 57′ 에 해당한다. 북쪽으로는 연천군과 동두천시가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서울과 의정부, 동쪽으로는 포천시, 서쪽으로는 파주시가 위치한다. 201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양주시의 총 면적은 310.31km<sup>2</sup>이며 행정구역상 1읍 4면 6동(130통, 100리, 1,908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77,118세대에 206,259명이다.

양주시 일대는 楸哥嶺構造谷의 끝자락에 해당하며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의 저지대가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길게 발달하였다. 북쪽은 감악산, 남쪽은 노고산, 상장봉, 오봉산, 도봉산이 솟아 있으며, 동쪽은 칠봉산을 주봉으로 하는 천보산맥이 둘러져 있고, 서쪽으로는 노고산, 앵무봉이 있다. 또한 양주시의 중심에는 불국산, 도락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산들은 광주산맥이 태백산맥의 철령 부근에서 갈라져 서울 근처에 달하는 험준한 산들이다. 한편 주요 교통로는 동두천시의 남부와 의정부시 북부 사이의 南北走向의 단층선을 따라 발달하였다.

양주시의 대표적인 하천으로는 불국산 북쪽에서 발원한 중랑천이 3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흘러 한강과 합류하고, 청담천은 회암천 등 작은 지류들과 합류하여 시의 중앙을 가로질러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신천으로 유입된 후 한탄강을 통해 임진강과 합류한다.

양주시 일대의 지질은 신생대의 연천계 회색화강편마암, 중생대의 대동계·경상계이다. 이 일대는 거의 대보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주시의 서남부지역에 고상편마암이 분포한다. 양주시의 기후는 내륙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서의 차가 심하며 1월 평균기온 -6.1℃, 8월 평균기온 25.3℃이다. 또 강수량의 편차도 큰 편이며 하기 7월과 8월에 내리는 집중호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를 차지한다. 연강수량은 1,300mm이다.

### 2. 고고·역사적 배경

양주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걸친 전 시기의 유적이 존재한다. 또한 일찍부터 성읍이 형성되어 중앙의 통제를 받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화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1998년 한국토지박물관에서 실시한 광역지표조사에 따르면 모두 285개소의 유적이 확인되었으며,<sup>3)</sup> 이후에도 크고 작은 지표조사를 통해 많은 유적이 조사되었다.

구석기시대 유적은 과거 양주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외곽지역에서 주로 발견되었는데 임진강·한탄강유역에 속하는 연천 전곡리·남계리, 파주 주월리·가월리 등지에서도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된 바 있으며 남양주시에

2) 본 내용은 아래의 글을 인용, 요약·정리하였다.

파주시, 2009,『파주시지』.

파주시·한양대학교박물관, 1999,『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8,『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서는 호평동유적, 지새울유적, 와부읍 덕소유적이 확인되었다. 호평동유적은 2개의 후기구석기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하부문화층은 석영제 소형석기와 옹회암제 석기의 돌날제작단계이며, 상부문화층은 석영제 소형석기와 흑요석석기의 쯤돌날제작단계로 확인되었다. 지새울유적 3지점에서는 암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된 2개의 문화층에서 석영 또는 석영맥암을 돌감으로 하는 몸돌, 격지, 조각과 함께 굽개, 밀개 등이 확인되었다. 와부읍 덕소유적은 적색점토층에서 돌날제작단계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최근 양주시 내에서도 용암리에서 다면석기를 비롯한 굽개 등의 유물이 발견<sup>4)</sup>되어 앞으로도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옛 양주군 관내 여러 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되었는데 구리시와 남양주시, 와부면, 은현면, 서울 암사동 주거지 유적 등에서 집단생활을 영유하던 집단취락 유적과 즐문토기를 비롯한 다량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최근에는 양주 옥정신도시 추가편입지역에서 신석기시대의 주거지 및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sup>5)</sup> 현재까지는 양주시의 신석기시대 유적 발견례가 매우 적지만, 하천변을 중심으로 충적대지 등이 넓게 자리하고 있어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면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현재까지 14개소가 확인되는데, 이중 고읍동유적<sup>6)</sup>이 대표적이다. 고읍동유적에서는 능선 정상부와 사면을 따라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삼국시대의 주거지 및 고려~조선시대의 분묘 등 다양한 유적이 확인되었다. 그밖에도 양주시 곳곳에 보고된 유적으로는 당시 마을 신앙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옥정동 지석묘 및 입석, 주내면 녹양리 지석묘, 마전리 지석묘군 등이 알려져 있고, 이 외에도 청동기시대 유물 산포지가 몇 군데 확인되고 있다.

초기철기시대의 양주시 일대는 마한의 소국이었던 고리국(古離國)이 지금의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기 역시 정식으로 발굴조사 된 유적은 없으나 지표조사를 통해 옥정동과 상수리에서 타날문토기 등이 수습되었으며,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삼국시대의 유적이 더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차후 정밀조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수의 초기철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될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양주시는 사방으로 통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와 임진강과 한탄강이 자연 방어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삼국의 각축장이 되었다. 따라서 양주시 일대에는 관방유적이 다수 자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적 제 526호인 양주 대모산성을 들 수 있다.<sup>7)</sup> 대모산성은 해발 212m인 대모산의 정상부를 에워싸고 있는 태피식 석축산성이다. 산성의 둘레는 약 1.4km이며, 발굴조사 결과 10개소의 건물지와 북문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성내부에서는 삼국~조선시대의 유물이 고루 출토되었다. 임진강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한 대모산성은 주변의 산성 중 주 교통로에 위치하여 단지 방어만을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 아니라, 행정치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복합적 성격의 유적으로, 양주지역의 전술적 요충지 또는 치소로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높이 약 7.5m 내외의 외벽을 쌓아 올린 다음 그 외부에 삼각형 모양의 단면형태를 띤 4~5m 높이의 보축을 덧대어 축조한 우수한 축성술과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현문식(懸門式) 성문구조, 축조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성벽 등은 6~7세기의 고대 축성기술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1980년부터 1998년까지 7차례 이루어진 발굴조사로 635점의 금속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최고 관리 계층이 소유할 수 있었던 청동 팔찌, 청동 도장 등은 대모산성의 위상을 보여주며, 각종 농구류, 공구류 등을 통해 대모산성을 중심으로 그 관할지의 농업·수공업 생산력이 높았고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많은 농산물과 수공업품이 대모산성으로 집중·관리되어 물류 거점의 역할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고려~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양주 관아지 및 회암사지가 있다. 관아지는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동헌지와 내아지를 비롯한 건물지 30동, 담장지 9개소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회천읍 회암리에 소재하고 있는 회암사지는 1997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차의 조사가 진행되었다.<sup>8)</sup> 또한 주내면 산북리 일대에서는 주거지, 솟가마, 토광묘, 수혈유구 등의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어 조선시대 문화상의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sup>9)</sup>

조사지역인 양주 어둔동사지 주변 500m이내 유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어둔동 유물산포지1<sup>10)</sup>

(1)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어둔동 201전, 200전(지도 2의 4)

(2) 시대 : 통일신라

(3) 면적 : 8,212m<sup>2</sup>

유양동 유물산포지 4와 마주하는 능선의 남사면상의 경작지이다. 채집되는 유물은 통일신라기의 토기편과 와편 등이다.

## 2) 어둔동 유물산포지2<sup>11)</sup>

(1)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어둔동 205-4(지도 2의 5)

(2) 시대 : 통일신라

(3) 면적 : 6,274m<sup>2</sup>

어둔동 유물산포지 1과 논을 경계로 마주하는 지점의 능선 북동사면에 형성된 유물산포지이다. 채집되는 유물은 주로 경질토기로 통일신라기의 토기편이며 산포밀도도 높은 편이다. 입지상 주거지가 부존할 가능성이 있다.

## 3) 어둔동 유물산포지3<sup>12)</sup>

(1)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어둔동 295전, 298묘(지도 2의 6)

(2) 시대 : 통일신라

(3) 면적 : 8,204m<sup>2</sup>

대모산성 남동편 자락의 능선 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어둔리 유물산포지 2와는 북쪽으로 구릉 1개를 사이에

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8,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p. 317~318.

5)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0, 「양주신도시(옥정) 추가편입지역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6)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6, 『양주 고읍동유적』.

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8,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4, 「양주 회암사지 11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양주 산북리 한승임대아파트 건립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1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8,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8,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8,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두고 있다. 산포지 남쪽으로는 논이 접해있으며 현재 개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유물은 주로 통일신라시대의 토기편 등으로 채집된 유물과 입지로 볼 때 주변에 주거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 4) 유양동 유물산포지4<sup>13)</sup>

- (1)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649전(지도 2의 10)
- (2) 시대 : 통일신라
- (3) 면적 : 4,354m<sup>2</sup>

360번 도로에서 남방리로 넘어가는 우마차로를 따라 400m 남쪽으로 내려오면 동편으로 구릉사이의 계곡부를 묘목장으로 이용하는 곳에 이르게 된다. 산포지는 이 묘목장 전면과 양쪽 구릉사면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채집되는 유물은 주로 토기편들이며 일부 자기편도 보인다. 채집되는 유물의 대부분 생활유물이어서 건물지 혹은 주거지가 부존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 5) 유양동 유물산포지7<sup>14)</sup>

- (1)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645전 (지도 2의 13)
- (2) 시대 : 고려시대, 조선시대
- (3) 면적 : 55,395m<sup>2</sup>

양주시청에서 광적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남쪽으로 주내제일교회로 진입하여 소로를 따라 남서쪽으로 계속 진행하면 목장이 나타난다. 목장의 동쪽은 잔구성 구릉에 둘러싸여있는 경작지인데 이곳에 유물이 산포하고 있다. 유적의 범위는 어둔~유양간 도로와 접한 어둔이골의 경작지 남쪽 끝에 위치한 축사로 부터 탄천공동묘지까지의 낮은 구릉에 해당한다. 유물은 자기편, 도기편, 기와편이 확인되었다.

#### 6) 유양동 지석묘2<sup>15)</sup>

- (1)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626답 일원(지도 2의 17)
- (2) 시대 : 청동기시대
- (3) 면적 : 13,777m<sup>2</sup>

대모산성의 동쪽 산록 하단부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해발 80m 안팎의 골짜기이며, 현재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일대에는 크고 작은 화강암이 논둑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 이중 가장 큰 것은 논둑 사면에 비스듬히 놓여 있는데 장축은 남~북방향이며 크기는 길이 240cm, 너비 170cm, 높이 120cm 정도이다. 이외 북쪽에도 길이와 폭이 130cm 정도 되는 화강암 2매가 관찰된다. 주변에서 유물이 채집되지 않고 하부구조가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지석묘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입지조건과 커다란 화강암이 이동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서는 지석묘일 가능성도 있다.

1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8,『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4) 동국대학교박물관, 2005,『양주 광사~고읍 도로 확·포장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8,『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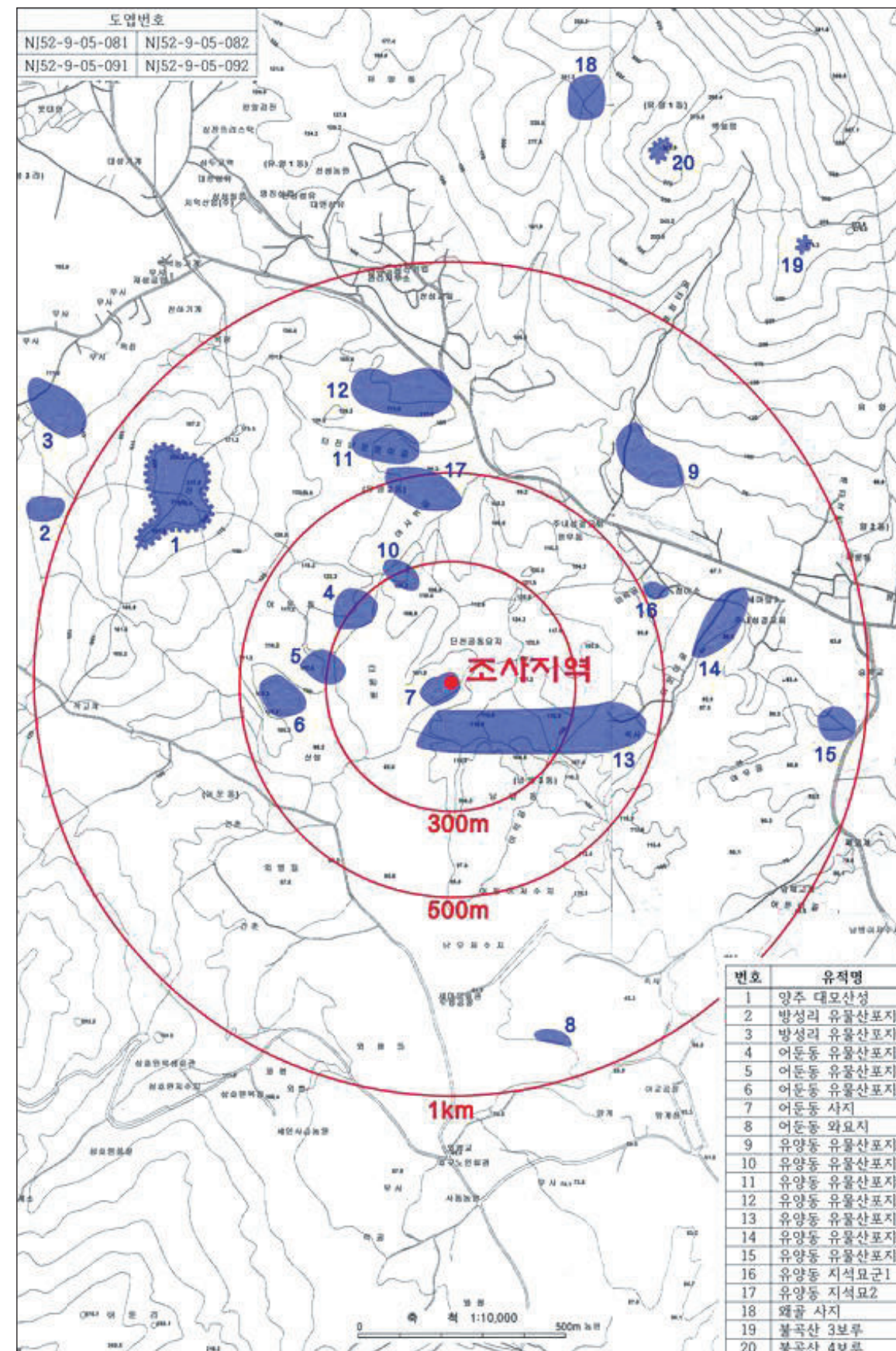
1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8,『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사진 1. 조사지역 위치



지도 1. 조사지역 고지도(근세오만분지일지도, 1917)



지도 2. 조사지역 위치도 및 주변유적 분포도(1:10,000)

### Ⅲ. 조사방법 및 어둔동사지 조사 연혁

양주 어둔동사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주시 어둔동 195 일원으로, 면적은 66,815㎡이다.<sup>16)</sup> 지형상 북서쪽에 위치한 대모산에서 뻗어내린 구릉의 사면부 및 곡간부에 해당된다. 해당지역 일대의 사면부는 공동묘지로 이용되고(단천공동묘지), 곡간부는 논으로 이용되어 대부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번 긴급발굴조사는 어둔동사지의 전체 사역중 석불 등의 석조유물들이 노출되어있는 193번지 및 195번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면적은 300㎡이다.

#### 1. 조사방법

##### 1) 사전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조사지역은 현재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 ‘단천공동묘지’와 경작중인 논 사이의 평지로, 가운데 부분에 석조유물들이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사지』(2010)에서는 ‘어둔동사지’의 사역을 이곳을 포함하여 공동묘지 일대를 보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조사지역이 『한국의 사지』에서 추정된 ‘어둔동사지’의 중심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조사방향을 다음과 2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어둔동사지가 전체 사역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위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유구를 확인하기 위해 석조유물군을 중심으로 주변에 3개소의 트렌치 설정하여 조사한다.

둘째, 지표상에 장시간 노출되어 훼손이 우려되는 석조유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존을 위하여 유물을 수습하여 이전한다.

##### 2) 시굴조사

조사지역 전역에 우거져 있는 잡풀을 제거하여 석조유물을 노출시켰다. 이후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석조유물군 중심으로 명확한 유구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폭 2m의 트렌치를 3개소 설정하여 제토작업을 하면서 유구의 확인 및 조사지역내 퇴적양상과 층위를 확인하였다(Tr 1~3).

시굴조사를 완료한 후 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석조유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현황측량과 3D스캔을 실시하여 자료확보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1차 자료 확보후 석조유물의 안전한 이전 준비를 실시하였다.

##### 3) 유물수습 및 이전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던 석조유물은 우선 육안관찰을 통해 박리나 훼손 정도를 파악한 후 오염물은 솔과 붓, 압축공기분사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중성지와 솜포, 부직포 등으로 포장한 다음, 중장비를 이용하여 유물보관장소로 이전하였다.

16) 문화재청, 2010, 『한국의 사지』, -사지(폐사지) 현황조사보고서 上.

#### 4) 조사후 복토작업

시굴조사 및 유물이전 완료 후 사유지인 조사지역에 복토를 실시하여 원상복구를 함으로써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사진 2. 조사지역 원경



사진 3. 조사지역 근경



사진 4. 조사전 상태



사진 5. 조사지역 정리작업 후



사진 6. 유물노출작업



사진 7. 유물노출 상태



사진 8. 시굴조사 전경



사진 9. 학술자문회의



사진 10. 유물수습 1



사진 11. 유물수습 2(1차 세척)



사진 12. 유물수습 3(1차 포장)



사진 13. 유물수습 4(2차 포장)



사진 14. 유물이전 운송



사진 15. 유물이전 완료



사진 16. 조사지역 복토작업



사진 17. 조사지역 복토 완료

## 2. 어둔동사지 조사연혁

어둔동사지에 대한 조사는 과거에 크게 4차례 이루어졌다.

1977년 조사에서는 3조각으로 분리된 불상 1기와 비 1기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으나, 1988년 조사에서는 이 외에도 석조여래좌상과 팔각연화대좌, 팔각석등화사석, 방형초석 2기, 圓頭碑身 1기, 당간지주 1기 등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2007년 조사에서는 이 외에 북서쪽에 위치한 묘지의 축대에서 원형초석 1기를 더 발견하였다고 한다. 2010년 조사에서는 석조여래좌상 1기, 석조여래입상편 3기, 석조여래상두부편 1기와 연화대좌 1기, 석등화사석 1기, 장대석 1기, 방형초석 1기 등 총 9기의 석조유물이 보고되었다.<sup>17)</sup>

이상의 내용을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어둔동사지 조사연혁 및 내용

|   | 서명                                        | 내용                                                                                                                                                                                                                                                                                                                                                    | 비고                                                                                                                                                                                                   |
|---|-------------------------------------------|-------------------------------------------------------------------------------------------------------------------------------------------------------------------------------------------------------------------------------------------------------------------------------------------------------------------------------------------------------|------------------------------------------------------------------------------------------------------------------------------------------------------------------------------------------------------|
| 1 | 『文化遺蹟總覽』<br>(문화재관리국, 1977)                | 양주어둔리 불상 : 조선숙종때 건립된 것으로 추측되는 사지에 남아있는 석조불로, 머리, 몸체, 하체가 각각 3조각으로 되어 흩어져 있다. 높이는 2.7m이다.<br>양주어둔리 비 : 산정부락 북동쪽 약 500m 지점에 석불과 같이 있는데 높이는 97cm, 폭은 40cm이며 비문은 있으나 알아보기 어렵다.                                                                                                                                                                            | 어둔리사지 석조유물에 관한 최초 기록<br>유물 수량 : 총 2건 4점<br>입상불과 비만 언급<br>도면, 사진 없음.                                                                                                                                  |
| 2 | 『楊州於屯里 破佛三軀』<br>(김길웅, 『고고미술』 제 169, 1986) | 대석불입상-3등분, 두부가 떨어져 나가고 신부는 2개로 구분됨. 신부하체의 둘은 하부가 매몰되어 있어 현상을 알 수 없음. 두부는 육계를 포함하여 7등분, 보개를 썼던 흔적이 없음. 원공으로 조립.<br>小석불입상-두부가 떨어져 나감. 두부와 목은 원공에 의해 조립.<br>석불좌상-두부와 광배상단 일부가 파손.<br>石碑-“康熙十七戊午年立石”, “大施 樂善者”, “主”, “大”, “重發”등의 명문 확인됨. “重發”-즉 다시 발원한다는 것은 이 사찰이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조선 숙종 4년에 중창하여 이후 어느 시기까지 존재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음.<br>이외 석등화사석편, 연화대좌, 기타 석부재 있음. | 어둔리 불상과 석비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논문.<br>문화유적총람의 수량 이외에 석등화사석편, 연화대좌, 기타 석부재가 있다고 언급.<br>비문의 최초 판독. 어둔리사지의 내용.<br><u>개별 유물 사진만 있음, 최초 8각연화대좌는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5번 유물. 즉 발굴조사시 지표상에 드러난 것이 아님.</u> 『한국의 사지』에서 확인 안됨. |

17)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 上』, p156.

경기도, 1988, 『기내사원지』, p177~183

상명대학교박물관, 2007, 『문화유적분포지도-양주시』, p175~176.

문화재청, 2010, 『한국의 사지』, -사지(폐사지) 현황조사보고서 上-에서 재인용

|    | 서명                                 | 내용                                                                                                                                                                                                                                                                                                                                                                                                                               | 비고                                                                                                                                                                               |
|----|------------------------------------|----------------------------------------------------------------------------------------------------------------------------------------------------------------------------------------------------------------------------------------------------------------------------------------------------------------------------------------------------------------------------------------------------------------------------------|----------------------------------------------------------------------------------------------------------------------------------------------------------------------------------|
| 3  | 『繼內寺院誌』<br>(경기도, 1988)             | 구덩이 내에 석조유물들이 있어 이 불상들이 있는 곳은 법당지가 아니라, 누군가 유물들을 갖다 놓은 것이라 봄. 구덩이 위치는 절의 입구로 추정 (구덩이 안에 당간지주), 건물지의 위치는 구덩이 뒤쪽 약 3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평탄지로 추정.<br>구덩이 내: 두부가 없는 불신 3구, 팔각연화대좌, 팔각석등화사석, 사각주초석 2점, 원두비신, 당간지주 1짝 등 모두 9점 언급.<br>구덩이 외: 불두 1점, 장대판석, 원형주좌의 주춧돌, 주형거신광배와 일석인 불좌상. 총 약 13점.<br>육계는 따로 떨어져나가 있으며 크기 언급.(원뿔형)<br>팔각연화대좌: 고려시대<br>방형주초석 2점: 조선시대<br>원형주초석: 고려시대<br>원두비신: 적어도 7줄 명문.<br>화사석8각연화대좌와 같은 부품으로 추정<br>당간지주:다른 한짝 없음 | 육계에 대한 구체적 크기 언급.<br>3구를 조합해서 만든 것으로 언급.<br>4각주초석과 원두비신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고려시대.<br>불상 이외에 타유물에 대한 최초의 설명<br>장대석을 당간지주로 보고 있음.<br>노출양상에 대한 최초 언급(구덩이 내/외, 제외치 아닌 이동 등)<br>전체도면 및 사진 없음 |
| 4  | 『楊州郡誌』<br>(양주군, 1992)              | “기내사원지” 내용과 동일                                                                                                                                                                                                                                                                                                                                                                                                                   | 대략적인 전체 사진 있음.<br>“기내사원지” 내용 그대로 인용.<br>‘당간지주 1짝’을 ‘당간지주 1쌍’으로 기록.<br>바로 이전자료를 그대로 기록.                                                                                           |
| 5  | 『楊州의 地名由來』<br>(양주문화원, 1993)        | 어둔리의 지명유래-왜군 주둔지, 빨리 해가 저 어두워서.<br>‘미륵굴’지명유래를 설명하면서-미륵 2개 있음. 그 중 하나는 세 동강이난 미륵인데, 윗몸통은 땅에 누워있고 하부는 서 있으며 머리는 구렁에 떨어져 있다. 다른 하나는 두 동강이 나서 머리와 몸통이 떨어져 있다.                                                                                                                                                                                                                                                                        | 불구 4기에 대한 언급.                                                                                                                                                                    |
| 6  | 『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Ⅱ』<br>(사찰문화연구원, 1995) | 석불좌상, 석불입상, 불두, 팔각연화대좌, 석등화사석, 비석, 당간지주, 주춧돌 일부 로 언급.<br>육각연화대좌를 ‘팔각연화대좌’로 그 형태를 잘못 언급<br>‘기내사원지’ 비문 ‘化主’로 바꿔 인용한 것을 그대로 언급.                                                                                                                                                                                                                                                                                                     | 본문에서 언급하는 팔각연화대좌는 육각연화대좌로, 새로 나타난 유물, 이전 자료에서 언급되는 팔각연화대좌가 아님.                                                                                                                   |
| 7  |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br>(토지박물관, 1998)   | 조사당시 잡풀이 우거져 유물실견 못함. 다만 논둑에 있는 원형주초석만 확인.                                                                                                                                                                                                                                                                                                                                                                                       |                                                                                                                                                                                  |
| 8  | 『京畿道佛蹟資料集』<br>(경기도박물관, 1999)       | ‘어둔리석불군’이라 명명<br>구덩이 안에 불상 총3구로, 입상이 2구, 좌상이 1구.1구는 복원높이 4M, 다른 석불입상은 무릎이하 매몰, 좌상은 이곳에서 가장 잘 남아있는 불상.<br>구덩이 유물 주변에 불두, 장판석, 주춧돌 있음.                                                                                                                                                                                                                                                                                             |                                                                                                                                                                                  |
| 9  | 『문화유적분포지도』양주시<br>(상명대박물관, 2007)    | 1993년 자료와 조사 동일, 추가로 북서쪽 묘지 축대에서 원형초석 1기 추가로 확인.                                                                                                                                                                                                                                                                                                                                                                                 |                                                                                                                                                                                  |
| 10 | 『한국의 사지(상)』<br>(문화재청, 2010)        | 석조여래좌상 1구, 석조여래입상편 3구, 석조여래상두부편 1구, 연화대좌 1기, 석등화사석 1기, 장대석 1기, 방형초석 1기 등 9기 확인.<br>기조사에서 확인된 원두비신, 당간지주, 원형초석은 확인되지 않음.                                                                                                                                                                                                                                                                                                          | 기조사의 ‘당간지주’를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대신 ‘장대석’으로 신규 보고.<br>‘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Ⅱ’에서 언급한 ‘육각연화대좌’ 언급.                                                                                               |

〈표 2〉 어둔동사지 석조유물 조사별 기록 현황

| 연번 | 유물명                     | 어둔동사지 조사 기록 |                           |               |      |                 |                              |                     |                  |                   |                      |              |                    |
|----|-------------------------|-------------|---------------------------|---------------|------|-----------------|------------------------------|---------------------|------------------|-------------------|----------------------|--------------|--------------------|
|    |                         | 文化遺蹟<br>總覽  | 楊州<br>於屯<br>里<br>破佛<br>三軀 | 畿內<br>寺院<br>誌 | 楊州郡誌 | 양주의<br>지명<br>유래 | 인천<br>·<br>경기도의<br>전통사찰<br>Ⅱ | 양주군의<br>역사와<br>문화유적 | 경기도<br>불적<br>자료집 | 경기문화<br>유적지도<br>Ⅲ | 문화유적<br>분포지도<br>:양주시 | 한국의<br>사지(상) | 2014<br>긴급발굴<br>조사 |
| 1  | 석조여래입상 1                |             | 0                         | 0             | 0    | 0               | 0                            |                     | 0                |                   | 0                    | 0            | 0                  |
| 2  | 2-1 拱手印 석조여래<br>입상(두상)  | 0           | 0                         | 0             | 0    | 0               | 0                            |                     | 0                |                   | 0                    | 0            | 0                  |
|    | 2-2 拱手印석조여래<br>입상 (상반신) | 0           | 0                         | 0             | 0    | 0               | 0                            |                     | 0                |                   | 0                    | 0            | 0                  |
|    | 2-3 拱手印석조여래<br>입상 (하반신) | 0           | 0                         | 0             | 0    | 0               | 0                            |                     | 0                |                   | 0                    | 0            | 0                  |
|    | 2-4 拱手印석조여래<br>입상(대좌)   |             |                           |               |      |                 |                              |                     |                  |                   |                      |              | 0                  |
| 3  | 석조여래좌상                  |             | 0                         | 0             | 0    |                 | 0                            |                     | 0                |                   | 0                    | 0            | 0                  |
| 4  | 대좌 상대양련석                |             |                           |               |      |                 | 0                            |                     |                  |                   | 0                    | 0            | 0                  |
| 5  | 대좌 하대복련석                |             | 0                         | 0             | 0    |                 |                              |                     |                  |                   |                      |              | 0                  |
| 6  | 비신                      | 0           | 0                         | 0             | 0    |                 | 0                            |                     |                  |                   | 0                    |              | 0                  |
| 7  | 난간 기둥석                  |             | 0                         | 0             | 0    |                 | 0                            |                     |                  |                   | 0                    | 0            | 0                  |
| 8  | 초석 1                    |             | 0                         | 0             | 0    |                 | 0                            |                     |                  |                   | 0                    | 0            | 0                  |
| 9  | 대좌중대석 1                 |             |                           |               |      |                 |                              |                     |                  |                   |                      |              | 0                  |
| 10 | 대좌중대석 2                 |             |                           |               |      |                 |                              |                     |                  |                   |                      |              | 0                  |
| 11 | 초석 2                    |             |                           |               |      |                 |                              |                     |                  |                   |                      |              | 0                  |
| 12 | 초석 3                    |             |                           |               |      |                 |                              |                     |                  |                   |                      |              | 0                  |
| 13 | 초석 4                    |             |                           |               |      |                 |                              |                     |                  |                   |                      |              | 0                  |
| 14 | 초석 5(6)                 |             |                           |               |      |                 |                              |                     |                  |                   |                      |              | 0                  |
| 15 | 초석 6(8)                 |             |                           |               |      |                 |                              |                     |                  |                   |                      |              | 0                  |
| 16 | 초석 7(9)                 |             |                           |               |      |                 |                              |                     |                  |                   |                      |              | 0                  |
| 17 | 초석 8(11)                |             |                           |               |      |                 |                              |                     |                  |                   |                      |              | 0                  |
| 18 | 초석 9(12)                |             |                           |               |      |                 |                              |                     |                  |                   |                      |              | 0                  |
| 19 | 장대석 (2)                 |             |                           |               |      |                 |                              |                     |                  |                   |                      |              | 0                  |
| 20 | 용도미상                    |             |                           |               |      |                 |                              |                     |                  |                   |                      |              | 0                  |

〈참고〉

1. 『기내사원지』에 언급된 사각주초석 2점 중 1기와 논둑에서 확인된 원형주초석은 이번 긴급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음.

2. 1998년 조사에서는 수풀이 우거져 기준에 확인된 유물 중 논둑의 원형주초석만 확인.

3. 『경기문화유적지도Ⅲ』은 1998년 조사내용과 동일.

위의 <표 1>, <표 2>와 같이 어둔동사지 조사 연혁을 비교분석한 결과 주요 유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석조여래입상’(연번1)은 최초 조사기록인 『문화유적총람』(1977)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 기록인 「楊州於屯里 破佛三軀」(1986)에서부터 확인된다. 이로 미루어 1977년에서 1986년 사이에 ‘석조여래입상’(연번1)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좌 하대복련석’(연번5, 팔각연화대좌)은 「楊州於屯里 破佛三軀」(1986)에 처음 보고된 후 『기내사원지』(1988), 『양주군지』(1992)까지는 기록되었으나 그 이후 7건의 조사기록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표 아래에 묻혀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일대에 여러 차례 형질변경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사진 18·19).



사진 18. 대좌 하대복련석 노출상태  
：「楊州 於屯里 破佛三軀」(1986)



사진 19. 대좌 하대복련석 노출상태  
：2014년 긴급발굴조사

3) ‘대좌 상대양련석’(연번4, 육각연화대좌)은 『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Ⅱ』(1995)에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최초 조사인 1977년부터 1995년까지 약 18년 동안 보고되지 않은 유물로, 그 기간동안 구지표가 삭평되면서 구지표 아래에 있던 것이 새로 드러난 것이거나, 인근 주민들이 땅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을 현재의 위치에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20).



사진 20. 대좌 상대양련석 출토상태 ：2014년 긴급발굴조사

4) 구덩이 내에 있던 석조유물들의 위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금씩 이동되거나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석조여래좌상'(연번3)의 경우 「楊州於屯里 破佛三軀」(1986) 김길웅의 논문에는 주변에 따로 떨어져서 다른 유물이 없었으나(사진 21), 2010년 조사에서는 '석조여래입상(연번2-3)'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것(사진 22)이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이 일대가 경작 등의 형질변경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유물들이 이동되거나 훼손, 유실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진 21. 유물노출상태  
: 좌상이 2-3번 유물과 떨어져 있음(1993)



사진 22. 유물노출상태 : 좌상이 2-3번 유물과 붙어 있음(2010년)

5) 어둔동 사지의 시간대별 전경을 보면 다음 사진과 같다.



사진 23. 1993년 조사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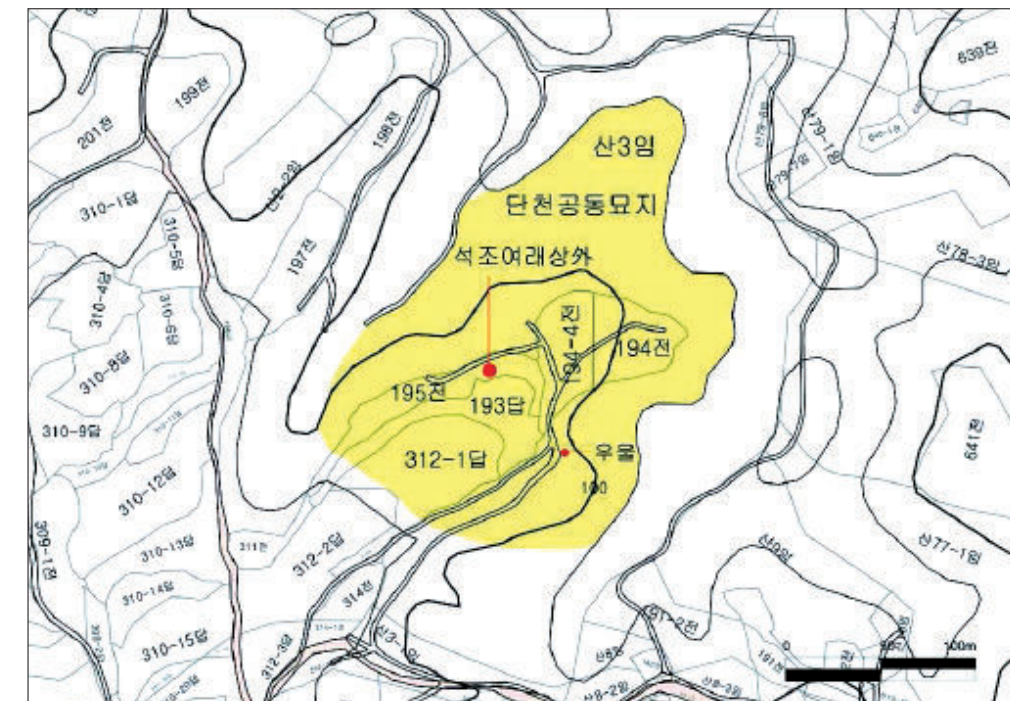
사진 24. 2006년 조사당시



사진 25. 2010년 조사당시



사진 26. 2014년 조사당시



도면 1. 어둔동사지 사역 범위(『한국의 사지』에서 발췌)

## Ⅳ. 조사내용

### 1. 시굴조사(도면 2, 사진 2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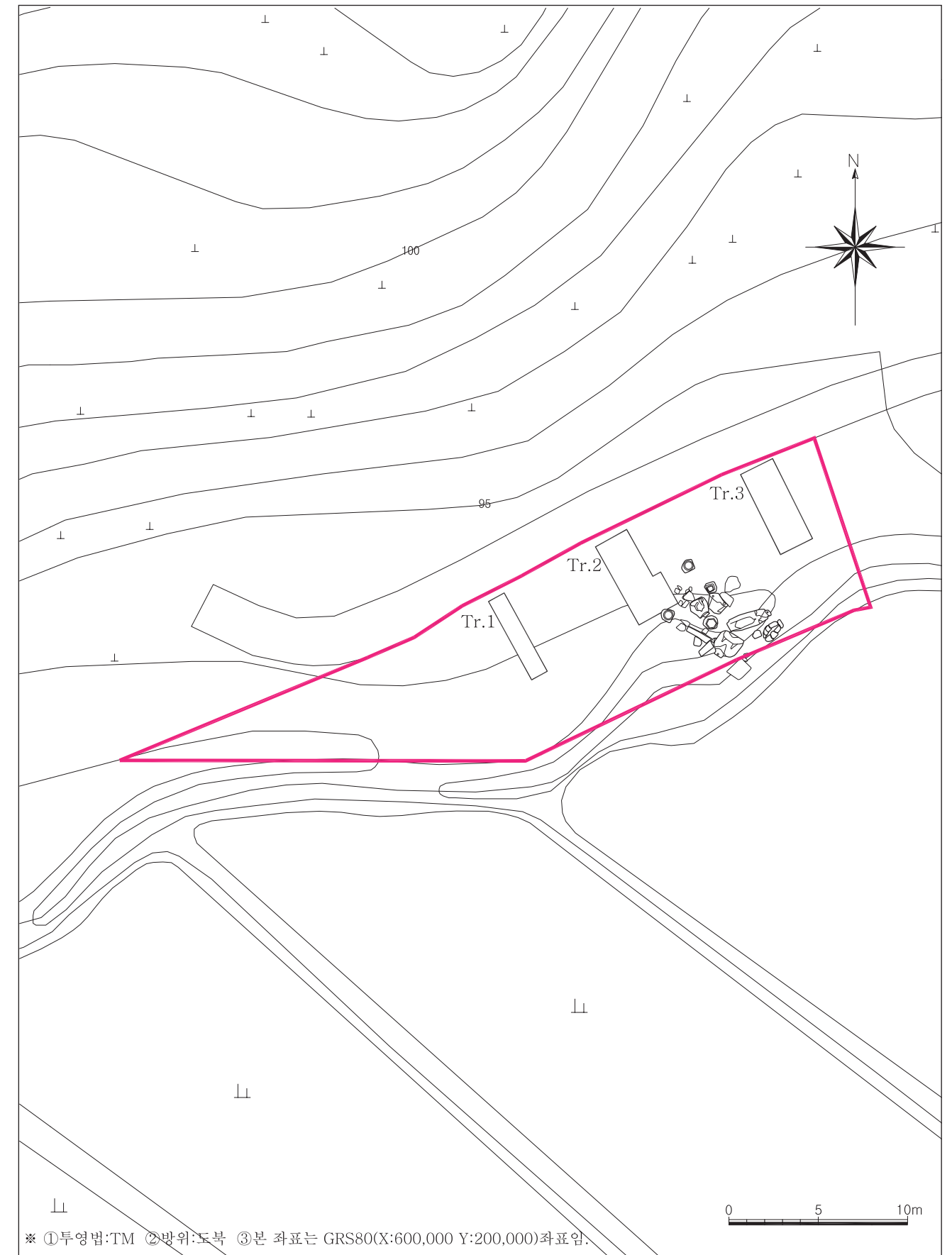
조사전 조사지역은 일반 대지로 잡풀이 우거져 있었으며 조사지역 동측경계에 석불 등의 석조유물들이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는 크게 2부분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시굴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면을 덮고 있는 잡풀과 잡목들을 제거하였으며 또한 노출된 석조유물들 주변도 함께 정리하여 조사전 현황파악을 실시하였다.

둘째, 석조유물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3개소에 트렌치를 설정한 다음 석조유물과 관련된 유구나 유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트렌치는 2m×5m를 기본으로 하여 6간격으로 총 3개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일부 깊이가 깊은 곳은 안전과 층위파악을 위하여 상황에 맞게 깊이와 폭을 조절하였다. 또한 트렌치 1기는 석조유물이 있는 곳과 연결되도록 하여 전체적인 층위양상에서 석조유물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사진 27. 트렌치 전경



도면 2. 조사지역 현황도(1:300)



사진 28. Tr 1



사진 30. Tr 3

조사지역의 전체 층위는 크게 5개로 구분할 수 있다(도면 3. 사진 29).



사진 29. Tr 2. 전경 및 토층 세부

- I 층 : 표토 및 황갈색 사질토층
- II 층 : 황갈색 사질점토층(사질 강함)
- III 층 : 암갈색 사질점토(기와편 소량 혼입)
- IV 층 : 갈색 및 흑갈색 사질점토(기와편 다량 혼입)
- V 층 : 풍화암반층

I 층은 최근의 표토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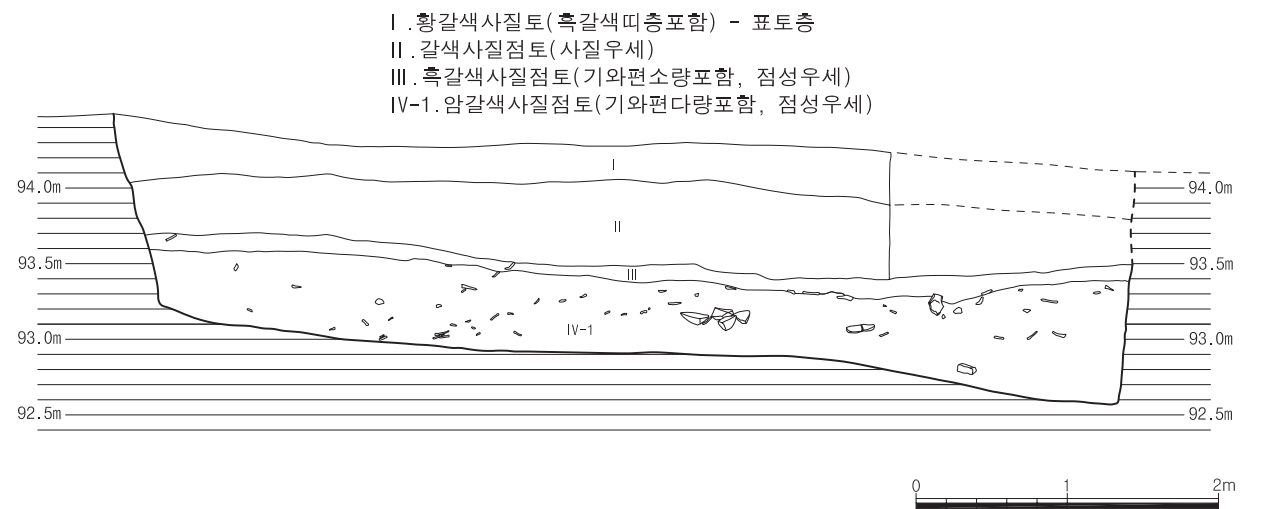
II 층은 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장시간 사면부 상부의 토사가 하단부로 퇴적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층위의 두께가 두꺼워 장시간보다는 짧은 시간에 급격히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III 층은 암갈색의 사질점토층으로 IV 층이 퇴적된 이후의 구지표층으로 추정된다.

IV 층은 갈색 및 흑갈색 계열의 점토층으로 'Tr 2'에서 'Tr 1' 쪽으로, 즉 사면부 하단 쪽으로 내려갈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다. 통일신라-고려시대 기와편이 확인된다.

V 층은 풍화암반층이다.

|    | Tr 1                                                     | Tr 2                                                                         | Tr 3                                    |
|----|----------------------------------------------------------|------------------------------------------------------------------------------|-----------------------------------------|
| 층위 | 표토 및 황갈색 사질토층/황갈색 점토층/암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점토층/황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 | 표토 및 황갈색 사질토층/황갈색 사질점토층(사질 강함)/암갈색 사질점토층(기와편 소량 혼입)/갈색 사질점토(기와편 다량 혼입)/풍화암반층 | 표토 및 황갈색 사질토층/황갈색 사질점토층(사질 강함)/암갈색 사질점토 |
| 비고 | 사진                                                       | 사진                                                                           | 사진                                      |



도면 3. Tr 2. 토층도(1:50)

이상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지역은 지형상 구릉의 사면 말단부 및 사면부와 곡간부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되며 근래까지 경작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들어 휴경상태이다.

둘째, 조사지역의 전체적인 층위는 총 5개 층으로 이 중 III 층과 IV 층에서 유물이 확인된다. III 층은 암갈색의 사질점토층으로 IV 층이 퇴적된 이후의 구지표층으로 추정되며, IV 층은 사질성이 강하며 경사면 아래로 갈수록 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 층 아래는 바로 풍화암반층인데, IV 층과 V 층 풍화암반층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층은 유구의 기반층이라기보다는 현 조사지역의 상부 구릉 사면부에서 하단부로 퇴적되어 쓸려 내려오면서 형성된 층으로 추정된다.

셋째, Tr3에서는 불규칙하게 퇴적되어 있는 돌들이 확인되었는데, 노출된 양상으로 미루어 인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연퇴적과정에서 상부에 있던 것이 쓸려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트렌치 조사결과, 석조유물 주변지역에서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 2. 석조유물군 수습조사(도면 4, 사진)

1977년 조사『문화유적총람』부터 가장 최근인 2010년 조사『한국의 사지』에 이르기까지 한 번이라도 언급된 유물은 모두 10건 8점이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는 기존에 지표상 노출되어 확인된 석조유물을 정리하고 묻혀 있는 부분을 노출시켜 형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보고된 10건 8점 중 9건 7점만 지표상에서 확인하였다(연번5 유물은 지표하에서 확인됨). 그리고 7점 외에 7점(초석 4점, 대좌 중대석 1점, 장대석 1점, 용도미상 1점)의 석조유물을 새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어둔동사지 긴급발굴조사에서 지표상 확인된 석조유물은 모두 16건 14점이다(도면 4, 사진 31). 이를 정리하면 앞의 <표 2>와 같다.<sup>18)</sup>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조사에서 기록된 수량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확인된 유물에 대하여 연번을 부여하였다. 한 점의 유물이나 석불입상의 경우 두부, 상반신, 하반신을 따로 별개로 제작된 것은 각각 번호로 부여하였다. 기존에 확인된 유물을 1~8로, 새로 확인된 유물은 연결하여 연번을 부여하였다(연번1~8 : 기확인, 연번9~20 : 새로 확인된 유물)(도면 4, 사진 31).

이들 유물은 층위상 1층과 2층을 굴광하고 조성된 구덩이 안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구덩이 안의 ‘대좌 상대석’(연번4) 아래쪽에서 근대 분묘의 묘비석이 묻혀 있고(사진 32), ‘초석 3’(연번12) 바로 옆에서는 근래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사진 33). 따라서 이들 유물은 원래의 제위치가 아니라 후대에 어떠한 이유에 의해 현재의 위치로 이동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조유물군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신’(6번)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康熙十七’, ‘立石’ 등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이 유물은 기존조사인 『기내사원지』(1988년)에서는 “원두비신이 거꾸로 묻혀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김길웅의 논문(1986년)에서는 ‘康熙十七 年戊午立石’으로 시작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大施 樂善者’, ‘重發’, ‘化主’ 등의 명문이 확인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비는 1678년 (숙종4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이 즈음에 사찰의 중창불사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sup>19)</sup>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비신의 음각문자가 김길웅의 논문(1986년)에 기록된 문자와 동일하게 해독되는 것이 있으므로, 비신은 2010년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내사원지』(1988년)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원두비신과 같은 유물로 볼 수 있다.

지표상에서 드러난 유물을 수습하고 나서 그 하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석조유물 7건 6점이 추가로 확인되어 수습하였다(연번5 유물 포함). 특히 ‘석조여래입상’(2)의 경우 그 하부에서 대좌(연번2-4)가 추가로 확인되어(상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 모습을 알 수 있다.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석조여래입상 2가 4구(불두+상반신+하반신+대좌)로 원래는 따로 제작하여 합채한 하나의 입상불이었던 것이, 파손으로 인해 분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18) 기존에 확인된 유물의 경우 기존 보고 내용을 따랐다.

문화재청, 2010, 『한국의 사지-사지(폐사지) 현황조사보고서 上-』.

19) 경기도, 1988, 『기내사원지』.

김길웅, 1986, 『楊州 於屯里破佛三軀』, 『고고미술 169·170』.

문화재청, 2010, 『한국의 사지-사지(폐사지) 현황조사보고서-』에서 재인용.

당간지주는 「楊州於屯里 破佛三軀」(1986)에서 처음으로 당간지주로 보고하였으며, 이후 조사에서도 여러차례 당간지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하부를 확인하고 이전 후 조사한 결과, 간공(竿空)이 확인되지 않고, 인위적인 가공흔이 확인되지 않아 최종 자연석으로 보았다.

한편, 지표상에 드러난 석조유물군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판석, 장대석 등 석재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들 석재는 자연석이거나 인공의 흔적이 미미하여 보고서 수록을 위한 유물선별회의 결과 학술적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몰하기로 하였다.

석조유물군 조사결과, 16건 14점이 지표상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를 노출시키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7건 6점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어둔동사지 긴급조사에서 확인된 석조유물은 모두 23건 20점이다.



그림 31. 석조유물군 현황(1~8 : 기확인유물 / 9~20 : 신규확인 유물)



사진 32. 대좌 상대석 아래에서 노출된 근대 묘비석



사진 33. 12번 유물(초석 3) 옆 쓰레기 매립상태



도면 4. 석조유물군 노출 현황도(1~8 : 기확인 유물 / 9~20 신규확인 유물)(1:60)

### 3. 수습유물

#### ① 석조여래입상(石造如來立像)(도면 5, 사진 34)

직육면체 돌을 그대로 이용하여 불신을 새긴 석주형 불상으로, 어깨가 좁다. 머리는 파손되었고, 목에는 머리를 축으로 연결한 둥근 홈이 패여 있는데, 머리는 따로 조성하여 축으로 연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착의는 통견착의법으로 목깃은 V자형으로 처리하였다. 불신에 새겨진 주름은 일정한 간격으로 층단을 이루며 정강이까지 흘러 내렸고, 측면으로도 일정한 간격으로 빗금을 긋듯이 주름을 새겨 넣었다. 특히 옷주름의 가운데 부분을 찢꼭지 모양으로 늘어지게 처리하여 장식성을 강조한 점이 특색이 있다.

수인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들어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 쥔 형태인데, 비로자나불상의 지권인과 유사하다.

현고: 262.5cm, 너비: 몸체 69cm, 어깨 62.5cm, 두께: 42cm, 목상부 구멍지름 19.5cm, 깊이 16cm

#### ② 공수인(拱手印) 석조여래입상(石造如來立像)(도면 6~8, 사진 35~38)

화강암제이며 불두, 상체, 하체, 대좌 4부분으로 나누어 제작한 다음 조립하여 1기의 석불입상으로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두, 상체부, 하체가 각각 분리되어 발견되었고 긴급발굴조사에서 발이 조각된 대좌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두부는 우측 코의 측면을 중심선으로 하여 髮際線, 광대뼈, 그리고 우측 뺨 부분 등 모두 일곱 조각으로 파손되었다. 이는 불상이 넘어지면서 큰 충격을 받아 여러 조각으로 파손된 것으로 생각된다. 삼도가 새겨진 목의 하부에는 불신과 축으로 연결했던 원형의 구멍이 남아 있다.

불상의 머리는 소발이며, 육계는 남아 있지 않으나, 머리와 육계의 경계점의 굴곡선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 원래는 높고 큼직한 북발형의 육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얼굴형은 길쭉한 타원형이며, 이마의 중앙에는 백호를 박았던 백호공의 흔적이 남아 있다. 코는 크고 뚱뚱하며, 입술은 부드럽고 사실적으로 묘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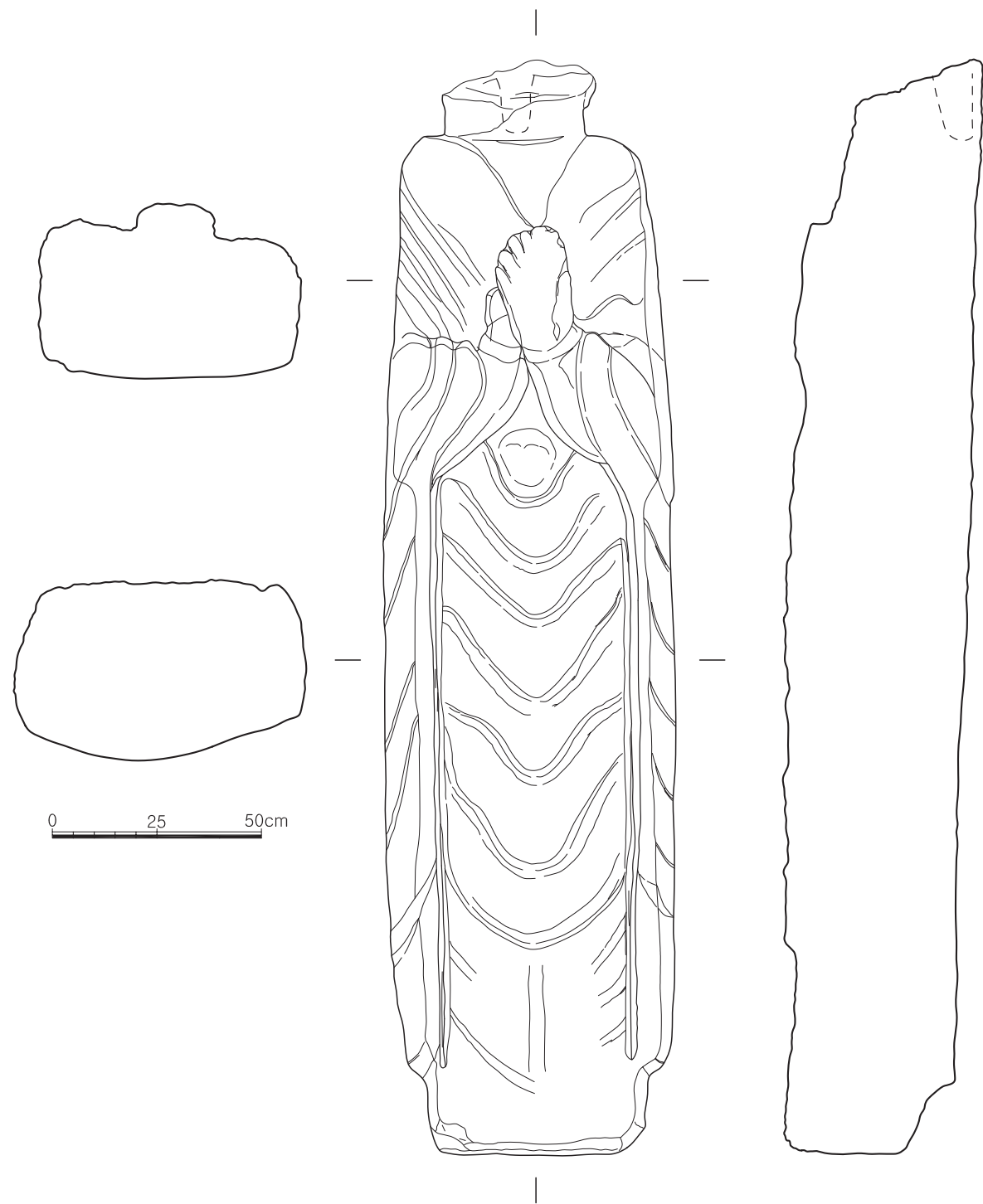
길이: 99cm, 너비: 75cm, 두께: 42cm

상체부는 길고 굵은 목에는 삼도를 뚜렷한 음각선으로 새겼다. 통견의 대의를 걸쳤는데, 목깃은 V자형으로 처리하고 가슴 앞에서 y자 모양으로 교차하여 왼쪽 어깨 뒤로 넘겼다. 왼쪽 어깨로 넘긴 대의자락은 삼각형의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펼쳐져 있다. 더불어 가슴에서 양 팔뚝으로 날이 선 주름이 마치 불꽃이 피어나듯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두 손은 소매에 싸여 拱手한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손을 덮은 소매 자락은 율동성이 강한 수직 물결문으로 처리하였다. 상부의 중앙에는 두부와 연결하는 구멍이 1개, 하부에는 양단에는 하체부와 연결하는 구멍이 각각 1개씩 있다.

높이: 138cm, 너비: 몸체 136.5cm, 어깨 132.5cm, 상부연결구멍: 지름 12.5cm 깊이 16cm, 하부연결구멍: 지름 12cm, 깊이 15cm.

하체부는 방형으로 치석된 판석에 주름을 표현하였다. 주름은 블록하게凹凸을 이루고 있는데, V형으로 이루어진 목깃 아래로는 U자형의 주름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무릎까지 물결치듯 흘러내렸고, 주름 중앙 부분을 오목하고 하면서 아래로 늘어뜨려 변화를 주었다. 상부의 양단에 상체부와 연결하는 구멍이 2개 있고 하부는 대좌에 끼울 수 있게 직사각형으로 다듬었다.

높이: 152cm, 너비: 몸체 112cm, 두께 34.5cm, 대좌결합부: 길이 76.5cm · 너비 12.5cm · 두께 28.5cm, 상부



도면 5. 석조여래입상 입면도, 단면도(1:15)

구멍: 지름 10.5cm · 깊이 16cm

대좌는 평면 타원형으로 3단으로 단이 진다. 상부에 양발을 조각하고 하체부를 끼워서 연결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직사각형으로 홈을 만들었다. 마모가 심해 일부 박리되었다.

길이: 197cm, 너비: 154cm, 높이 83cm

복원전체높이: 459.5m

### ③ 석조여래좌상(도면 9, 사진 39-①~⑥)

석조여래좌상은 꽃잎형 광배와 한 돌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배의 상단부는 결손되었고, 불상의 밑면은 편평하게 다듬었다. 광배 내부에는 둥근 두광과 신체의 윤곽을 따라 두 줄로 새긴 身光이 있고, 광배의 테두리에는 불꽃무늬를 투박하게 새겼다. 불상은 머리가 결실되었고, 착의는 양어깨를 모두 덮어 내린 통견착의이다. U자형으로 둥근 목깃을 만들고 어깨와 복부 아래로 주름을 일정한 간격으로 새겨 넣었지만, 평판적이어서 팽팽한 긴장감은 보이지 않는다. 결가부좌한 발은 대의자락으로 모두 덮었고, 낮고 넓은 무릎 아래로는 부채살을 펼치듯 도식적인 주름을 성글게 새겨 넣었다. 수인은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려 축지인을 결하였고, 왼손은 꽃줄기를 움켜잡았다. 두부가 결실되어 정확한 도상적 특징을 파악할 수 없으나, 꽃을 잡고 여래의 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미륵불상 또는 미륵보살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불상은 하단의 폭이 69cm로 다음에 기술할 연화대좌 상대양련석과 조합될 수 있다.

광배: 높이 111cm, 너비 97cm, 불신: 높이 69cm, 최대너비 73cm, 어깨너비 44cm

### ④ 연화대좌 상대양련석(도면 10, 사진 39-⑦~⑩)

평면 타원형을 띠고 있으며, 단판복엽으로 이루어진 연판을 엇갈리게 해서 이중으로 장엄하였다. 하단에는 육각의 받침석을 이단으로 두었고, 육각의 받침석은 타원형의 연화대좌의 형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직육각형으로 제작하였다. 육각형의 받침석을 따라 12판의 연잎을 중첩해서 돌려 모두 24엽의 연꽃이 대좌를 화려하게 감싸고 있는 형태이다. 연잎은 대체로 단순, 담백한 형태미를 보이고 있으나 그 끝은 날카롭게 처리하여 생동감을 주었다.

상대 양련석의 최대 폭이 81cm이고, 여래좌상의 무릎 폭이 73cm로 알맞게 부합하기 때문에, 원래는 석조여래좌상의 대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 22cm, 길이: 81cm, 괴임 길이: 상단 48cm, 하단 5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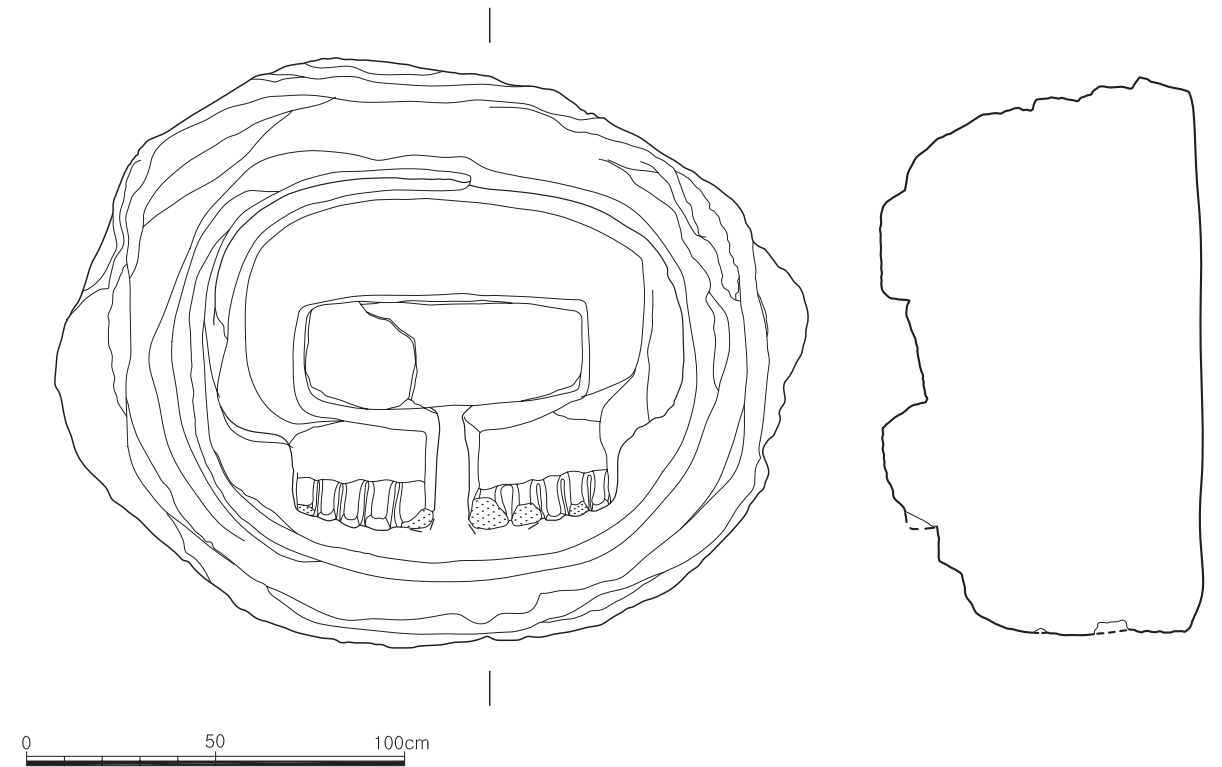
### ⑤ 연화대좌 하대복련석(도면 11, 사진 40-①~③)

호형과 각형으로 이루어진 2단 직육각형의 받침석을 갖추고 있으며, 覆蓮으로 이루어진 연꽃은 파손되어 2면에만 남아 있다. 연꽃은 복판복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잎은 세장하게 뻗었다.

길이 73cm, 너비 56.4cm, 괴임 길이 : 상단 46cm, 하단 53cm, 높이 21cm



도면 7.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두부, 상체부, 하체부 입면도, 단면도(1:20)



도면 8.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대좌 평면도, 단면도(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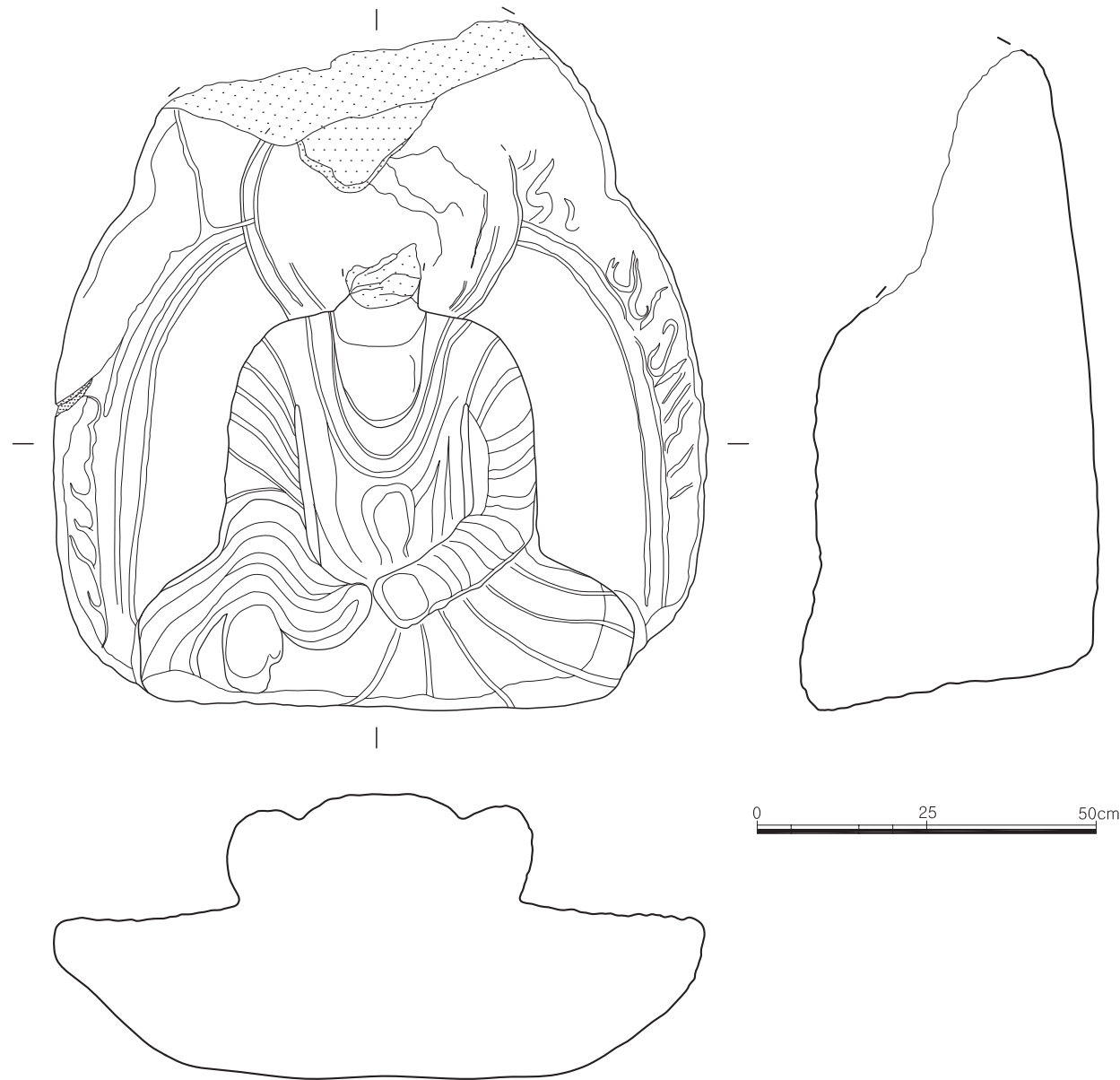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大               | 康 |
|   |   |                 |   |   |  | 主               | 熙 |
|   |   |                 |   |   |  |                 | 十 |
| 化 |   |                 |   |   |  |                 | 七 |
| 主 | 崔 |                 | ○ | ○ |  | 樂               | 戊 |
| ○ | 進 | ○               | ○ | ○ |  | 善               | 午 |
| ○ | 英 | 重               |   |   |  | 者 <sup>20</sup> | 年 |
| ○ |   | 狀 <sup>20</sup> |   | 張 |  | ○               | 十 |
| 一 | 五 |                 |   | ○ |  | ○               | 一 |
| 金 | ○ |                 |   |   |  | 功               | 月 |
|   |   |                 | 金 | ○ |  |                 | 石 |
|   |   |                 | 英 |   |  |                 | 得 |
|   |   |                 |   |   |  |                 |   |
|   |   |                 |   |   |  |                 | 立 |
|   |   |                 |   |   |  |                 | 石 |
|   |   |                 |   |   |  |                 |   |
|   |   |                 |   |   |  |                 |   |

⑥ 비신(도면 12, 사진 40-④·⑤)

마모가 심하여 육안으로 글자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3D스캔 및 탁본으로 35자가 확인되었다. 이 중 새로 확인된 글자중 ‘崔進英’, ‘金英’은 중창하는데 시주한 사람의 이름으로 추정되며, ‘石得’이란 글자도 확인되어 ‘숙종 4년(강희 17년, 1678년) 11월에 돌을 얻어(구해) 비석을 세운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大施’, ‘樂善者’, ‘化主’, ‘重狀’이라는 문자를 통해 볼 때, 숙종 4년에 중창이 있었고, 그 때에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과 시주 내역을 기록한 비문으로 추정된다.

길이: 99.5cm, 너비: 42cm, 두께 18cm.



도면 9. 석조여래좌상 입면도, 단면도(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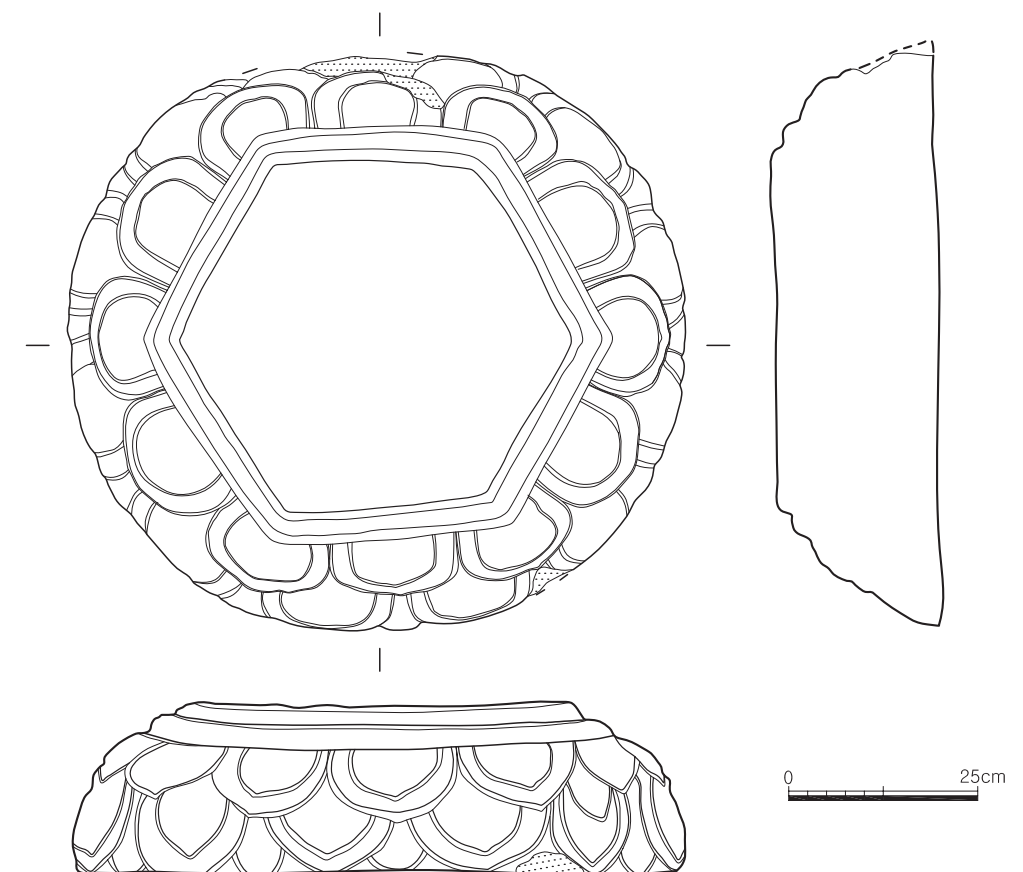
⑦ 난간 기둥석(도면 13, 사진 40-⑥~⑧)

기존 보고에서는 ‘석등화사석’으로 보고되었던 유물이다. 수습 후 확인 결과 ‘화창’(火窓)이 확인되지 않고 대칭된 방향으로 홈이 차져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난간이나 조형물의 경계를 위해 설치된 난간 기둥석으로 추정된다. 형태는 팔각형으로 추정되며 현재 2곳의 홈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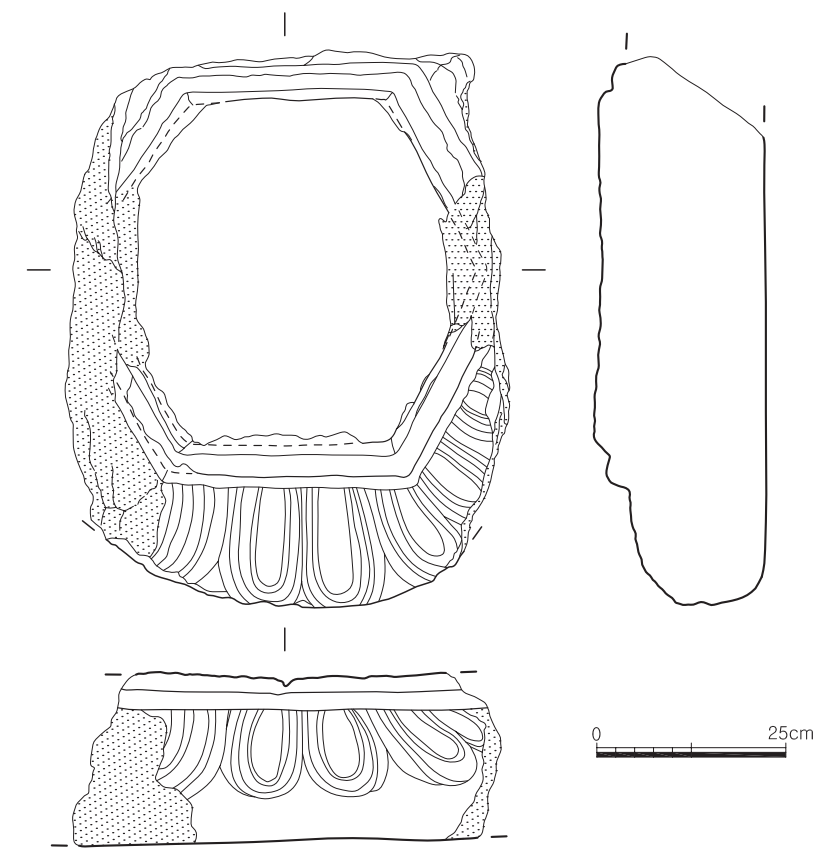
높이 : 50.4cm, 너비: 30cm, 홈길이: 28cm

20) 현재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김길웅선생님 1986 논문에는 ‘大施 樂善者’로 언급하여 당시에는 ‘者’字가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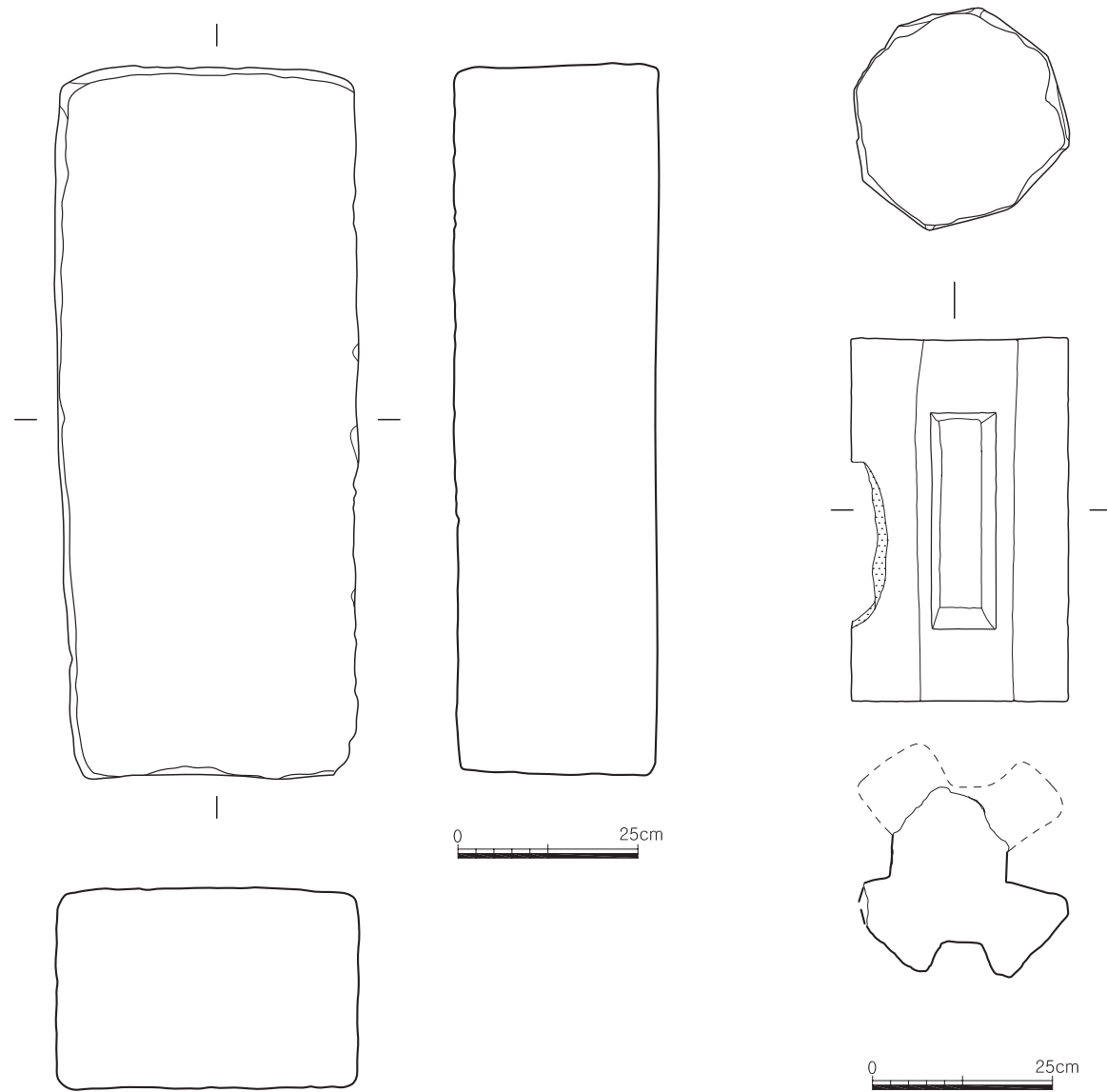
21) ‘發’字와 동자



도면 10. 연화대좌 상대양련석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1:10)



도면 11. 연화대좌 하대복련석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1:10)



도면 12. 비신 입면도, 단면도(1:10)

도면 13. 난간 기둥석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1:10)

⑧ 초석 1(도면 14, 사진 40-⑨・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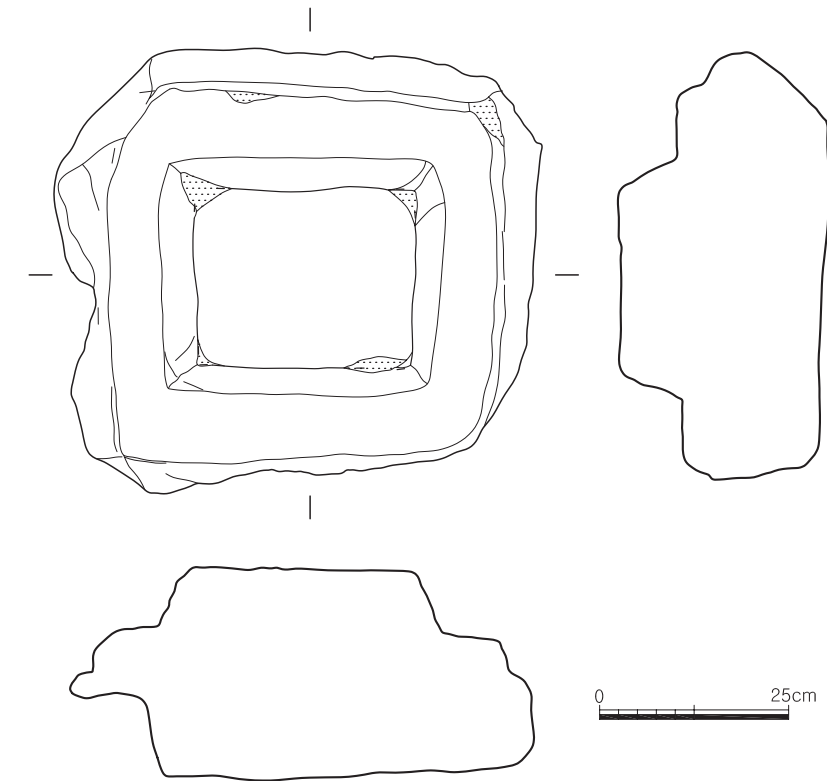
방형으로 초반은 방형, 주좌는 방형이나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 단면 사다리꼴을 띤다.

전체높이: 26.7cm, 초반: 길이 51.3cm, 주좌: 상부길이 29.1cm · 하부길이 37.2cm · 높이 8.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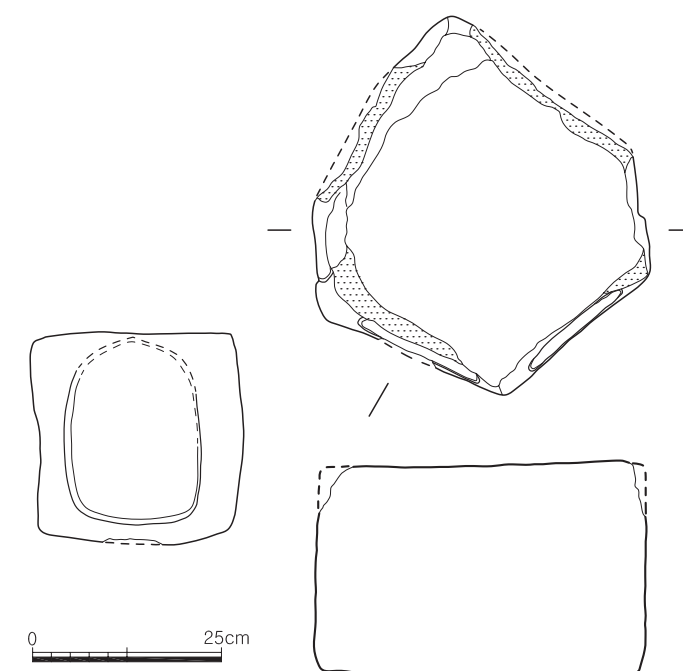
⑨ 대좌 중대석 1(도면 15, 사진 41-①~⑤)

육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부서지고 마멸이 심하여 다소 부정확한 형태를 띠고 있다. 중대면석 3곳에는 보주모양의 眼象을 모각이 확인된다.

길이: 44cm, 너비: 28.2cm, 안상길이: 24.7cm, 안상너비 18cm



도면 14. 초석 1 평면도, 단면도(1:10)



도면 15. 대좌중대석 1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1:10)

⑩ 대좌 중대석 2(도면 16, 사진 41-⑥~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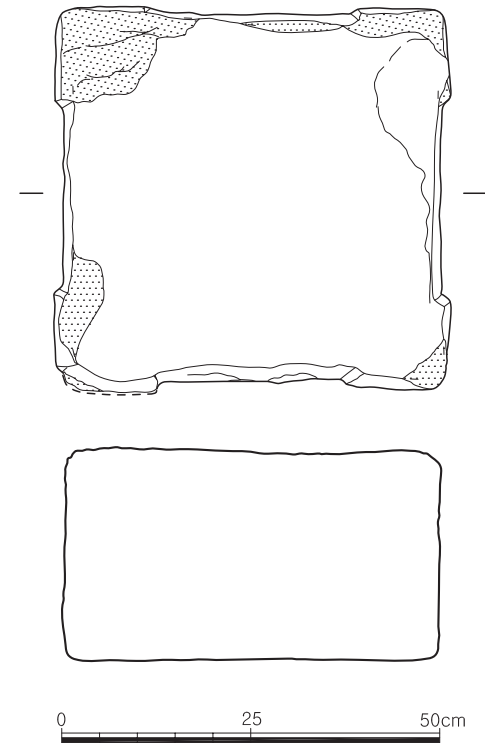
대좌의 중대석으로 네면이 'ㄇ'형으로 안상이 음각되어 있다.

길이 52.3cm, 너비 51cm, 높이 28cm, 안상 너비 2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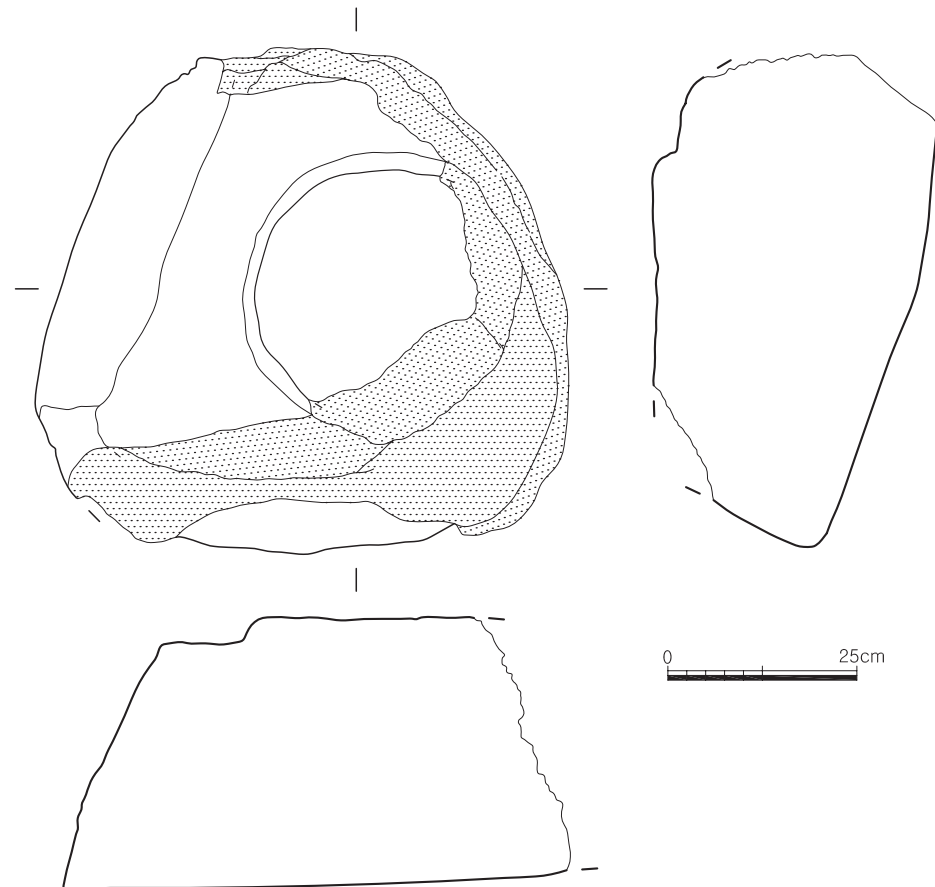
⑪ 초석 2(도면 17, 사진 41-⑫~⑭)

초반은 방형에 가까우며 주좌는 원형이다.

전체높이: 38cm, 초반: 길이 48cm, 주좌: 지름 31.5cm · 높이 4.5cm.



도면 16. 대좌중대석 2 평면도, 단면도(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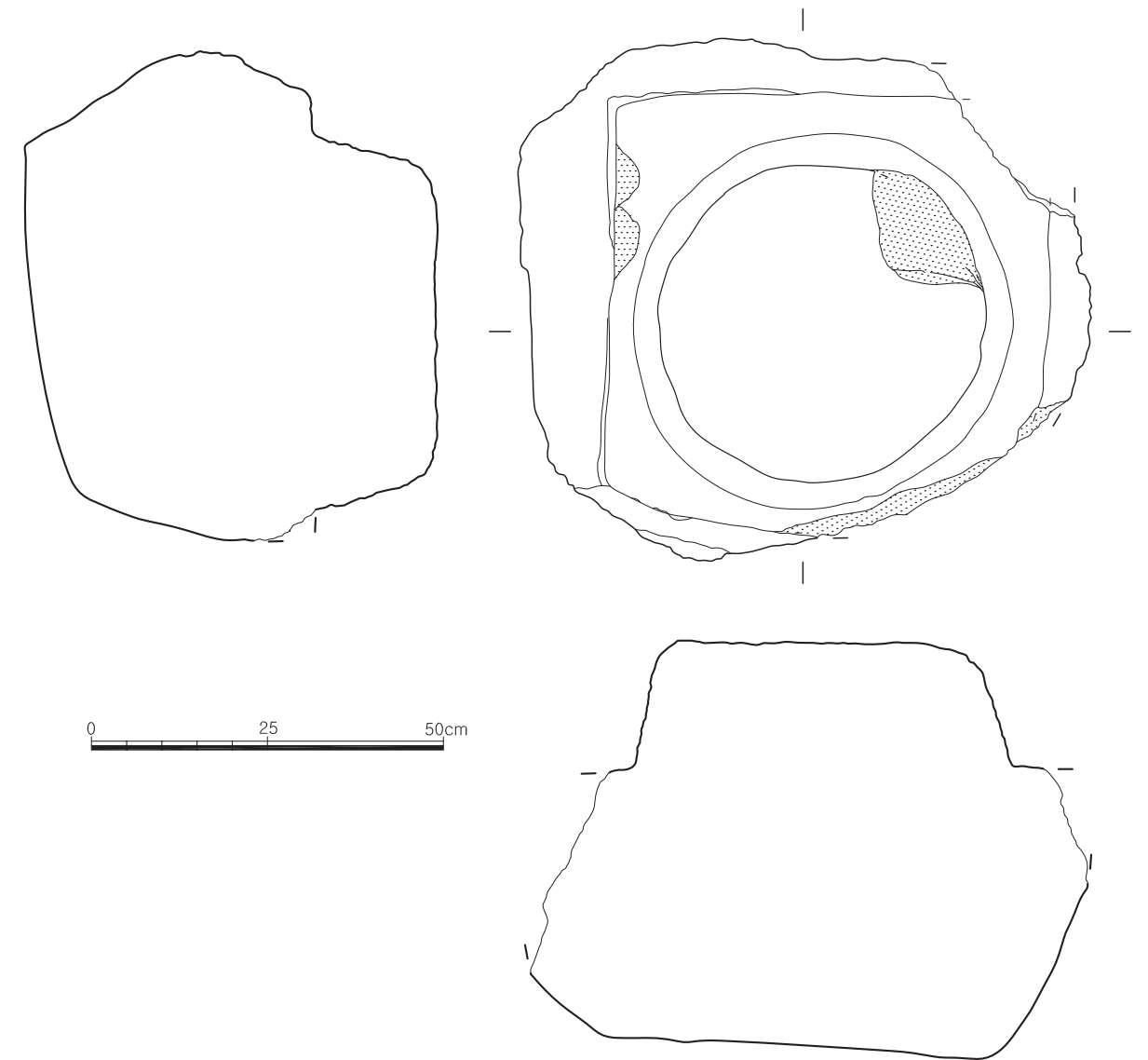


도면 17. 초석 2 평면도, 단면도(1:10)

⑫ 초석 3(도면 18, 사진 42-① · ②)

초반은 정방형이며 주좌는 원형으로 주좌는 상부로 갈수록 폭이 좁아져, 단면 사다리꼴이다.

전체높이: 59.5cm, 초반: 길이 63.5cm · 너비 57cm, 주좌: 상부지름 45cm · 하부지름 53.5cm · 높이 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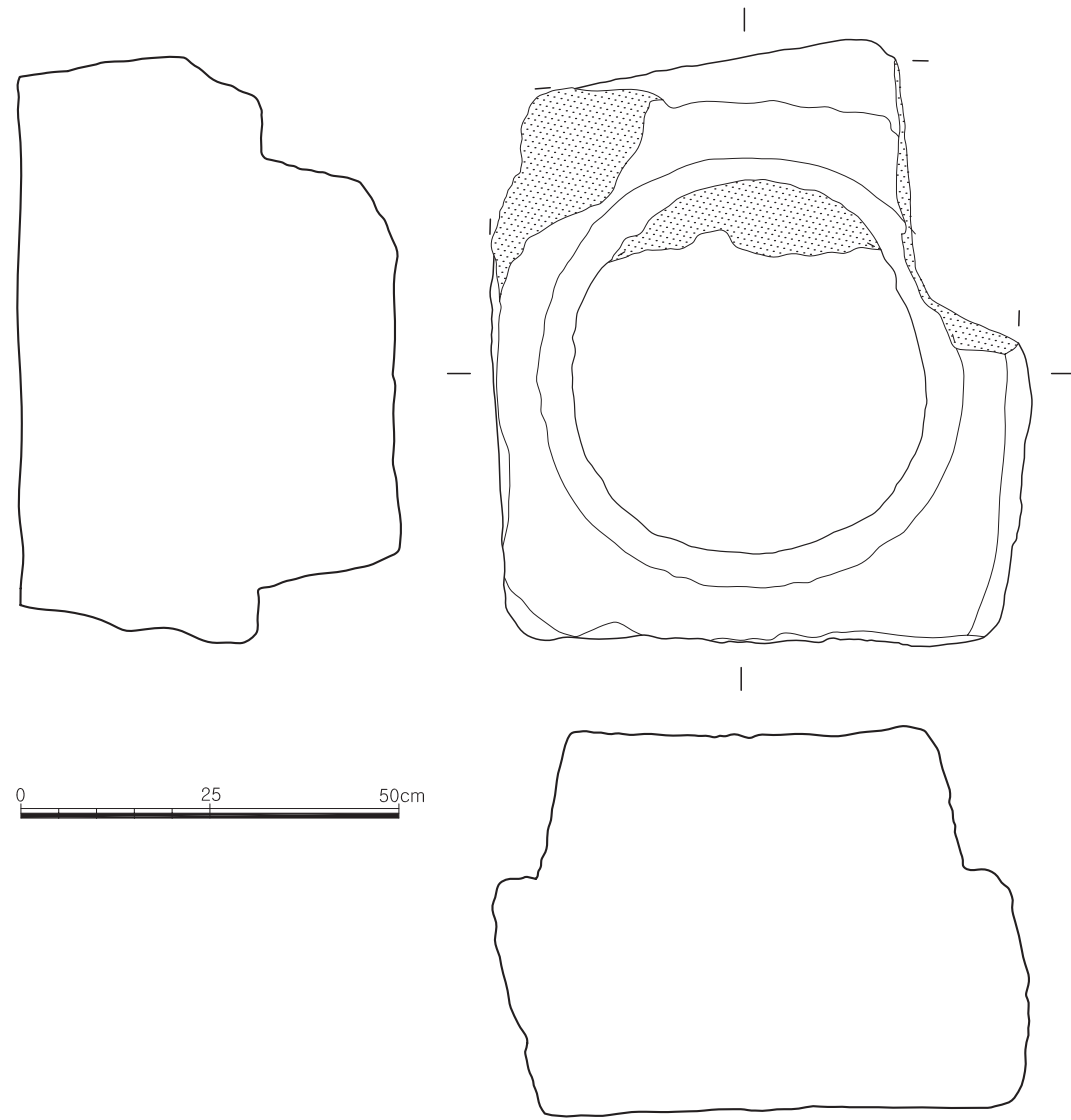


도면 18. 초석 3 평면도, 단면도(1:10)

⑬ 초석 4(도면 19, 사진 42-③ · ④)

초반은 방형이며 주좌는 원형으로 주좌는 상부로 갈수록 폭이 좁아져, 단면 사다리꼴이다.

전체높이: 46cm, 초반: 길이 64cm · 너비 61cm, 주좌: 상부지름 42.5cm, 하부지름 51cm · 높이 17cm.



도면 19. 초석 4 평면도, 단면도(1:10)

⑭ 초석 5(도면 20, 사진 42-⑤ ·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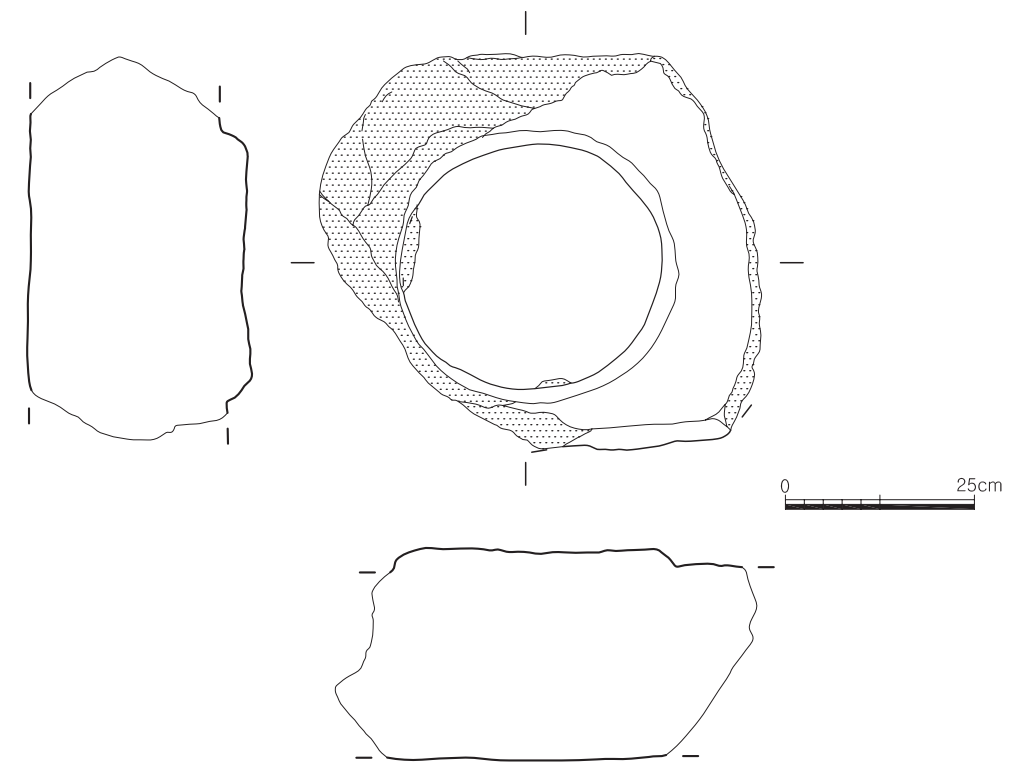
초반은 방형에 가까우며 주좌는 원형이다.

전체높이: 30cm, 초반: 길이 48cm, 주좌: 지름 33.5cm · 높이 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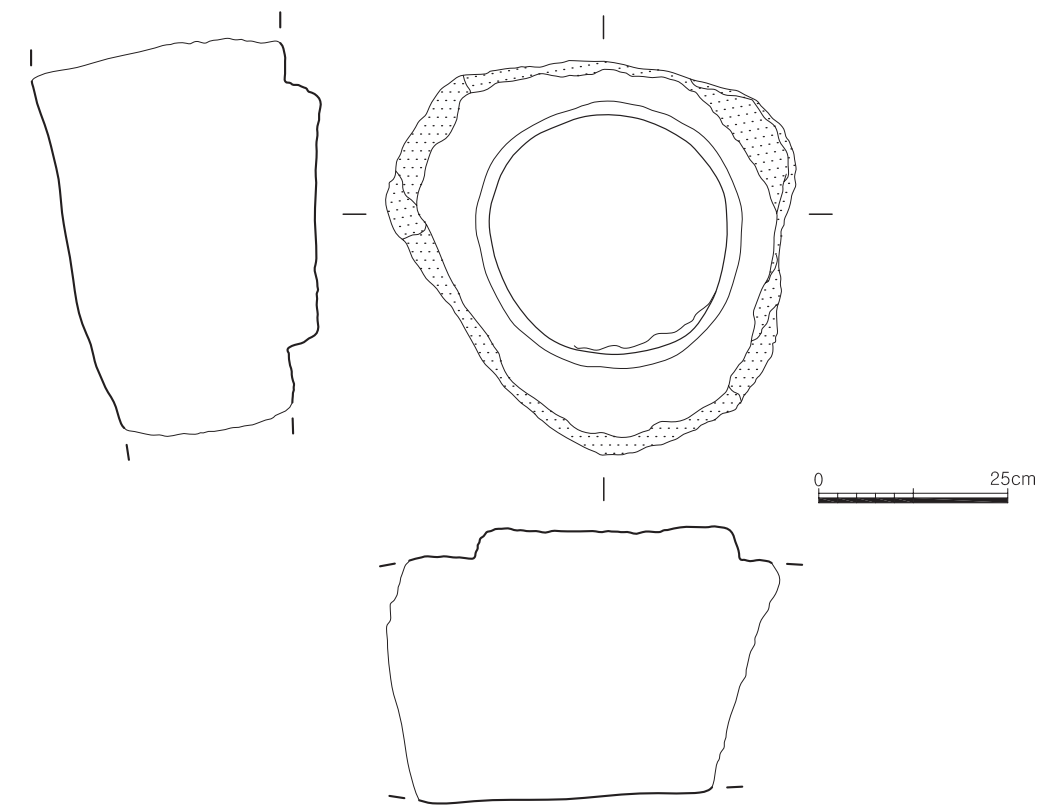
⑮ 초석 6(도면 21, 사진 42-⑦ · ⑧)

부정형 초반에 주좌는 원형이다.

전체높이: 38cm, 초반: 길이 48cm · 너비 48cm, 주좌: 상부지름 31.5cm · 하부지름 35cm · 높이 4cm



도면 20. 초석 5 평면도, 단면도(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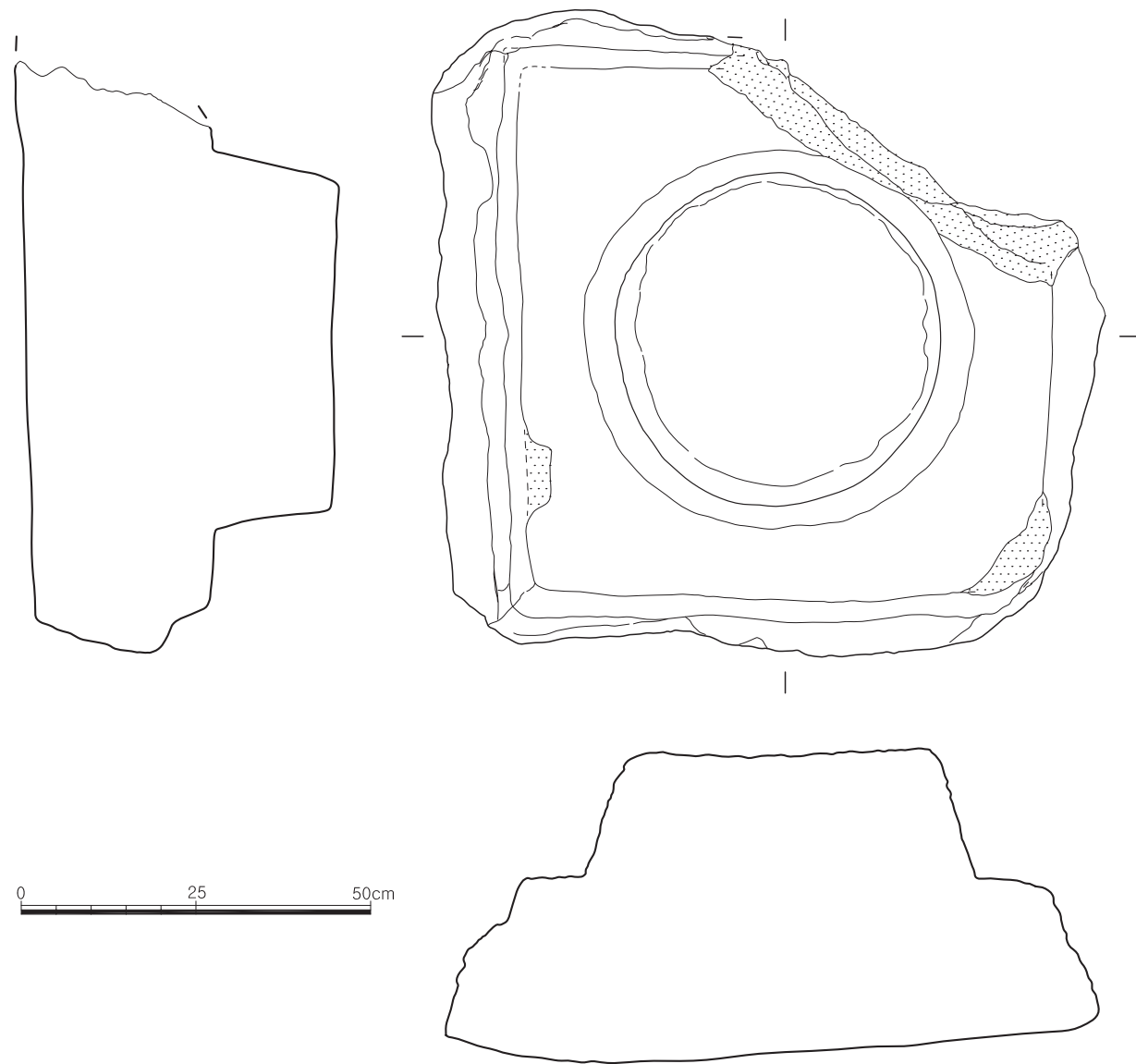


도면 21. 초석 6 평면도, 단면도(1:10)

⑩ 초석 7(도면 22, 사진 43-①·②)

방형 초반에 주좌는 원형이다.

전체높이: 45cm, 초반: 상부 길이/너비 75cm · 하부 길이 82cm · 너비 81cm · 높이 26.5cm, 주좌: 상부지름 46.5cm · 하부지름 56cm · 높이 18.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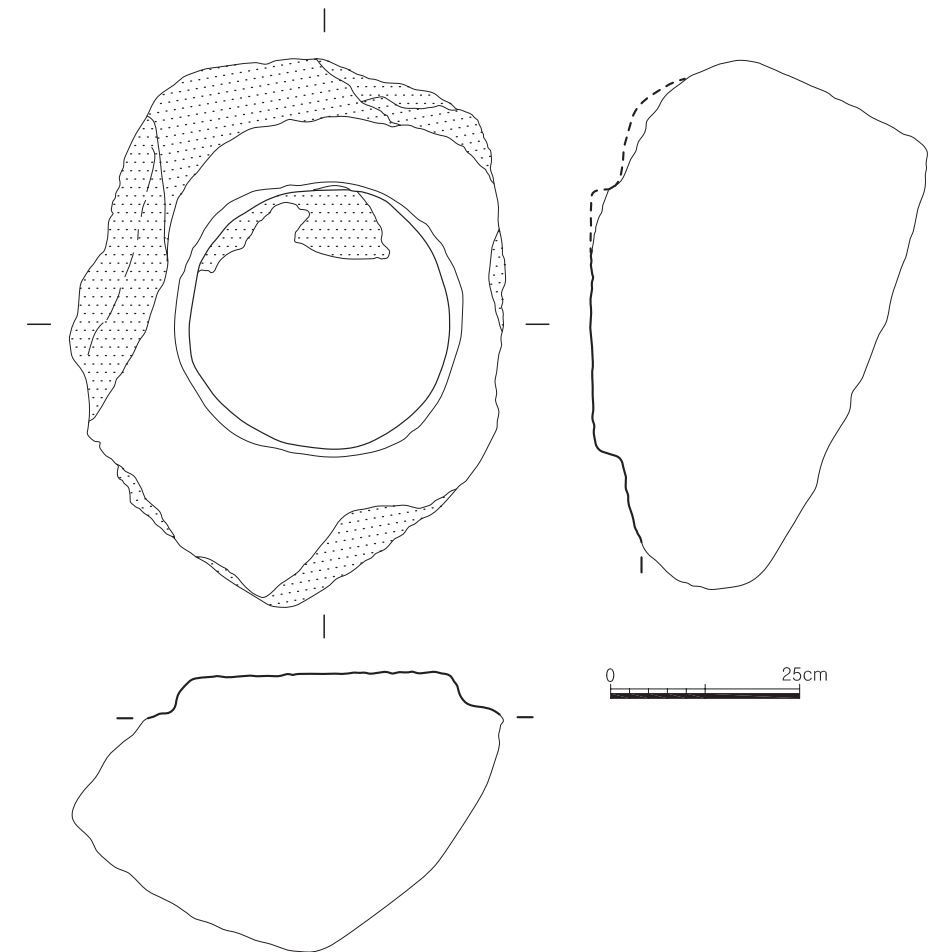


도면 22. 초석 7 평면도, 단면도(1:10)

⑪ 초석 8(도면 23, 사진 43-③·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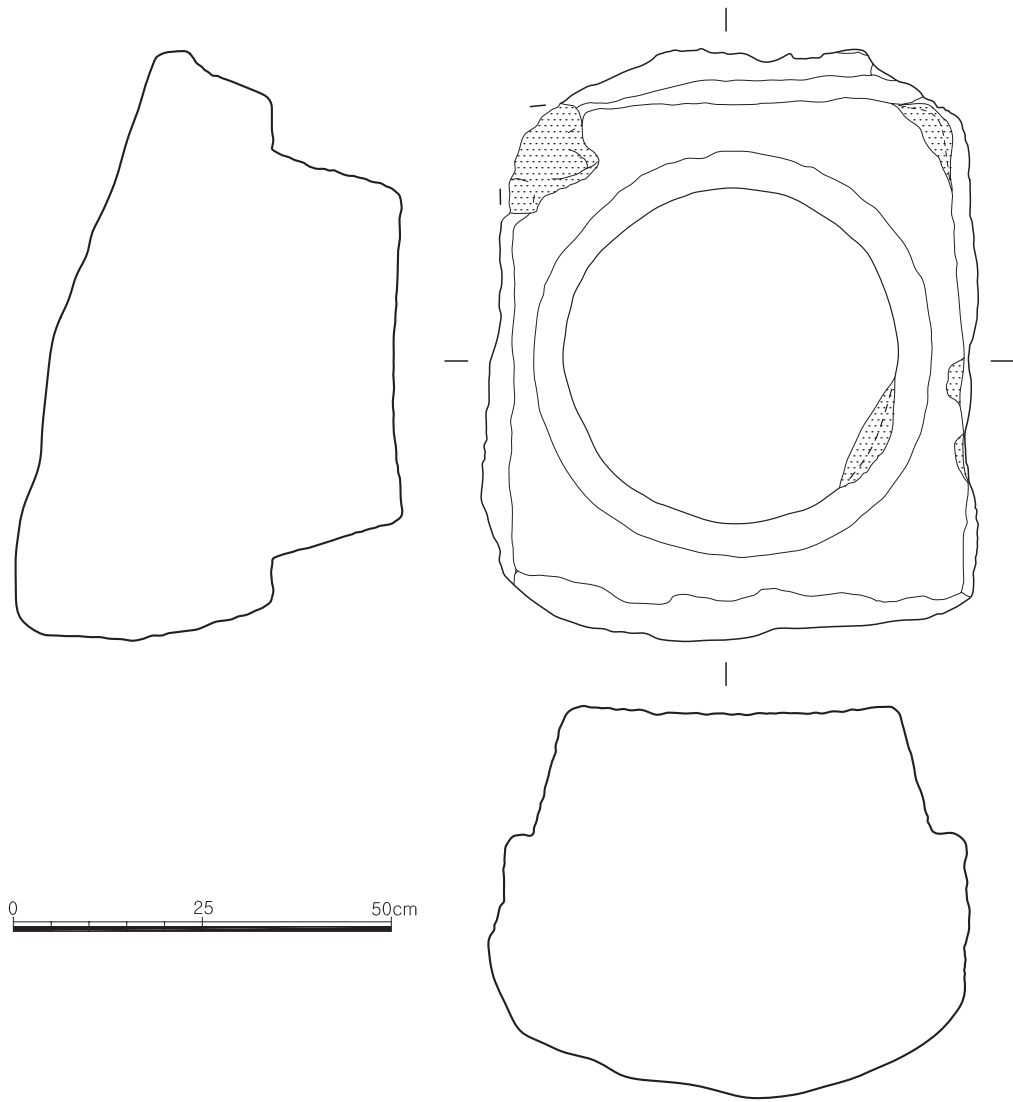
추정 방형 초반에 주좌는 원형이다.

전체높이: 44.5cm, 초반: 길이 60cm · 너비 47cm, 주좌: 상부지름 34cm · 하부지름 37.5cm, 높이 4cm



도면 23. 초석 8 평면도, 단면도(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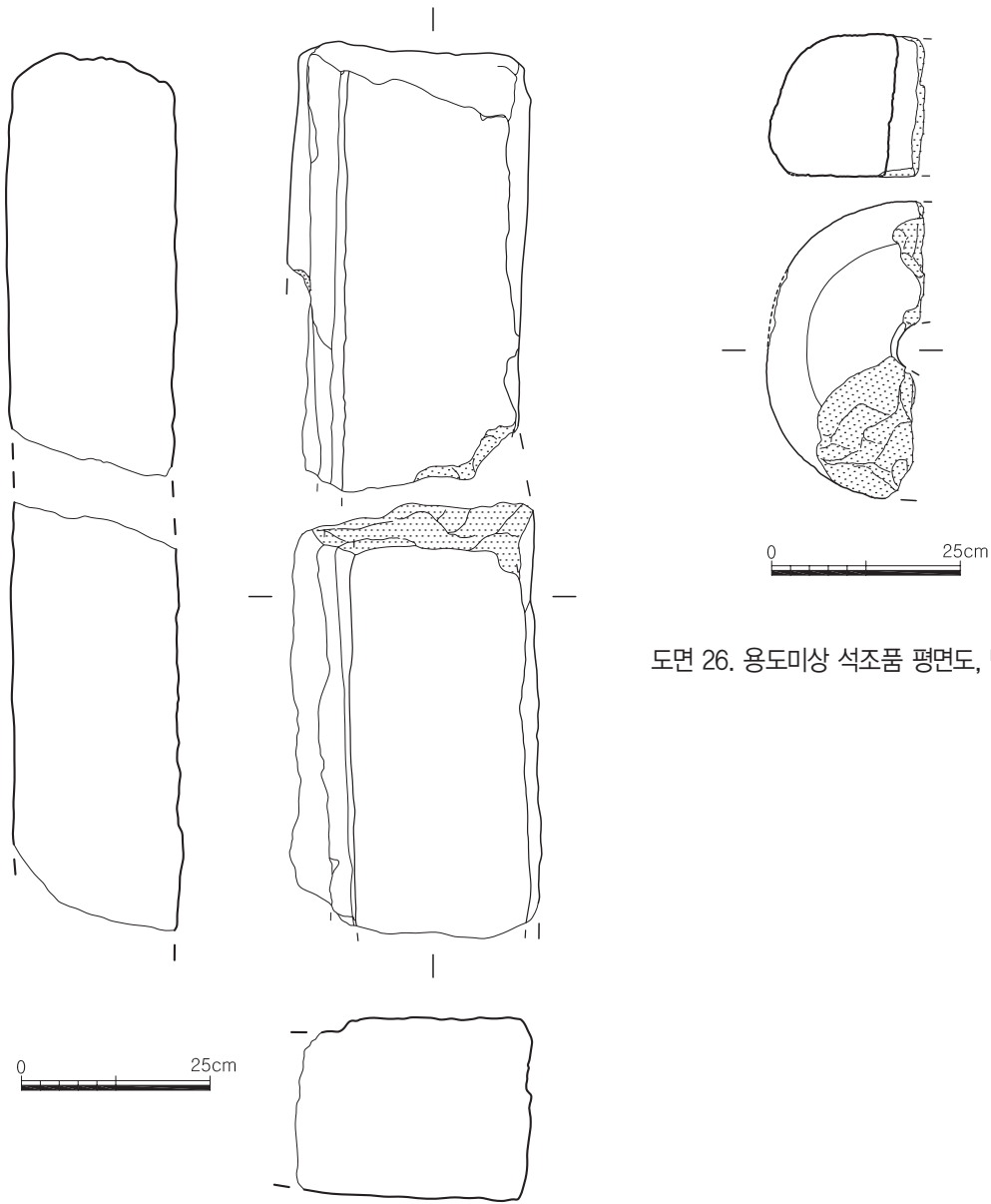
⑱ 초석 9(도면 24, 사진 43-⑤ · ⑥)  
 방형 초반, 원형 주좌.  
 전체높이: 51cm, 초반: 길이 65.5cm · 너비 59.5cm, 주좌: 상부지름 44cm, 하부지름 53cm · 높이 17cm



도면 24. 초석 9 평면도, 단면도(1:10)

⑲ 장대석(도면 25, 사진 43-⑦ · ⑧)  
 평면 세장방형으로 장축 측면은 단이 저 있으며, 현재 가운데 부분이 부러져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  
 길이: 147.5cm, 폭: 42cm, 두께: 23.5cm.

⑳ 용도미상 석조품(도면 26, 사진 43-⑨~⑪)  
 원형으로 추정되며 현재 절반정도만 잔존. 상하부를 관통하는 구멍이 있음.  
 지름: 39.5cm, 두께: 19cm, 구멍지름: 6cm,



도면 26. 용도미상 석조품 평면도, 단면도(1:10)

도면 25. 장대석 평면도, 단면도(1:10)

## V. 고찰

### 楊州 於屯里 寺址의 高麗 佛像

손영문(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 1. 머리말

어둔리 사지는 어둔리 저수지 북쪽에 ‘미륵골’<sup>1)</sup>에 위치해 있고, 논과 접해 있는 구덩이에는 석불 3구와 함께 초석, 석비 등 석조물들이 확인되며, 그 구덩이의 북쪽 묘역과 구덩이 사이에 난 농로에는 많은 양의 기와와 토기가 산재해 있어 이 일대가 모두 사역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sup> 이곳에 유존하고 있는 석불과 석조물에 대해서는 이미 김길웅 교수가 주목하여 학계에 소개한 바 있고,<sup>3)</sup> 최근 석불과 석조물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진 양주 회암사지 박물관으로 이전, 보관하였다. 이곳에서 발굴된 석조물은 석불상 3구를 비롯하여, 연화대좌, 초석, 석비, 장대석 등 모두 20건 23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지는 양주의 鎭山인 불곡산을 배후로 하여 낮은 구릉이 좌우로 펼쳐진 아늑한 곳에 남향을 하고 있다. 사지 주변으로는 단천공동묘지와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사지의 훼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현재 사지에 남아 있는 석불들은 고려초기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초석들은 대개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찰은 고려초에 창건되어 여러 번 중수와 중창을 거듭했음을 알 수 있다. 남아 있는 유일한 기록 자료인 석비가 완벽하게 판독되지 않았지만, “康熙十七戊午十一月石得 立石”, “大施”, “化主” 등의 명문이 판독되는 것으로 보아 1678년(숙종 4)에 佛事를 하면서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석불 3구이다. 석불 3구는 모두 여래의 도상적 특징을 보이면서도 독특한 수인과 계인을 취하고 있다. 광배를 등지고 앉은 좌상은 꽃봉우리를 권 契印이며, 입상 1구는 拱手印을 취한 여래상이고, 또 다른 立像은 지권인과 유사하게 두 손을 맞잡은 독특한 수인을 짓고 있다. 양식적인 특징에 있어서도 2구의 석불입상 중 하나는 세장한 석주양식을, 다른 하나는 장중한 석주양식을 보이고 있어 고려 전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행한 두가지 양식이 등장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도상과 양식은 통일신라 이전 불상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특징이다.

그렇다면 3구의 불상이 이곳에서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부터 옮겨와 이곳에 모아둔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또한 사지의 연혁을 살필 수 있는 기록이나 사명을 전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 이들 불상이 어떠한 사상적,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제작되었는지 실마리를 밝혀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

이다. 다만, 불상에서 보이는 형식과 양식적 특징, 그리고 이 불상이 위치하고 있는 어둔리 사지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통해 이 불상의 역사적, 미술사적 의의 등을 밝힐 수밖에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들 불상이 간직하고 있는 형식과 양식 고찰을 통해 불상의 제작시기와 조성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石佛의 造成背景

어둔리 사지에 유존하고 있는 3구의 불상은 엄격한 이상성이 강조된 통일신라 불상 양식과 달리 작자의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된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자유분방한 표현 기법은 통일신라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지만,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것은 고려 전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고려의 후삼국의 통일은 단순히 후백제와 신라의 통합을 떠나 진정한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이 석굴암 불상처럼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이상적 아름다움을 지향했다면, 이러한 완벽한 이상성은 중앙집권적 전제왕권의 몰락과 지방 세력의 성장과 더불어 점차 현실적으로 변모하거나 작자의 개성이 반영된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고려 전기의 불교 조각은 신라하대의 조각 전통과 이를 이은 후삼국 조각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일왕조의 국가적인 기상과 강인한 힘을 기념비적인 조각이나 건축물과 같은 시각적 표현을 통해 발현해 보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반영하고 있다.<sup>4)</sup> 또한 고려시대 불상은 중앙과 지역, 귀족과 토착 세력, 그리고 종파 등 다양한 계층에서 그들이 지향하고 염원한 불상들을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정신은 다양한 형태와 모습을 담은 불상들을 만들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와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를 웅변하듯 고려시대 불상에서는 신라의 전통양식을 계승한 불상과 더불어 연산 개태사 석조여래삼존입상과 같이 통일왕조의 웅장한 힘을 담은 기념비적인 불상이 제작되기도 하며, 그리고 지방의 민중들의 염원을 담은 지방색이 강한 다양한 불상들이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어둔리 사지에 유존하고 있는 석불들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잘 담고 있다. 사지가 위치한 양주 지역은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삼국 쟁탈의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래로부터 이 지역을 점유하는 국가가 곧 삼국통일의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 할 수 있었고, 또한 이 지역을 넓게 품고 흐르는 한강은 각지에서 생산된 다양하고 풍부한 물산을 쉽 없이 실어 나르는 물류교통의 심장부였으니 이를 토대로 화려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양주는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賈省郡이었으며, 昌化郡이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신라 경덕왕이 來蘇라고 썼다. 898년 궁예는 왕건으로 하여금 양주와 건주를 공격하게 하여, 923년 지금의 포천지역의 호족인 命旨城將軍 城達이 고려에 귀부하였고, 925년에는 이 지역의 호족 賈曹城將軍 能玄이 고려에 귀부하였다. 이 지역의 두 호족이 스스로 고려에 귀부하였던 만큼 고려 태조도 이 지역을 각별히 배려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까닭에서인지 935년 6월 고려로 귀부한 후백제 왕 견훤에게 양주를 식읍으로 지급하였는데,<sup>5)</sup> 이를 계기로 후백제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파주시청으로부터 자료 도움을 받았으며, 이에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1) 미륵골은 이곳에 남아 있는 석불로 인해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양주군지』(1978)

2) 『韓國의 寺址』서울·인천·경기북부(문화재청·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p.514.

3) 金古雄, 「楊州於屯里 破佛三軀」, 『考古美術』169·170(韓國美術史學會, 1986.6), pp.78-84.

4)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일조각, 2013), p.18.

5) 『高麗史』卷2, 世家 太祖 18年 6月條.

지역의 불상양식이 이 지역으로 급속히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어둔리 사지에서 보이는 佛像이 충청, 전라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도상적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주라는 지명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 태조 때부터로 알려져 있다. 태조는 한양군을 양주군으로 고치고 본래 양주 땅이었던 내소군은 見州로 고쳤다. 이때 지주사는 양주에 두었으니 견주는 양주의 관할지가 되었다. 995년(성조 14) 전국 12주에 절도사를 둘 때 양주는 海州의 右神策軍과 아울러 左神策軍 節度使의 부임지로 廣陵으로 호칭되기도 하였다. 1010년(현종1)에 거란병을 피하여 왕이 송도를 버리고 멀리 나주까지 몽진할 때, 양주에 며칠간 머문 일도 있다. 1012년 양주의 절도사가 폐지되고 안무사로 개편되었으며, 1018년 지양주사로 강등되었고 견주·沙川縣·豐壤縣이 양주의 속현이 되었다. 문종은 양주를 南京이라 하여 新宮을 조영하였고, 1308년(忠烈王 34)에는 양주를 한양부로 개칭하였다.<sup>6)</sup> 이상과 같이 고려시대의 양주에 대한 개략적인 연혁인데, 고려시대 양주는 수도 개경을 보충하는 위성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려시대의 초기 불교는 민중불교로 세속과 곤경을 함께 하였으나 중기로 들어오면서 귀족과 결부되었다.<sup>7)</sup> 후삼국이 고려로 재편되면서 정치문화의 중심지도 경주에서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으로 재편됨에 따라, 개경의 인근 동남부에 위치한 인접한 양주지역은 중앙의 문화와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하였고, 중앙의 영향 아래에도 있었다. 신라 말부터 뿌리를 내린 지방호족 세력의 성장에 따라 나말여초에는 엄격한 이상성이 발현된 불상보다는 그들이 선호하는 자유분방한 형식의 불상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고려시대 양주는 세곡 수송면에서 육로와 수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경의 단점의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다. 특히 내륙 깊숙이 위치하여 해로와의 연결이 불가능했던 충주와 원주에 德興倉과 興元倉을 설치하여 해로를 통한 조운의 단점을 보충하고, 양주를 통하여 중부 내륙지방과의 연계가 어려웠던 개경의 한계성을 보완하였다.<sup>8)</sup> 이를 통해 양주는 중남부 내륙의 文物을 수도 개경으로 운송하였고, 다시 중앙의 문물을 지방으로 전파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둔리 사지에 남아 있는 불상이 서남부 지방의 지역적 특색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오롯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전통적인 불교의례 뿐만 아니라 토착신앙과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불교행사도 성행하였다. 또한 화엄종·선종·법상종·천태종 등 종파불교도 융성하였고, 왕실귀족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신앙계층도 두텁고 다양해 졌다. 각 종파에서는 그들의 宗旨로 삼는 소의경전을 바탕으로 주존불을 제작하였고, 신앙계층 다양화는 일정한 틀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불교존상들이 양산하게 되는 직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前代 통일 신라 불상의 이상적 조형성에서 벗어나 조각가의 자율성이 반영되어 다양한 형식과 양식의 불상이 만들어졌다. 크기에 있어서도 4m 이상의 대형 불상의 조성이 두드러지는데, 어둔리 사지의 3구의 석불중 1구는 불상 역시 4m 이상의 대형불상에 해당한다.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pp.810-811.  
7) 許興植, 『佛教와 融合된 社會構造』, 『高麗佛教史研究』(一潮閣, 1987), p.11.  
8) 『楊州郡誌』上(楊州文化院, 1992), p.131.

### 3. 석불의 형식 및 양식적 특징

#### 1) 拱手印 石造如來立像(도 1, 2, 3, 4)

이 석조여래입상은 모두 4부분으로 나뉘어 조성하였다. 사지에서는 불두, 상체, 하체가 분리되어 발견되었고, 발굴조사에서 매몰된 발과 대좌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대좌와 발은 한 돌로 만들었고, 하부의 면을 축처럼 만들어 대좌의 홈에 꼭 끼도록 하였다. 불두와 불신의 연결은 둥근 홈을 파고 철축으로 이어 붙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불두와 목에는 한 개의 홈을 뚫었고, 불신에는 좌우측에 각각 1개씩의 둥근 구멍을 뚫었다. 불신의 부위를 여러 개로 나 나누어 이를 축으로 연결하여 조성하는 방식이지만, 후대의 파손으로 보수를 하면서 연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논산 관촉사 미륵보살입상, 충주 미륵대원 석조여래입상 등 대형 불상을 조성할 때 흔히 사용된 제작 방식이다. 발굴조사 결과 관련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파악할 수 없지만 노출된 양상으로 보아 원래의 위치일 가능성도 있다.

두부는 우측 코의 측면을 중심선으로 하여 髮際線, 광대뼈, 그리고 우측 뺨 부분 등 모두 일곱 조각으로 파손되었다. 이는 불상이 넘어지면서 큰 충격을 받아 여러 조각으로 파손된 것으로 생각된다. 삼도가 새겨진 목의 하부에는 불신과 축으로 연결했던 원형의 구멍이 남아 있다.



도1 불상의 머리



도2 불상의 상체



도3 불상의 하체부분과 대좌



도4 불상의 대좌와 발

불상의 머리는 소발이며, 육계는 남아 있지 않으나, 머리와 육계의 경계점의 굴곡선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 원래는 높고 큼직한 복발형의 육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얼굴형은 길쭉한 타원형이며, 이마의 중앙에는 백호를 박았던 백호공의 흔적이 남아 있다. 코는 크고 뚱뚱하며, 입술은 부드럽고 사실적으로 묘사였다. 이러한 길쭉한 타원형의 얼굴형에 큼직하게 표현한 이목구비는 합천 치인리 마애여래좌상,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좌상 등 고려 전기에 제작된 불상의 얼굴표현과 상통한다.

길고 굽은 목에는 삼도를 음각선으로 뚜렷하게 새겼다. 통견의 대의를 걸쳤는데, 목깃은 V자형으로 처리하고 가슴 앞에서 y자 모양으로 교차하여 왼쪽 어깨 뒤로 넘겼다. 왼쪽 어깨로 넘긴 대의자락은 삼각형의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러한 주름은 나말여초의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977년에 중수된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이나 955년 광종의 모후인 유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崇善寺와 관련 있는 원평리 석조여래입상, 고려 문종(1047-1082) 때 조성된 남원 만복사지 석조여래입상이나 주름의 표현 역시 나말여초기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더불어 가슴에서 양 팔뚝으로 날이 선 주름이 마치 불꽃이 피어나듯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주름은 傳 적조사지 철조여래좌상이나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 서산 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949년경) 등 10세기 고려 초에 제작된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적 특징이어서 이 불상의 편년설정에도움이 된다. 이러한 주름은 후대로 갈수록 좀 더 물결이 약화되고 단순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불상도 단순화되고 형식화되어 있어 앞서 예를 든 불상들 보다 약간 늦은 11세기경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두 손은 소매에 싸여 拱手한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손을 덮은 소매 자락은 울동성이 강한 수직 물결문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유사한 도상은 경주 남산 불국 마애여래좌상이나 경주 안압지출토 금동여래좌상<sup>9)</sup> 등 삼국이나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에서도 간혹 확인되지만 흔치 않은 도상이다. 물론 어둔리 사지 인근에 있는 파주 읍내리 석조여래입상(도 5)이 어둔리 사지 불상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부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圖像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둔리 사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전라도 지역에서 제작된 고려시대 불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도상인데, 전남의 장흥 고산사 석조여래입상(도 6)이나 영암 구림리 마애여래입상, 화순 운주사 석조여래입상이나 전북의 임실 학정리 석조여래입상(도 7), 임실 오수리 석불좌상, 장수 원흥 석조여래입상, 김제 용화사 석조여래입상 등을 들 수 있다. 먼 거리 간 유사 도상의 출현은 水運을 통한 이들 지역 간의 직·간접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한편 935년 7월 양주는 고려로 귀부한 후백제왕 甄萱의 食邑이 되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0)</sup> 견훤의 귀부에는 견훤을 지지한 후백제 문무백관은 물론 일반 백성들도 동참하였을 것이며, 여기에는 불상조각에 능한 장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주름은 볼록하게 凹凸을 이루고 있는데, V형으로 이루어진 목깃 아래로는 U자형의 주름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무릎까지 물결치듯 흘러내렸고, 세장한 석주형 석불입상과 마찬가지로 주름 중앙 부분을 오목하고 하면서 아래로 늘어뜨려 변화를 주었다.

이 불상은 대좌의 높이를 제외한 크기가 413cm로, 대좌를 포함하면 거의 5m에 이르는 대형불상이다. 고려 초기 제작된 대형불상들은 대개 미륵불상과 관련이 있다. 즉 미륵의 크기는 『彌勒來時經』과 『觀佛三昧海經』 등에 설해져 있는데, 석가여래가 장육인 반면에 미륵불은 이보다 10배나 큰 十六丈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彌勒大

成佛經』에는 “높이가 황금산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삼악도를 벗어나게 한다”라고 설하여 대형 미륵의 근거가 된다. 고려 전반기의 미륵상은 관촉사나 대조사의 미륵보살상처럼 예배자를 압도하는 위력적인 얼굴에 장중하고 괴량적인 형태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충주 미륵리 미륵불처럼 온화한 얼굴에 세장한 기둥형태 미륵상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등장한다.



도5 파주 읍내리 석조여래입상, 고려시대



도6 장흥 고산사 석조여래입상, 고려전기



도7 임실 학정리 석조여래입상, 고려전기

## 2) 石造如來立像(도 8, 9)

신체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존중하지 않고, 직육면체 돌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여 불신을 새긴 석주형 불상으로, 어깨가 좁은 세장한 석주형 불상양식에 속한다. 머리는 파손되었고, 목에는 머리를 축으로 연결한 둥근 홈이 패여 있는데, 머리는 따로 조성하여 축으로 연결하였거나 후대의 파손으로 축으로 연결하여 보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착의는 통견착의법으로 목깃은 V자형으로 처리하였다. 불신에 새겨진 주름은 일정한 간격으로 층단을 이루며 정강이까지 흘러 내렸고, 측면으로도 일정한 간격으로 빗금을 긋듯이 주름을 새겨 넣었다. 특히 옷주름의 가운데 부분을 찢꼭지 모양으로 늘여지게 처리하여 장식성을 강조한 점이 특색이 있다. 이러한 옷 주름은 쿠마가이 노부오(熊谷宣夫)가 명명한 流水文<sup>11)</sup> 또는 물결무늬의 한 종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결무늬 옷주름은 중국의 남북조시대부터 나타나지만, 이 상과 비교되는 유두식 물결주름은 용문석굴 동산 뇌고대 석불입상과 낙양 석각예술관 석불좌상 등 唐代의 조각에서 이미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이나 충주 창동 마애여래입상, 충주 용담사 석불입상, 여주 점동 청안리 석불입상, 청주 용화사 좌석불입상 등이 있다. 이 상들은 뇌고대 석불입상 등 唐代의 물결무늬 주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sup>12)</sup>

11) 熊谷宣夫, 「西域の美術」, 『西域文化研究』5(法藏館, 1962), p.90.

12) 鄭智禧, 「淸州 龍華寺 石佛像群의 研究-思惱寺址 石佛像群과의 관련성-」,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9, p.69.

9)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국립중앙박물관, 2008), p.233 도136 참조.

10) 『高麗史』卷2 太祖18 6月條.



도8 어둔리 사지 석조여래입상



도9 어둔리 사지 석조여래입상

나말여초로 편년되는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도 10)은 중국 불상의 가늘고 세련된 流水紋에 비해 평판적으로 표현된 것이 차이점이며, 이를 좀 더 발전시킨 것이 고려 초기의 청주 용화사 좌석불입상(도 11)으로 볼 수 있다. 청주 용화사 불상은 신체의 굴곡을 따라 융기된 물결 주름을 다소 번잡하고 활달하게 표현하였고, U자형의 중앙 부분을 유두처럼 표현한 것이 특색이 있다. 이에 비해 어둔리 석불입상의 주름은 단순화된 평판 주름을 평행계단식으로 펼쳤으며, 주름의 가운데를 乳頭모양으로 처리하여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이 불상의 주름은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초로 편년되는 청주 용화사 불상<sup>13)</sup>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적 선후관계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번잡하고 과장되게 표현한 청주 용화사나 충주 불상 계통보다는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에 가깝다. 그러나 신체의 굴곡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세장한 석주형으로 표현한 점 등은 이 불상이 청주 용화사 석불입상 보다는 다소 늦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인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들어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 쥐 형태인데(도 12), 비로자나불상의 지권인과 유사하다. 특히 손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경북 영양 선운사 석조여래좌상(도 13)과 유사한데, 어둔리 사지의 석불도 왼손으로 오른쪽 손가락을 감싸 쥐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가슴 앞에서 곧추 세운 검지를 다른 손으로 감싸 쥐거나 손을 맞잡는 형태, 또는 각지를 끼는 형태는 비로자나불상의 변형된 지권인으로 볼 수 있다. 거듭 말하자면, 이 수인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석조비로자나불상(도 14)<sup>14)</sup>이나 경북 영양 선운사 석조여래좌상 등 비로자나불상으로 추정되는 불상들의 수인과 유사점이 인정되며, 그것은 평택 심복사 비로자나불상(도 15)의 지권인과 같이 치켜세운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듬뿍 움켜잡은 모습을 보다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분명 이 수인은 두 손을 가슴에 들어 엄지와 검지를 맞대 잡은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의 설법인(도 16)이나 순바닥을 모아 합장한 수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3) 청주 용화사 석불상군에 대해서는 정지희, 「淸州 龍華寺 石佛像群의 研究」, 『美術史學研究』238·239(사단법인 한국미술사학회, 2003.9), pp.85-108 참조.

14)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국립중앙박물관, 2008), p.233 도89 전재.

전체적으로 이 석불은 신체의 윤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얼굴, 수인 등 강조할 부분만 표현하는 점 등은 통일신라시대의 조형미와는 전혀 다른 고려 초기의 미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불상은 어깨 넓이와 하단의 폭이 거의 같은 세장한 돌기둥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양식의 불상은 논산 개태사 석조여래삼존상이나 관촉사 미륵보살입상 등 고려 초의 괴량적 형태미를 가진 불상에 이어 충주 미륵대원 대원석불 등과 같이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양식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불상도 11세기 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도10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나말여초



도11 청주 용화사 석불입상, 고려전기



도12 어둔리 석불입상의 수인



도13 영양 선운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고려전기



도14 석조비로자나불입상, 통일신라, 국립경주박물관



도15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나말여초



도16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나말여초

### 3) 石造如來坐像(도 17, 18)

석조여래좌상은 꽃잎형 광배와 한 돌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배의 상단부는 결손되었고, 불상의 밑면은 편평하게 다듬었다. 광배 내부에는 둥근 두광과 신체의 윤곽을 따라 두 줄로 새긴 身光이 있고, 광배의 테두리에는 불꽃무늬를 투박하게 새겼다. 불상은 머리가 결실되었고, 착의는 양어깨를 모두 덮어 내린 통견착의이다. U자형으로 둥근 목깃을 만들고 어깨와 복부 아래로 주름을 일정한 간격으로 새겨 넣었지만, 평판적이어서 팽팽한 긴장감은 보이지 않는다. 결가부좌한 발은 대의자락으로 모두 덮였고, 낮고 넓은 무릎 아래로는 부채살을 펼치듯 도식적인 주름을 성글게 새겨 넣었다. 수인은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려 축지인을 결하였고, 왼손은 꽃줄기를 움켜잡았다. 꽃을 지물로 취한 상은 여말 선초기 여래상과 보살상에서 많이 확인되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석조여래입상(도 19), 용인 용덕사 석조여래입상(도 20), 충주 미륵대원 미륵여래입상,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좌상, 청주 운룡사 석조여래좌상(도 21)등 주로 미륵불과 관련 있는 도상이다.<sup>15)</sup> 이 불상은 두부가 결실되어 정확한 도상적 특징을 파악할 수 없으나, 꽃을 잡고 여래의 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미륵불상 또는 미륵보살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도17 양주 어둔리 사지 석조여래좌상



도18 양주 어둔리 사지 석조여래좌상 밑면



도19 석조여래입상, 나말여초, 국립중앙박물관



도20 석조여래입상, 나말여초, 용인 용덕사



도21 청주 운룡사 석조여래좌상, 고려시대

이 불상은 양식적 특징으로 둥근 어깨와 낮고 넓은 무릎을 가졌는데, 이러한 특징은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상(도 22)이나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철조여래좌상 등 통일신라 말이나 고려 초기에 조성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한다. 특히 U자형으로 흘러내린 평행계단식 옷 주름과 왼쪽 무릎 아래로 사선으로 빗금을 치듯 처리한 주름 등은 영양 연당동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등 9세기 중엽경의 불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도피안사 불상에 비해 허리는 줄고 무릎은 낮고 좀 더 넓어지고, U자형의 평행계단식 주름 등도 보다 도식화되는 등 시기적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불상의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고려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나 1024년에 제작된 북한산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상(도 23) 등 10~11세기에 조성된 불상이나, 이를 이어 받은 公州 金鶴洞 寺址 石造如來坐像(도 24)과 약사여래좌상 등 11세기에서 12세기 전반기에 조성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가깝다.

이 불상은 하단의 폭이 73.41cm로 측정되는데, 다음에 기술할 연화대좌의 윗면에 놓으면 조합이 꼭 알맞은 크기와 형태여서 좌상의 대좌로 만들어진 육각연화대좌가 분명하다.



도22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856년



도23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상, 고려 1024년



도24 공주 금학동 사지 석조여래좌상, 고려전기, 국립공주박물관

### 4) 육각연화대좌(도 25, 26, 27)

이 육각연화대좌는 세 개로 분리되어 발견되었는데, 상대 양련석, 중대석, 하대 복련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상대 양련석은 타원형을 띠고 있으며, 단판복엽으로 이루어진 연판을 엇갈리게 해서 이중으로 장엄하였다. 하단에는 육각의 받침석을 이단으로 두었고, 육각의 받침석은 타원형의 연화대좌의 형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직육각형으로 제작하였다. 육각형의 받침석을 따라 12판의 연잎을 중첩해서 돌려 모두 24엽의 연꽃이 대좌를 화려하게 감싸고 있는 형태이다. 연잎은 대체로 단순, 담백한 형태미를 보이고 있으나 그 끝은 날카롭게 처리하여 생동감을 주었다.

15) 孫永文, 「高麗時代 龍華手印 彌勒圖像의 研究」, 『美術史學研究』252(사단법인 한국미술사학회, 2006.12), pp.117-147.



도25 상대 양련석

도26 육각 중대석

도27 하대 복련석

이에 상응하는 중대석도 육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부서지고 마멸이 심하여 다소 부정확한 형태를 띠고 있다. 중대면석에는 보주모양의 眼象을 모각하였다. 하대석은 호형과 각형으로 이루어진 2단 직육각형의 받침석을 갖추고 있으며, 覆蓮으로 이루어진 연꽃은 2면에 걸쳐 남아 있다. 연꽃은 복관복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잎은 세장하게 뻗었다.

상대 양련석의 최대 폭이 81.67cm이고, 여래좌상의 무릎 폭이 73.41cm 알맞게 부합하기 때문에, 원래는 석조 여래좌상의 대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좌는 육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각형의 조형물은 도리사 세존사리탑 금동육각사리기(국보 제208호)나 경주 이차돈 순교비, 그리고 9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해인사 원당암 육각다층석탑<sup>16)</sup> 등 통일신라 후기부터 등장하지만, 불교미술품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청동 운문사 석조여래좌상의 육각연화대좌(도 28), 평양 홍복사 육각칠층석탑, 원주 법천사지 육각연화대석(도 29),<sup>17)</sup> 정양사 육각석등, 자혜사 육각석등, 군산 발산리 육각부도 등 고려 초부터이다. 이 연화대좌의 조각수법은 다소 거칠고 투박하지만, 고려 전기 육각연화대좌의 전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도28 청도 운문사 석조여래좌상의 육각연화대좌, 고려전기



도29 원주 법천사지 육각연화대석, 고려전기

16) 장충식, 「海印寺 願堂 石造物에 대하여」, 『대학원연구논집』(동국대학교 대학원, 1997), pp.26-28.

17) 『法泉寺址 石物實測 및 地表調査 報告書』(原州郡, 1992.12), 도판 전제.

#### 4. 맺음말 - 於屯里 寺址 佛像의 美術史的 意義

이상과 같이 어둔리 사지의 석불상 불상들은 충청과 전라지역에서 유행한 양식과 도상적 특징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불상의 형식과 양식이 개성의 위성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방색이 강한 불상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이 지역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후백제왕 견훤의 식읍이 되면서 후백제 유민과 장인이 이곳으로 많이 유입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 지역에 후백제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 불상이 제작되는 직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3구의 불상은 각기 다른 도상적 특징을 보이는데, 拱手印을 취한 불상은 원 자리를 지키고 있고, 거의 5m에 이르는 대형의 불상으로서 이 사지의 주존 불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특히 어둔리 사지가 위치한 이 일대를 ‘미륵굴’이라고 전칭하고 있는데, 이 석불과 관련된 명칭으로 보이며, 이 불상도 미륵불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가슴 앞에서 두 손을 포개어 맞잡은 불상은 단언할 수 없으나 비로자나불상의 지권인과 가까운 도상으로 추정하였다. 광배와 한 돌로 조성된 석불좌상은 佛衣를 입고 꽃을 지물로 취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고려 전기 유행한 용화수인 미륵도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이 석불좌상은 불두가 파손되어 정확한 도상은 알 수 없지만 만약 보관을 쓴 보살형으로 조성되었다면, 도솔천상에서 설법하고 있는 미륵보살을 의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공수인 석불입상 함께 上 · 下生의 미륵불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불상 3구는 양식에 있어서도 통일신라 조각의 엄격한 정형성을 탈피하여 자유분방한 개성을 강조한 고려 전기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제작 시기는 11세기에서 12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세부 표현에서 다소 투박하고 형식화된 모습이 있으나 이는 지역주의와 결합한 이 시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 곳의 사지에서 괴량적 석주양식과 세장한 석주양식의 불상이 공존하는 특이한 사례로도 주목된다. 특히 육각연화대좌는 고려시대 불교미술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활용된 조형적 특징이다.

사지에 남아 있는 2구의 불상은 미륵과 관련된 존상으로 추정하였는데, 주지하다시피 미륵불은 불교의 교주인 석가여래에 이어 올 미래불이자 당래불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종파를 불문하고 폭넓게 조성, 신앙된 존상이지만, 법상종의 主佛로서 법상종과 관련이 깊은 존상이다. 拱手印 불상은 크기가 5m에 이르는 대불이라는 점은 이 불상이 미륵불과 관련이 깊은 불상이라고 생각되며, 이와 유사한 도상을 가진 석불들이 지금까지 미륵불로 전칭되고 있는 점도 존명 추정에 참조가 된다. 따라서 어둔리 사지는 미륵불을 주된 신앙으로 하는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목적은 후삼국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던 지역에 미륵대불을 세움으로써 통일 고려 왕실의 위용과 권위를 드러내고, 한편으론 전륜성왕이 치세하는 화평한 시대가 열렸음을 기념하는 상징물로써 미륵불이 가장 적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권인의 비로자나불상은 화엄종의 주불이지만 선종에서도 주불로 채용된 예가 많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고, 미륵을 주존으로 하면서 타종파의 신앙을 융섭하고자 방편불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지가 위치한 양주는 수도 개경과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한 지역이자 한강유역에 위치하고 있어 중남부 지역의 다양한 문물을 수도 개경으로 전해주는 길목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양주지역에서 고려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이 남아 있지 않으나, 이 어둔리 사지 불상을 통해 당시 중앙과 지방과의 소통의 역할을 담당했던 양주지역의 지정학적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데 중요한 역사적, 미술사적 의의가 있다.

Ⅵ. 맺음말

1. 이번조사는 양주 어둔동사지 긴급발굴조사로, 조사면적은 300㎡이며 조사는 2014년 7월 9일 ~ 8월 7일(현장 조사 3일)까지 실시하였다.
2. 조사는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던 석조유물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유적분포 확인을 위한 트렌치 조사와 석조유물에 대한 현황 조사 2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3. 트렌치 조사는 석조유물을 중심으로 3개소에 트렌치를 설정하여 생토층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노출된 석조유물과 관련지를 만 한 유구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통일신라~고려시대 기와편이 일부 포함된 층(Ⅳ층)을 확인하였다. 이 층은 사질성이 강한 사질토층으로 경사면 아래로 갈수록 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며 이 층(Ⅳ층) 아래는 풍화암반층으로 Ⅳ층과 풍화암반층에서 유구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층은 유구의 기반층이라기보다는 이번 조사지역의 상부 구릉 사면부에서 하단부로 쓸려 내려오면서 퇴적되어 형성된 층으로 추정된다.
4. 석조유물에 대한 조사결과, 기존에 확인된 10건 8기 중 9건 7기의 석조유물 이외에 지표상에서 기존 석조유물을 노출 및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7건 7기가 확인되어, 총 16건 14기의 석조유물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유물을 수습한 이후 그 하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석조유물 7건 6점이 추가로 확인되어, 전체 23건 20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어둔동사지 조사현황표

|                    | 조사내용(금번 조사내용에 맞춰 수량 수정)                                                                                                                              |
|--------------------|------------------------------------------------------------------------------------------------------------------------------------------------------|
| 기존조사               | 석조여래좌상 1기, 석조여래입상1기,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3건1기(대좌 미확인), 연화대좌(대좌 상대양련석) 1기, 팔각연화대좌(대좌 하대복련석) 1기, 난간기둥석(석등화사석) 1기, 비신1기, 초석(방형초석) 1기 등 총 10건 8기.                 |
| 금번 긴급발굴조사<br>(지표면) | 기존[석조여래좌상 1기, 석조여래입상1기,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3건1기, 연화대좌(대좌 상대양련석) 1기, 난간기둥석(석등화사석) 1기, 비신1기, 초석(방형초석)1기]+<br>신규[초석 4점, 대좌 중대석 1점, 장대석 1점, 용도미상 1점] 총 16건 14점   |
| 하부 추가 수습유물         | 7건 6점 유물 확인.<br>공수인 석조여래입상 대좌 1건, 대좌 하대복련석 1건, 초석 4점, 대좌 중대석 1점(7건 6점)                                                                               |
| 총계                 | 총 23건 20점의 유물이 수습됨<br>석조여래입상 1점,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4건 1점, 석조여래좌상 1점, 대좌 상대 양련석 1점, 대좌 하대복련석 1점, 난간기둥석 1점, 대좌 중대석 2점, 초석 9점, 비신 1점, 장대석 1점, 용도미상 1점(20건 23점) |

5. 확인된 석조유물의 수량과 조사지역에서 유물의 출토 양상, 시굴조사에서의 층위양상 등을 고려할 때 이 유물들은 원래의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수인 석조여래입상의 경우 대좌의 출토양상과 하체부를 대좌에 끼워서 결합되는 것 등으로 볼 때 원래의 위치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수습조사지역 주변으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지역 주변에 대한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사전 조사를 통해 유적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다.

사 진



사진 34. 석조여래입상(①수습전 상태, ②전경, ③상반신 수인, ④~⑥불신에 새겨진 주름:정면, 우측, 좌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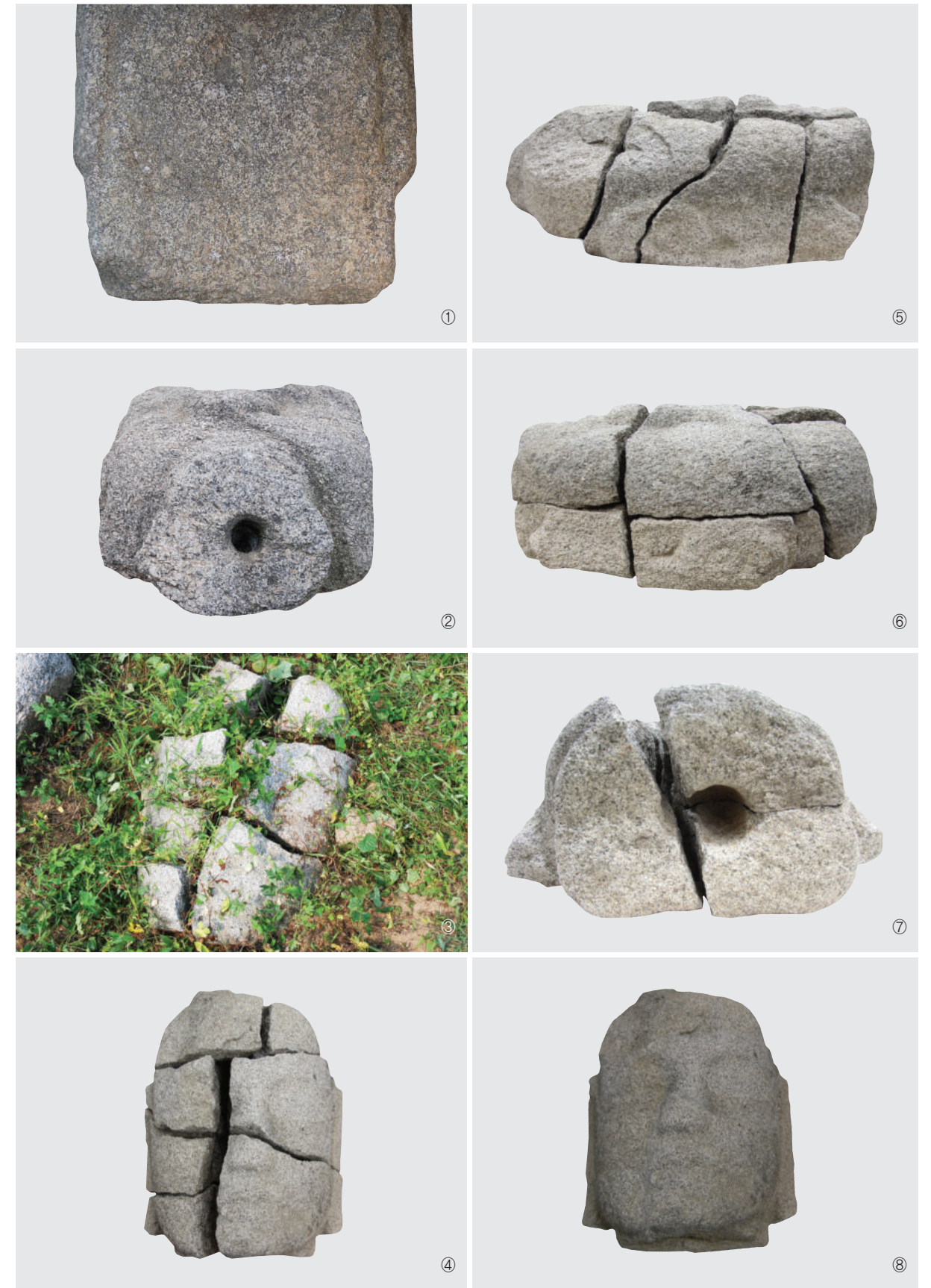


사진 35. 석조여래입상(①하단부, ②불두 연결 홈),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두부(③수습전 상태 ④전경, ⑤·⑥측면 세부, ⑦상체부 연결 홈, ⑧복원 전경)



사진 36.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상체부(①수습전 상태, ②전경, ③불두 연결 홈, ④ 정면 주름 세부, ⑤·⑥하체부 연결 홈, ⑦공수인 세부, ⑧·⑨측면 주름 세부)



사진 37.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하체부(①·②수습전 상태, ③전경, ④하체부 대좌 연결 홈, 불두 연결 홈, ⑤정면 주름 세부, ⑥상체부 연결 홈, ⑦·⑧측면 주름 세부)





사진 40. 하대복련석(①수습전 상태, ②전경, ③연화문 세부), 비신(④수습전 상태, ⑤전경), 난간 기둥석(⑥수습전 상태, ⑦·⑧측면), 초석 1(⑨평면, ⑩측면)



사진 41. 대좌 중대석 1(①수습전 상태, ②평면, ③~⑤측면), 대좌 중대석 2(⑥수습전 상태, ⑦평면, ⑧~⑩측면), 초석 2(⑫수습전 상태, ⑬평면, ⑭측면)



사진 42. 초석 3(①평면, ②측면), 초석 4(③평면, ④측면), 초석 5(⑤평면, ⑥측면), 초석 6(⑦평면, ⑧측면)



사진 43. 초석 7(①평면, ②측면), 초석 8(③평면, ④측면), 초석 9(⑤평면, ⑥측면), 장대석(⑦평면, ⑧흠세부), 용도미상 석조품(⑨수습전 상태, ⑩평면, ⑪입면)

## 양주 어둔동사지 긴급발굴조사 출토 석조유물 보존처리 결과보고서

김웅신 · 이윤정

# 부 록

1. 양주 어둔동사지 긴급발굴조사 출토 석조유물 보존처리 결과보고서
2. 양주 어둔동사지 수습조사 석조유물 3D 스캔 도면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수습 · 이전
- III. 보존처리과정
  1. 사진촬영 및 예비조사
  2. 표면오염물 제거
  3. 접합
  4. 복원 및 색맞춤
  5. 마무리
- IV. 두부의 보존처리 전 · 후 사진
  1. 보존처리 전
  2. 보존처리 후

## I . 머리말

경기도 양주시 어둔동 195 일원의 양주 어둔동사지에는 석조유물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과거 4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1977년 조사를 시작으로 2010년 조사에서는 석조여래좌상 등 총 9기의 석조유물이 보고되었다. 지표상에 노출된 석조유물의 수습 · 이전과 함께 주변지역의 유적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보존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2014년 7월 9일 ~ 8월 7일까지 긴급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지표에서 16건 14점, 하부조사에서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대좌 등 7건 6점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23건 20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이에 경기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부에서는 석조유물의 수습 · 이전의 지원 및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10개의 편으로 파손되어 수습된 공수인 석조여래입상의 두부(이하 두부)는 보존과학실로 운반하여 보존처리를 진행하였으며, 대좌 등 22점은 보관장소에서 표면세척을 진행하였으며, 이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 Ⅱ. 수습 · 이전

하부조사에 앞서 지표상에서 확인되는 석조유물은 14점으로 수습 · 이전을 위하여 사진촬영 및 3D스캔 촬영을 실시하여 유물의 3D 이미지를 데이터화 하였다.



사진 1. 수습 전 전경



사진 2. 두부 수습 전 상태



사진 3. 3D스캔 촬영



사진 4. 3D스캔 촬영

석조유물은 슬링밴드로 묶은 후 무게중심을 맞춰가며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습하였다. 수습 후 표면에 두툼게 덮인 흙은 고압의 공기와 플라스틱 솔을 이용하여 일부 제거하였다.

유물의 이동시 손상을 막기 위하여 에어비닐로 1차적으로 포장을 한 후 보온덮개를 이용하여 2차적으로 포장하여 표면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포장 후 보온덮개 바깥에 유물번호를 기입 후 비닐랩과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단단하게 보강하였다. 굴삭기, 크레인을 이용하여 유물을 지정된 장소에 이동하여 보관하였으며, 두부는 보존처리를 위해 보존과학실로 운반하였다.



사진 5. 석조여래입상 수습



사진 6. 대좌 수습



사진 7. 고압의 공기를 이용한 표면 세척



사진 8. 플라스틱 솔을 이용한 표면 세척



사진 9. 석조유물 포장 준비



사진 10. 1차 에어비닐 포장



사진 11. 2차 보온덮개 포장



사진 12. 유물번호 기입



사진 13. 유물 운반



사진 14. 유물 보관

### Ⅲ. 보존처리 과정

#### 1. 사진촬영 및 예비조사

10점으로 파손되어 수습된 두부는 접합이 필요한 상태로 보존과학실로 운반하여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처리 전 상태를 기록하기 위하여 color 스케일을 이용하여 전체 및 세부사진을 촬영하였다. 접합의 순서와 방법을 고려하기 위하여 파손부재 별 번호(1~10)를 부여하고 무게를 측정하였다. 지표에 노출되어 있었던 두부의 표면에 흙의 고착상태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하부조사에서 출토된 3점의 두부편은 흙이 두텁게 고착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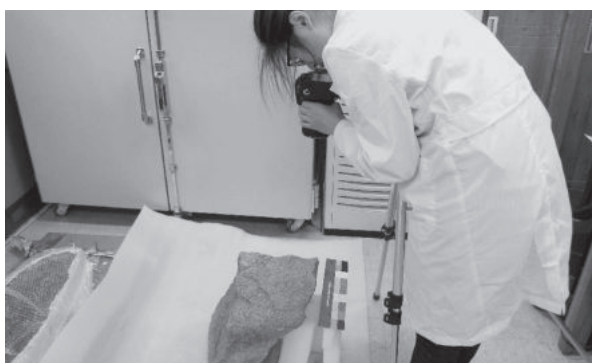


사진 15. 처리전 사진 촬영



사진 16. 중량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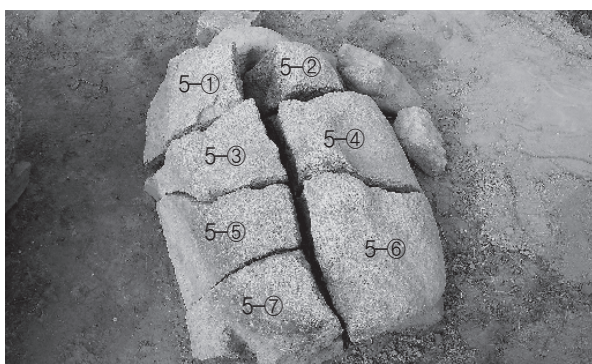


사진 17. 두부 세부번호



사진 18. 두부 세부번호

#### 2. 표면오염물 제거

표면의 흙이나 먼지, 오염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습식으로 세척을 진행하였으며, 암석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였다. 습식세척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세척 전에 유물의 표면을 습윤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유물의 세척시 편들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각 유물의 표면에 이온수를 분무하여 습윤한 상태로 만든 후 고착이물질이 연화되도록 한 후 플라스틱 솔을 이용하여 표면 브러싱을 실시하였다. 두부의 이목구비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세척을 진행하였으며, 단단하게 고착된 이물질은 고압의 스팀세척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1차 습식세척에서 제거되지 않은 고착 지의류는 핀셋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제거한 후 습식세척을 수회 반복하였다. 바닥부분에서 수습된 부재는 표면에 진흙이 단단하게 고착된 상태였기 때문에, 1차로 흐르는 물에서 플라스틱 솔을 이용하여 고착된 흙을 제거한 후 세부세척을 진행하였다.



사진 19. 습식세척



사진 20. 스팀세척기를 이용한 습식세척



사진 21. 두부 표면 세척



사진 22. 고착 지의류 제거

### 3. 접합

두부의 접합 전 편들의 정확한 접합위치와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가접합을 실시하였다. 가접합은 보존처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전체적인 접합순서를 확인한 후 본 접합을 실시하였다. 접합순서는 2개의 편 끼리 접합한 후 큰편으로 접합하였다. 접착제는 Epoxy계 수지 Araldite AY103 · HY956을 사용하였다. 접착제에 충전제로 talc와 무기안료를 혼합하여 접합하였다. 접착제를 접합면에 고르게 도포한 후 고정끈으로 단단히 묶어 형태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수 있도록 36시간 이상 고정하였다.



사진 23. 접착제 도포



사진 24. 고정끈을 이용한 경화

### 4. 복원 및 색맞춤

접합을 완료한 석두부의 틈사이에는 색감이나 질감표현에 용이한 에폭시 퍼티를 사용하여 복원하였다. 색맞춤 처리는 보존처리에서 최종적인 작업으로 먼저 아크릴 물감으로 유물의 표면색과 유사하게 맞춰 채색하였다.

### 5. 마무리

보존처리 완료 후 사진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보존처리의 모든 과정과 특이사항, 처리 제원 등을 보존처리 기록카드에 기록하였다.

## Ⅳ. 두부의 보존처리 전·후 사진

### 1. 보존처리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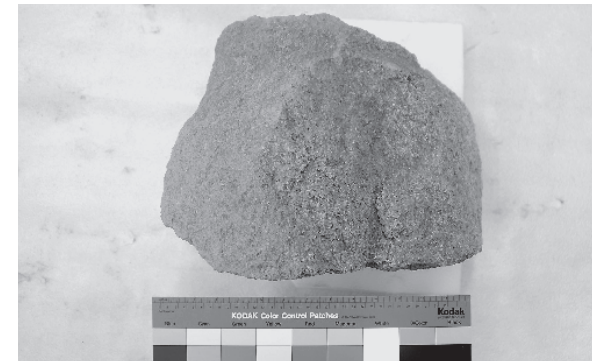


사진 25. 5-① 처리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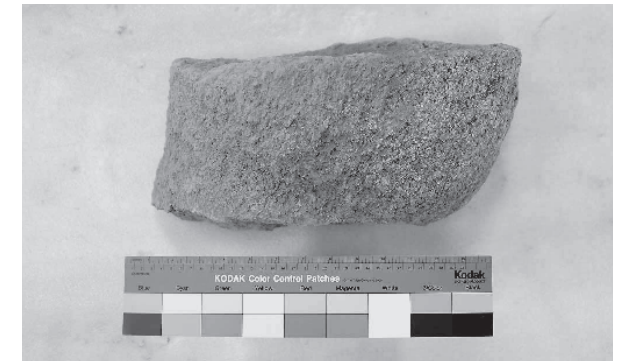


사진 26. 5-② 처리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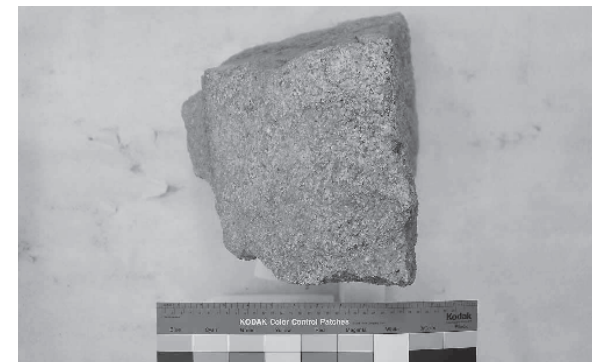


사진 27. 5-③ 처리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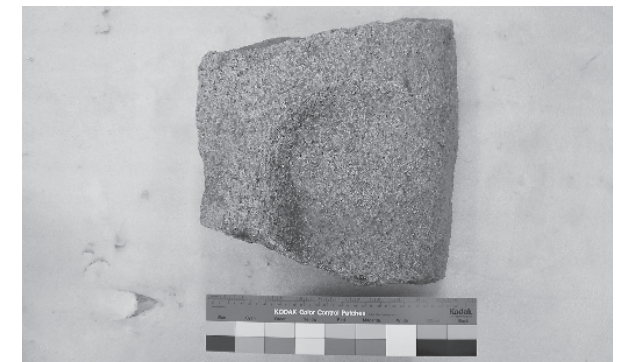


사진 28. 5-④ 처리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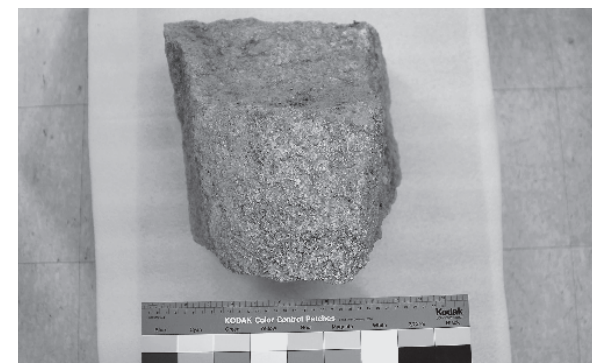


사진 29. 5-⑤ 처리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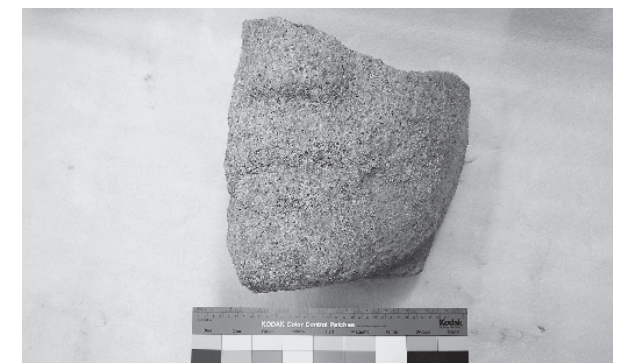


사진 30. 5-⑥ 처리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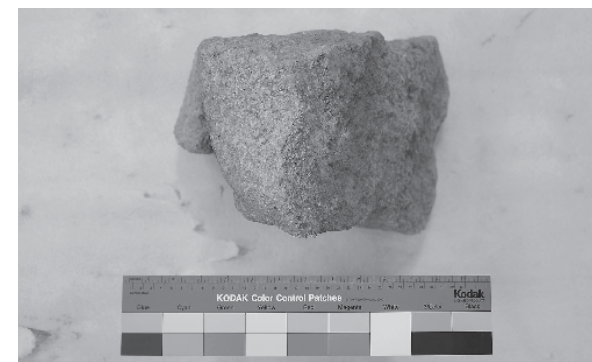


사진 31. 5-⑦ 처리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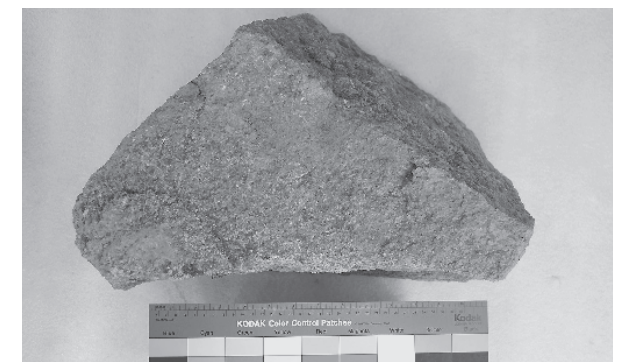


사진 32. 5-⑧ 처리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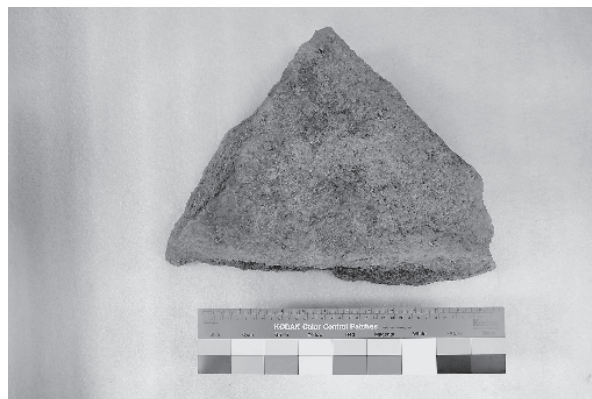


사진 33. 5-㉑ 처리전 사진



사진 34. 5-㉒ 처리전 사진

## 2. 보존처리 후



사진35. 두부 처리 후 정면



사진36. 두부 처리 후 밑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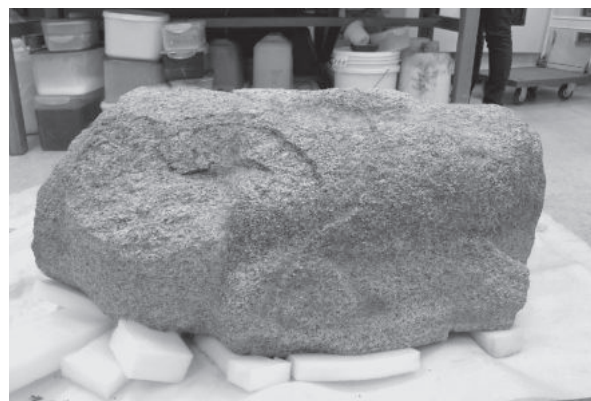


사진37. 두부 처리 후 옆면

## ◎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중봉조현선생일군순의비 보존, 2010.

김종우 · 정태화 · 용병주, 용장계 석조약사불좌상의 보존처리, 박물관 보존과학 제8집, 2007.

조연태, 석조불좌상(石造佛坐像)의 보존과 과학적 특성 연구, 박물관 보존과학 제12집, 2011.

조연태 · 김창석 · 강대일 · 이명희,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보존처리,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보존, 2001.

조영훈 · 이찬희, 석조문화유산의 손상지도 제작방법과 표면 및 3차원 손상을 평가기법, 보존과학회지

황정은 · 김사덕 · 정희수,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손상현황과 표면오염물 제거연구, 보존과학연구 Vol.33, 2012.

황정은 · 김사덕 · 정희수,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의 손상현황과 보존처리 연구, 보존과학연구 Vol.34, 2013.

## 양주 어둔동사지 수습조사 석조유물 3D 스캔 도면

(1) 석조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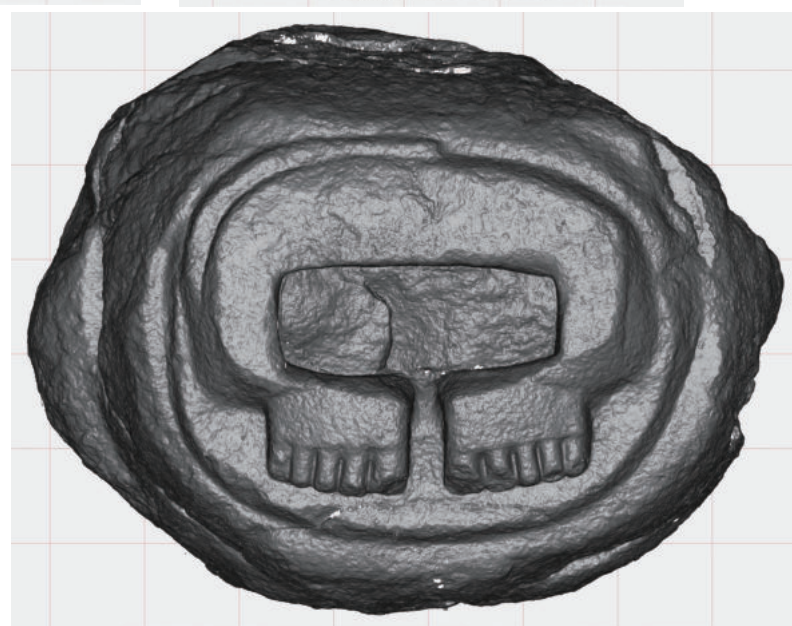
1. 〈연번1〉 유물(1:15)



(20) 용도미상 석조품

0 50 100cm

(2)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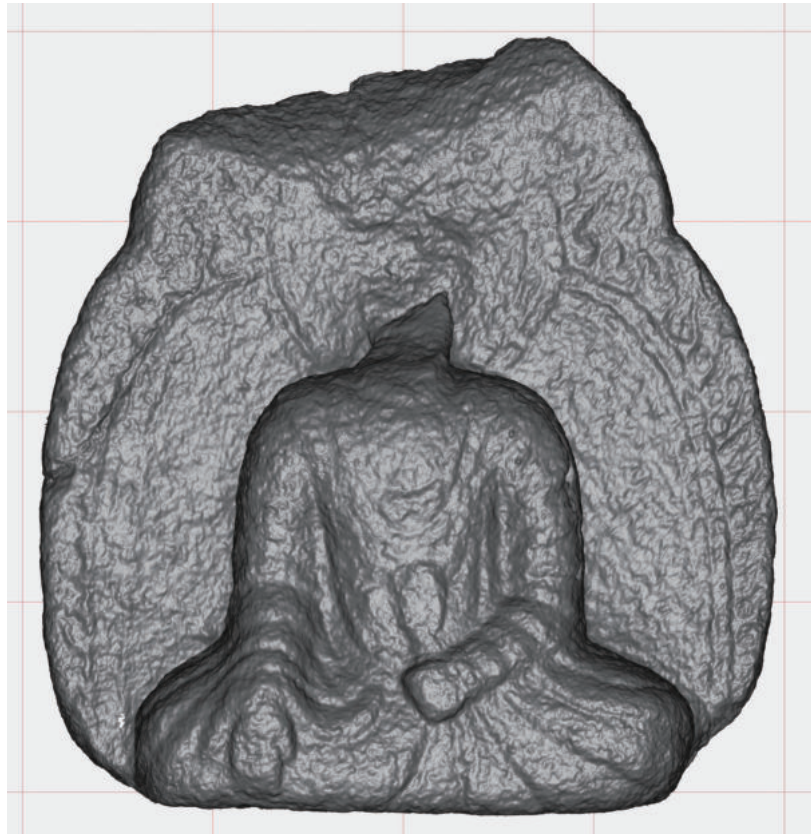


2. <연번2> 유물(1:20)



3. <연번2> 유물 3D 복원도(1:20)

0 50 100cm



(3) 석조여래좌상

0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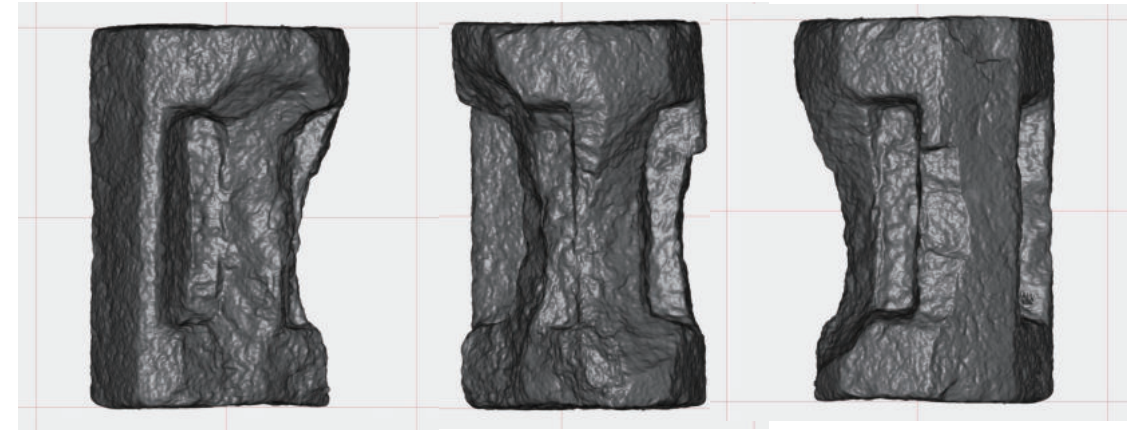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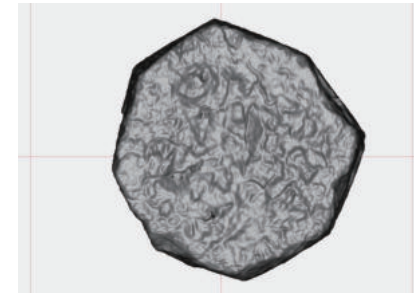


(4) 연화대좌 상대양련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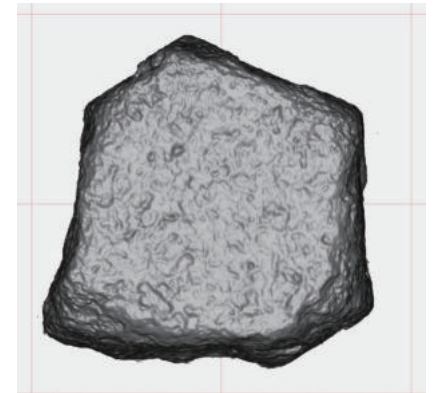
(5) 연화대좌 하대복련석

4. <연번3·4·5> 유물(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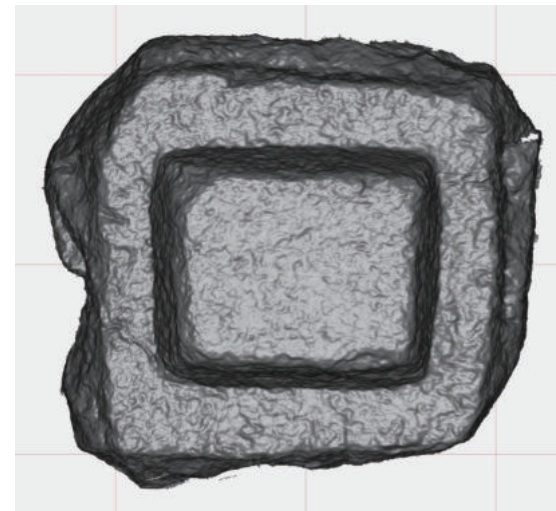


(7) 난간 기둥석

0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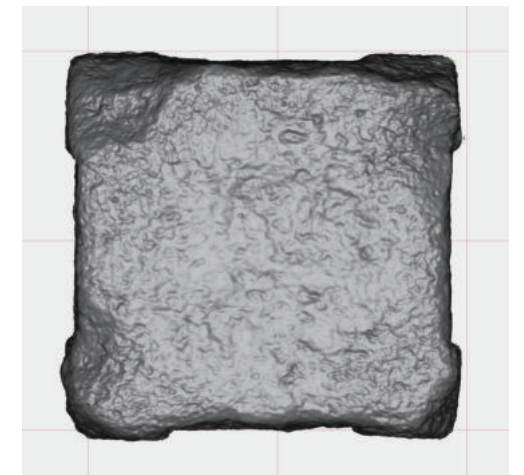


(9) 대좌 중대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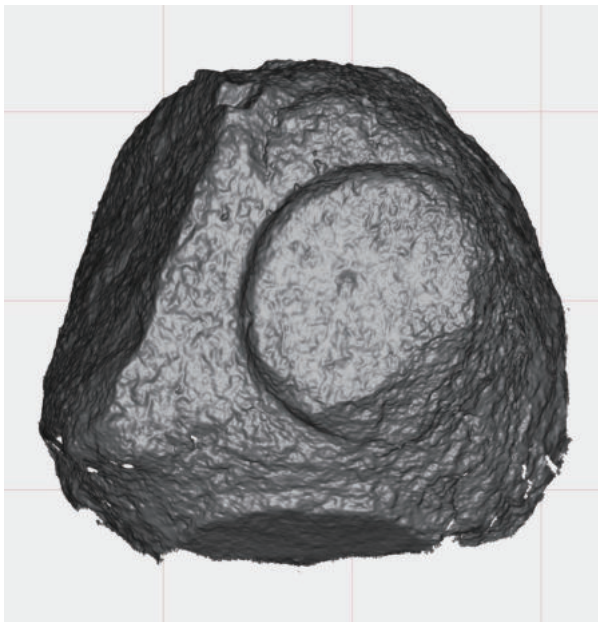


(8) 초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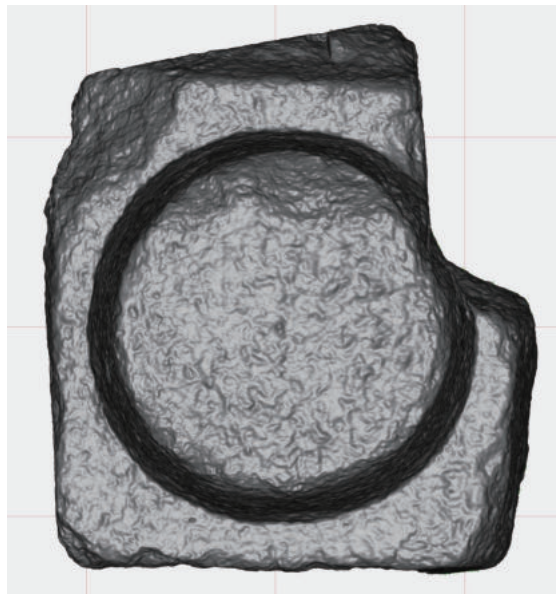
4. <연번3·4·5> 유물(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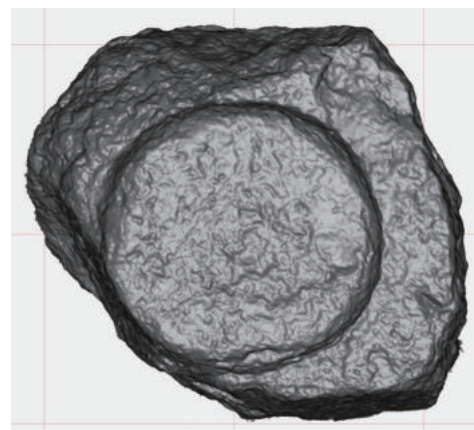
(10) 대좌 중대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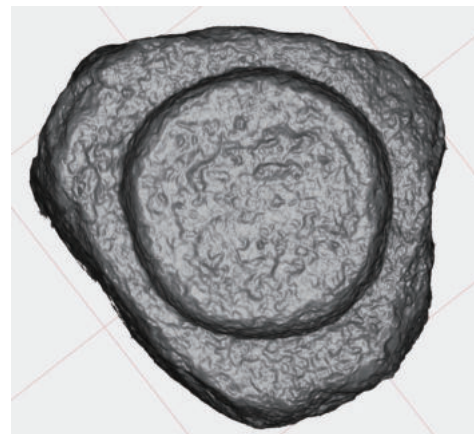
(11) 초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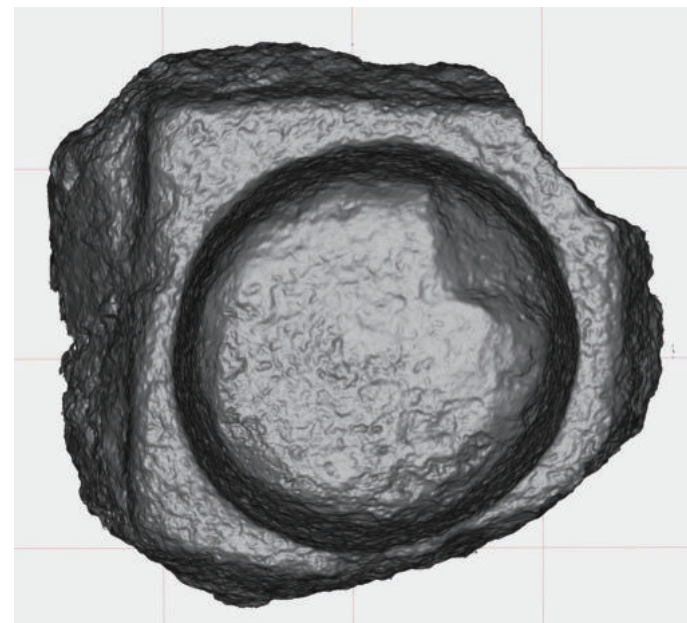
(13) 초석 4



(14) 초석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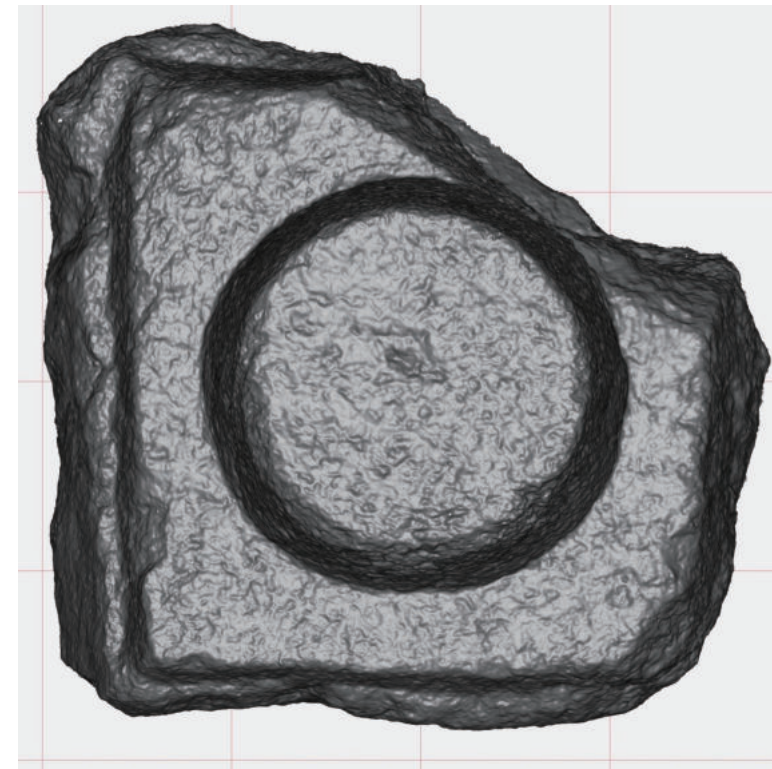


(15) 초석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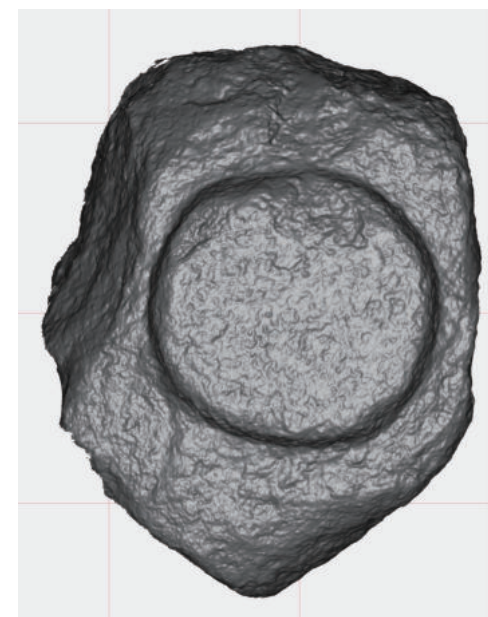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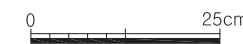


(12) 초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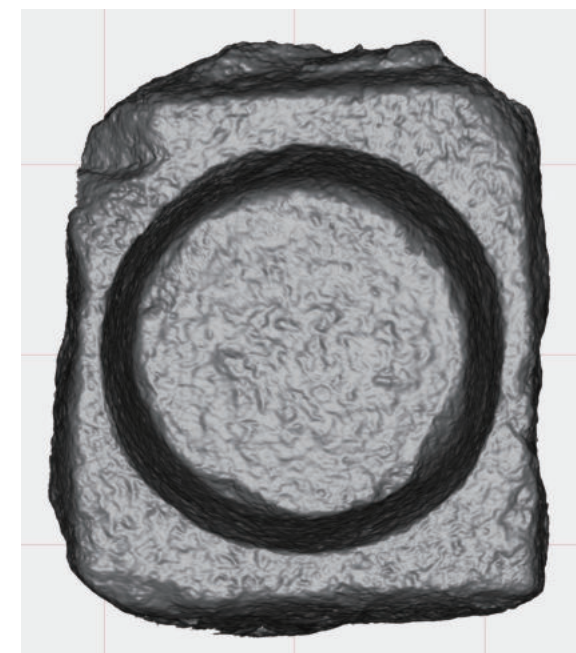
6. <연번 11·12·13·14·15> 유물(1:10)



(16) 초석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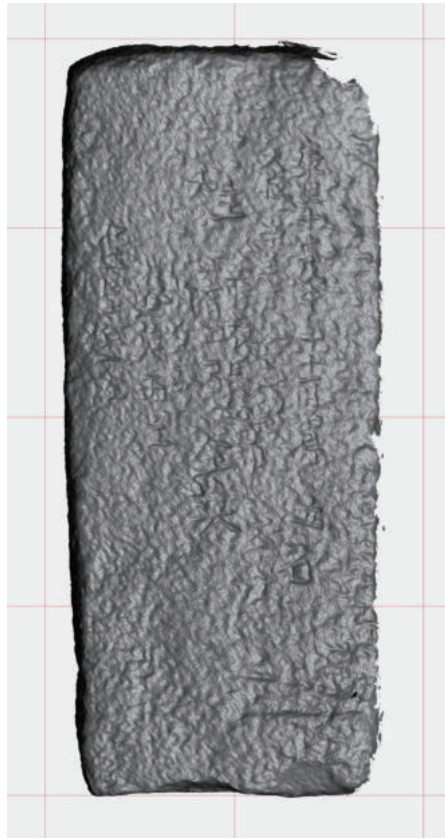


(17) 초석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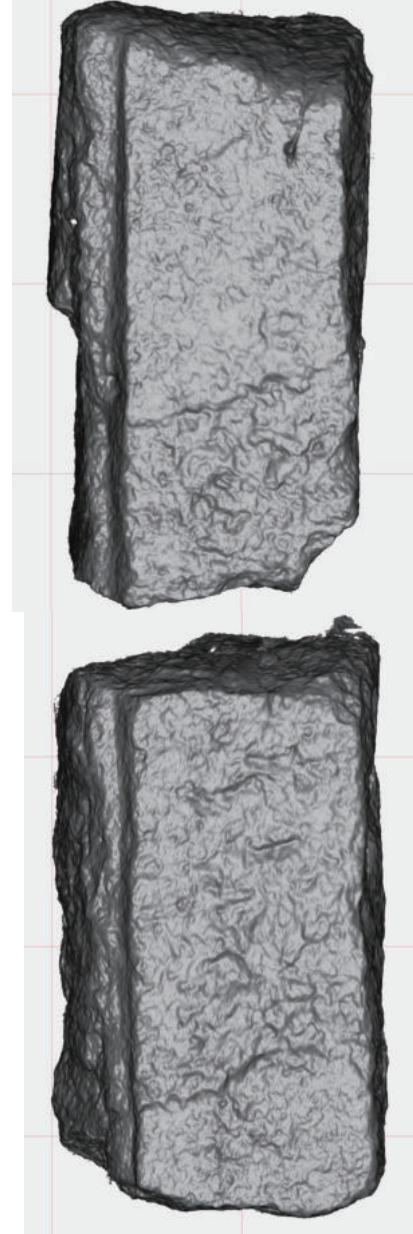
(18) 초석 9

7. <연번16·17·18> 유물(1:10)



(6) 비신

0 25cm



(19) 장대석

8. <연번6·19> (1:10)

## 자문위원 의견서

|                                                                                   |        |
|-----------------------------------------------------------------------------------|--------|
| 유적명 : 양주 여동동사지 긴급발굴조사                                                             | 허가번호 : |
| 조사결과 :                                                                            | 전공 :   |
| 자문위원 :                                                                            |        |
| 조사기간 :                                                                            |        |
| 자문의견 :                                                                            |        |
| · 양주 여동동사지에 유물하고 있는 석조여동입상과 석조여동좌상은 양자 및 도상적 특징으로 보아 고려전기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됨.           |        |
| · 항인상은 석조물들은 고려 전기에서 조성 후기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항인상.                                       |        |
| · 능동된 석비는 탁발자를 시사하며 사자의 상형 제형은 위한 자료를 확보함.                                        |        |
| · 전체 거대한 현존하는 불상은 비록하고 관련 있는 석조물들은 전부 여동동사에 불상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됨. 이전조상은 고려전기라고 할 수 있음. |        |
| · 고려전 석조의 석조물들은 상하로 나누어 위층에 3D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        |
| · 능동된 석비는 현존하는 불상의 상형은 불상상의 위층에 조성된 것이 대조적                                        |        |
| 자문위원 : 전체는 조성된 것으로 보임.                                                            |        |



경기문화재연구원

세종대

공신문화(한)

중앙대학교

최재현

문화재연구원

김영호

##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                |                                                  |                |           |
|----------------|--------------------------------------------------|----------------|-----------|
| 허가번호           | 제2014-0655호(2014.6.30)                           |                |           |
| 유 적 명          | 양주 어둔동사지 긴급발굴조사                                  |                |           |
| 조사기관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                |           |
| 출토유물           | 석조여래입상 등 33건 38점                                 |                |           |
| 회의일시           | 2015년 04월 23일 오후 3시                              |                |           |
| 평 가 의 견        |                                                  |                |           |
| 보고서<br>수록대상    | 고대시대 유물로 추정되며, 20건 23점은<br>비수리 부속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사견임 |                |           |
| 학술자료<br>(비수록)  |                                                  |                |           |
| 매물자료<br>(비수록)  | 판석 등 13건 15점은 학술적 가치에 의거함으로<br>여물 조치하는 것이 적당함    |                |           |
| 평 가 위 원        |                                                  |                |           |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 국립중앙박물관        | 민 병 찬(서명)                                        | 용인대학교<br>문화재학과 | 배 재 호(서명) |
| 문화재청<br>유형문화재과 | 손 영 문(서명)                                        |                | (서명)      |
|                | (서명)                                             |                | (서명)      |

※ 평가기준

1. 보고서 수록대상 유물 :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학술자료(비 수록 유물) : 보고서 수록대상 유물 평가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학술적으로 연구필요가 있는 자료

## <어둔동사지 출토 석조유물 목록>

| 번호 | 유물명             | 어둔동사지 출토유물 보고서 수록 선별결과 |      |    |
|----|-----------------|------------------------|------|----|
|    |                 | 보고서 수록                 | 학술자료 | 매물 |
| 1  | 석조여래입상 1        | ○                      |      |    |
| 2  | 석조여래입상 2-1(두상)  | ○                      |      |    |
|    | 석조여래입상 2-2(상반신) | ○                      |      |    |
|    | 석조여래입상 2-3(하반신) | ○                      |      |    |
|    | 석조여래입상 2-4(대좌)  | ○                      |      |    |
| 3  | 석조여래좌상          | ○                      |      |    |
| 4  | 대좌 상대석          | ○                      |      |    |
| 5  | 장대석 1           |                        |      | ○  |
| 6  | 초석 1            | ○                      |      |    |
| 7  | 난간 기둥석          | ○                      |      |    |
| 8  | 용도미상 1          | ○                      |      |    |
| 9  | 대좌 중대석 1        | ○                      |      |    |
| 10 | 초석 2            | ○                      |      |    |
| 11 | 비신              | ○                      |      |    |
| 12 | 장대석 2           | ○                      |      |    |
| 13 | 초석 3            | ○                      |      |    |
| 14 | 초석 4            | ○                      |      |    |
| 15 | 초석 5            |                        |      | ○  |
| 16 | 판석 1            |                        |      | ○  |
| 17 | 초석 6            | ○                      |      |    |
| 18 | 대좌 하대석          | ○                      |      |    |
| 19 | 판석 2            |                        |      | ○  |
| 20 | 초석 7            |                        |      | ○  |
| 21 | 대좌 중대석 2        | ○                      |      |    |
| 22 | 초석 8            | ○                      |      |    |
| 23 | 초석 9            | ○                      |      |    |
| 24 | 초석 10           |                        |      | ○  |
| 25 | 장대석 3           |                        |      | ○  |
| 26 | 초석 11           | ○                      |      |    |
| 27 | 판석 3            |                        |      | ○  |
| 28 | 용도미상 2          |                        |      | ○  |
| 29 | 판석 4            |                        |      | ○  |
| 30 | 초석 12           | ○                      |      |    |
| 31 | 판석 5            |                        |      | ○  |
| 32 | 판석 6            |                        |      | ○  |
| 33 | 호석-1            |                        |      | ○  |
|    | -2              |                        |      | ○  |
|    | -3              |                        |      | ○  |

20건 23점

13건 15점

양주 어둔동사지 출토 유물목록

| 연번 | 유물명        | 도면  | 사진     | 연번 | 유물명      | 도면 | 사진     |
|----|------------|-----|--------|----|----------|----|--------|
| 1  | 석조여래입상     | 5   | 34     | 11 | 초석2      | 17 | 41-⑫~⑭ |
| 2  | 공수인 석조여래입상 | 6~8 | 35~38  | 12 | 초석3      | 18 | 42-①·② |
| 3  | 석조여래좌상     | 9   | 39-①~⑥ | 13 | 초석4      | 19 | 42-③·④ |
| 4  | 연화대좌 상대앙련석 | 10  | 39-⑦~⑧ | 14 | 초석5      | 20 | 42-⑤·⑥ |
| 5  | 연화대좌 하대복련석 | 11  | 40-①~③ | 15 | 초석6      | 21 | 42-⑦·⑧ |
| 6  | 비신         | 12  | 40-④·⑤ | 16 | 초석7      | 22 | 43-①·② |
| 7  | 난간 기둥석     | 13  | 40-⑥~⑧ | 17 | 초석8      | 23 | 43-③·④ |
| 8  | 초석1        | 14  | 40-⑨·⑩ | 18 | 초석9      | 24 | 43-⑤·⑥ |
| 9  | 대좌 중대석1    | 15  | 41-①~⑤ | 19 | 장대석      | 25 | 43-⑦·⑧ |
| 10 | 대좌 중대석2    | 16  | 41-⑥~⑪ | 20 | 용도미상 석조품 | 26 | 43-⑨~⑪ |

調査報告書 抄録

|             |                                              |                       |                                        |       |                  |
|-------------|----------------------------------------------|-----------------------|----------------------------------------|-------|------------------|
| 報 告 書 名     | 양주 어둔동사지<br>-양주 어둔동사지 석조유물군 수습조사 및 시굴조사 보고서- |                       |                                        | 發 行 日 | 2015年 7月 31日     |
| 發 刊 機 關     | 名 稱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 양주시 |                                        |       |                  |
|             | 住 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       |                  |
|             | T E L                                        | (031) 231 - 8541      |                                        | F A X | (031) 898 - 7991 |
| 執 筆 · 編 輯 者 | 이병훈, 강성표, 김웅신, 이윤정, 김영화, 김성태, 김성범            |                       |                                        |       |                  |
| 調 査 緣 由     | 어둔동사지 출토 석조유물 긴급수습 발굴조사                      |                       |                                        |       |                  |
| 調 査 擔 當 者   | 이병훈, 강성표, 김웅신, 이윤정, 설아현                      |                       |                                        |       |                  |
| 遺 蹟 所 在 地   | 경기도 양주시 어둔동 193번지 일원                         |                       |                                        |       |                  |
| 調 査 面 積     | 300㎡                                         |                       |                                        |       |                  |
| 遺 蹟 種 別     | 時代 및 年代                                      | 基數                    | 重要遺物                                   |       | 特記事項             |
| 불상          | 고려                                           | 3                     | 석조여래입상 2점,<br>석조여래좌상 1점                |       |                  |
| 대좌          |                                              | 4                     | 대좌 상대앙련석 1점<br>대좌 상대복련석 1점<br>대좌중대석 2점 |       |                  |
| 비신          |                                              | 1                     |                                        |       |                  |
| 초석          |                                              | 9                     | 방형초석 등 9점                              |       |                  |
| 난간기둥석       |                                              | 1                     |                                        |       |                  |
| 장대석         |                                              | 1                     |                                        |       |                  |
| 용도미상        |                                              | 1                     |                                        |       |                  |

■ 현장조사

- 현 장 조 사 : 고재용, 이병훈, 강성표
- 유물 이전 및 수습 : 김웅신, 이윤정, 설아현
- 유 구 실 측 : 이병훈, 강성표

■ 보고서 작업

- 원 고 : 이병훈, 강성표, 김웅신, 이윤정
- 편 집 : 김영화, 이병훈, 조은정
- 유 물 실 측 : 김영화, 진수정, 윤소영, 강미숙
- 도 면 전 산 화 : 조은정, 강성표
- 복원 및 보존처리 : 김웅신, 이윤정, 설아현
- 교 열 : 김성범, 김성태, 김영화

|                                                                                                                                                                                              |
|----------------------------------------------------------------------------------------------------------------------------------------------------------------------------------------------|
| 學術調查報告 第 160冊                                                                                                                                                                                |
| <div>양주 어둔동사지</div> <div>-어둔동사지 출토 석조유물 긴급수습 발굴조사 보고서-</div>                                                                                                                                 |
| 2015年 7月 28日 印刷<br>2015年 7月 31日 發行                                                                                                                                                           |
| 編輯 _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br>發 行 _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 양주시<br>發行處 _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br>☎ 031)231-8551, fax 031)898-7991<br>印刷處 _ 경인M&B<br>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br>☎ 031)231-5520~7, fax 031)231-5519 |

(비매품)

